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6. **1** Vol. 169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원로소설가 최해군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_ 천정없는 화실 김정산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병술년에는 악화(樂化)로부터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_ 세상의 균형 속에 있는 영화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함께하는

2006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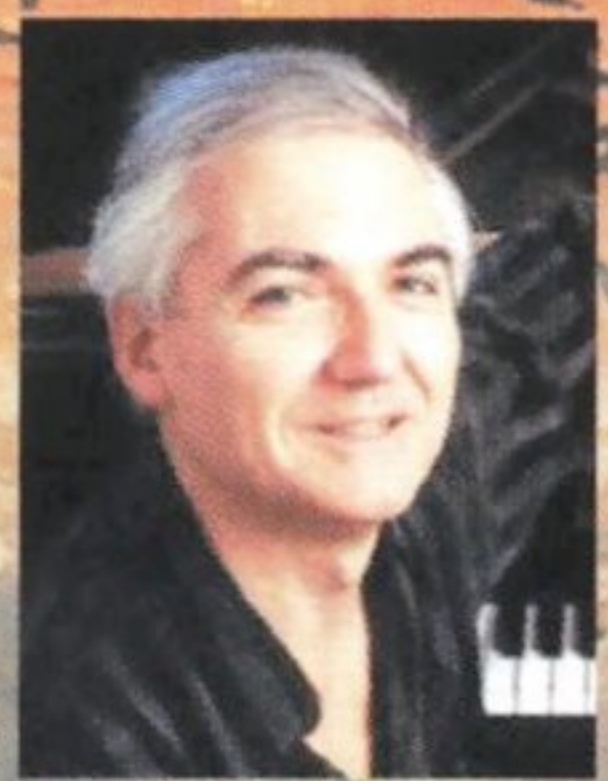
지 휘 · 관 승



바이올린 · 루시 스톨츠만



첼로 · 로렌스 레셔



피아노 · 올리비에 가르동



바이올린 · 김수빈



소프라노 · 박미혜



테너 · 김남두

2006. 1. 13(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주]포에드(주)중앙고대행사

■ 연주곡목

- 차이코프스키 -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45
- 베토벤 - 3중 협주곡 다장조 작품56
- 구노 -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갈초”
- 레하르 - 「메러 위도우」 중 “빌리아의 노래” 외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www.bscculture.busan.kr 607-6070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www.busanphil.com 607-6101~4

■ 입장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남포동/ 문우당서점 (버스정류소 앞 245-3843) 광복동/ 국도레코드 (로얄호텔 옆 247-4240~2) 서면/ 부산음악사 (서면학원 옆 803-1527) 영광동서 (복개천 816-9500)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금정/ 신나라 레코드 부산대점 (부산대 앞 518-0686) 골든 악기사 (부산예고 앞 512-4295) 대연동/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해운대/ 해운대약국 (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Contents

2006 · 01

- 04 부산문화회관 1월 공연 일정
- 06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1월 공연 일정
- 08 신년사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의 장을 기대하며 · 조병규
- 10 신년사 | 내 나무는 날개를 꺼내어 · 강영환
- 12 반갑습니다 | 원로소설가 최해군
- 16 부산시립예술단 2006년 신년 설계
- 22 부산시립예술단 2006년 공연 일정
- 24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천정없는 화실 금정산 · 김봉진
- 28 어화등등 이야기 국악 | 병술년에는 악화(樂化)로 부터 · 강성일
- 30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시간은 안개숲의 흰 여우처럼 · 김형술
- 32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세상의 균형 속에 있는 영화 · 김희진
- 34 연극속으로 | 미래의 기억- 〈신의 아그네스〉 · 변미선
- 36 그곳에 가면 | 부산여자대학 어린이 도서관 매직 라이브러리
- 38 우리는 문화 가족 | 색소폰 동호회 부산색소폰필하모니
- 40 공연 화제 |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 41 이 사람 | 봉생문화상 수상한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
- 42 캠페인 | 1인 1기(器)를 배웁시다 · 채수만
- 44 부산시립예술단 1월 공연관람 가이드
- 48 1월 프로그램 가이드
- 62 쉽게 듣는 클래식 | 카스트라토(Castrato) · 곽근수
- 63 새로 나온 책
- 64 객석에서 | 부산시립합창단 2005년 송년 대시민합창을 마치고 · 한재희
- 65 부산문화회관 소식
- 66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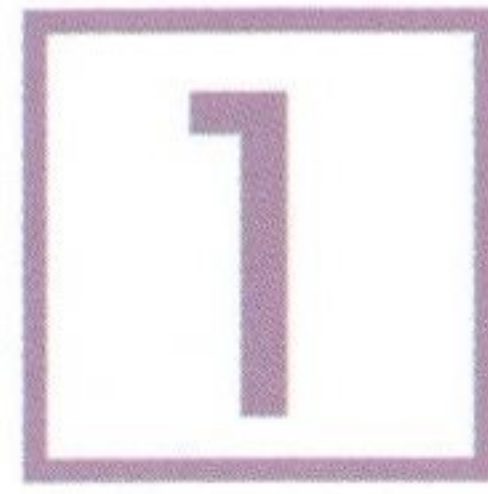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5년 12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1월 공연일정

전시실

부산광역시 불우이웃돕기 자선미술전-대전시실

1월 16일(월)~1월 21일(토)

문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888-2904)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7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 | | |
|----|-----|---|
| 1 | sun | 무대정비기간(1.1~1.9) |
| 2 | mon | |
| 3 | tue | |
| 4 | wed | |
| 5 | thu | |
| 6 | fri | |
| 7 | sat | |
| 8 | sun | |
| 9 | mon | |
| 10 | tue | 2006 신년음악회 '첼로의 거장 조영창, 김규식 듀오콘서트'
19:30 균일 1만원/(사)부산문화(635-9081) |
| 11 | wed |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콘서트-그 화려한 시작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 12 | thu | 제 1057회 MBC 목요일음악회 '을숙도교향악단 초청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761-0255) |
| 13 | fri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함께 하는 2006 신년
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
| 14 | sat |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가족음악회-온 가족이 함께하는 슈베르트의
'송어'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 15 | sun | 부산신항 개장 성공기원 신년음악회 17:00
1만 5천원 · 1만원/공연기획 예성(248-2011) |
| 16 | mon |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오늘의 부산실내악- 뮤즈트리오&과르벳
뮤즈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 17 | tue |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축제음악회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 18 | wed |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떠오르는 별 시리즈-김다솔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 19 | thu | |
| 20 | fri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28회 정기연주회 '2006 신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 21 | sat | 부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남화성(743-5436, 017-557-5436) |
| 22 | sun | |
| 23 | mon |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
| 24 | tue |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
| 25 | wed |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
| 26 | thu |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
| 27 | fri | |
| 28 | sat | |
| 29 | sun | |
| 30 | mon | |
| 31 | tue | |

중극장

MEDIUM THEATER

- 1 sun 무대정비기간(1.1~1.10)
- 2 mon
- 3 tue
- 4 wed
- 5 thu
- 6 fri
- 7 sat
- 8 sun
- 9 mon
- 10 tue
- 11 wed
- 12 thu
- 13 fri 어린이뮤지컬 '스폰지밥과 니안다의 모험' 12:00, 14:00, 16:00 1만원·8천원/극단 대추(802-0530, 011-584-6396)
- 14 sat 어린이뮤지컬 '스폰지밥과 니안다의 모험' 12:00, 14:00, 16:00 1만원·8천원/극단 대추(802-0530, 011-584-6396)
- 15 sun 어린이뮤지컬 '스폰지밥과 니안다의 모험' 12:00, 14:00, 16:00 1만원·8천원/극단 대추(802-0530, 011-584-6396)
- 16 mon
- 17 tue
- 18 wed
- 19 thu 가족뮤지컬 '아기 돼지 삼형제' 10:20, 11:40
균일 7천원/꾸러기 교육사(621-2764)
- 20 fri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교수와 학생이 함께 하는 음악회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 21 sat 토요일상설무대 '(사)새울전통타악진흥회 부산지회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2 sun
- 23 mon 이지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017-216-9798)
- 24 tue
- 25 wed
- 26 thu
- 27 fri
- 28 sat
- 29 sun
- 30 mon
- 31 tue

소극장

SMALL THEATER

- 1 sun 무대정비기간(1.1~1.9)
- 2 mon
- 3 tue
- 4 wed
- 5 thu
- 6 fri
- 7 sat
- 8 sun
- 9 mon
- 10 tue
- 11 wed 부산시립무용단 2006 우리 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12 thu 부산시립무용단 2006 우리 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 13 fri 경성대학교 사회교육원 성악클래스 정기연주회 19:00
무료/김정은(010-7136-5573)
- 14 sat
- 15 sun
- 16 mon
- 17 tue 김향임 클래스 연주회 17:00
무료/김향임(625-8659, 019-553-6095)
- 18 wed
- 19 thu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교실 성악발표회 19:00
무료/이봉숙(758-3497, 017-856-7079)
- 20 fri
- 21 sat The Who 직장인밴드 연합공연 18:00
균일 8천원/박일만(011-837-2223)
- 22 sun
- 23 mon
- 24 tue
- 25 wed
- 26 thu 킹스퀸즈 메트로 제 2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이경희(917-5937, 019-510-5937)
- 27 fri
- 28 sat
- 29 sun
- 30 mon
- 31 tue

부산시내 기타공연 ①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 문의 : 시민회관(630-5221~5)

- 1 sun
- 2 mon 월요일 영화 '월레스와 그로밋-거대토끼의 저주' 14:00, 17:00 -대극장 3천원 · 2천원/시민회관(630-5200)
- 3 tue 월요일 영화 '유령신부' 14:00, 17:00 -대극장 3천원 · 2천원/시민회관(630-5200)
- 4 wed 월요일 영화 '월레스와 그로밋-거대토끼의 저주' 14:00, 17:00 -대극장 3천원 · 2천원/시민회관(630-5200)
- 5 thu 월요일 영화 '유령신부' 14:00, 17:00 -대극장 3천원 · 2천원/시민회관(630-5200)
- 6 fri 월요일 영화 '월레스와 그로밋-거대토끼의 저주' 14:00, 17:00 -대극장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3:00, 15:00 -소극장
- 7 sat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3:00, 15:00 -소극장
균일 1만 2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8 sun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17:00 -대극장 올리브엔터테인먼트(1588-4430)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3:00, 15:00 -소극장
- 9 mon 월요일 영화 '오로라 공주'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시민회관(630-5200)
- 10 tue
- 11 wed
- 12 thu
- 13 fri 뮤지컬 '캣츠 포에버' 16:00, 19:30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주)예술기획 성우(053-626-1980)
- 14 sat 뮤지컬 '캣츠 포에버' 16:00, 19:30 -대극장
뮤지컬 '놀부전' 12:00, 14:00, 16:00 -소극장 동행기획(010-3444-0251)
- 15 sun 뮤지컬 '캣츠 포에버' 15:00, 19:00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주)예술기획 성우(053-626-1980)
- 16 mon 월요일 영화 '무영검'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시민회관(630-5200)
- 17 tue
- 18 wed 비엔나 챔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신년음악회' 20:00 -대극장 15만원 · 12만원 · 9만원 · 7만원 · 5만원/(주)인터스테이지(627-6161)
- 19 thu
- 20 fri
- 21 sat 미술사 정성모의 '마법의 성' 15:00 -대극장 (주)조이씨앤씨(02-555-5157)
1st 뮤지컬 합창단 발표회 19:00 -소극장 이상훈(010-3135-0423)
- 22 sun 2006 이미지 '母情 사랑하나' 콘서트 15:00, 18:00 -대극장 5만 5천원 · 4만 5천원/원스테이지(1588-0881)
- 23 mon 월요일 영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시민회관(630-5200)
- 24 tue
- 25 wed
- 26 thu
- 27 fri
- 28 sat
- 29 sun
- 30 mon 월요일 영화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시민회관(630-5200)
- 31 tue

금정문화회관 |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4081)

- 1 sun
- 2 mon
- 3 tue 뮤지컬 'FOR(~위해)' 19:00 -소공연장 무료/고유진(010-4565-3881)
- 4 wed 젊은이의 음악제 19:30 -대공연장 무료/음악춘추(582-9143)
금정수요음악회 '테너 장원상 독창회' 19:30 -소공연장
- 5 thu 젊은이의 음악제 19:30 -대공연장 무료/음악춘추(582-9143)
- 6 fri 젊은이의 음악제 19:30 -대공연장 무료/음악춘추(582-9143)
박진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 7 sat 고려대학교 윈드앙상블 부산연주회 17:00 -대공연장 고려대 교우회(556-1905)
Dream Forever 17:00 -소공연장 초대/장미란(019-525-3988)
- 8 sun 향상음악회 18:00 -소공연장 무료/정기정(010-7598-5645)
- 9 mon 해피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신년축복음악회'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이홍길(011-839-1084)
- 10 tue 객소정 피아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초대/객소정(016-541-7034)
- 11 wed 금정수요음악회 '소프라노 이솔미, 바리톤 안영중 듀오콘서트'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4081)
- 12 thu 부산가톨릭대 음악교육원 제 15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무료/부산가톨릭대 음악교육원(517-8241)
- 13 fri 부산주니어클라리넷앙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19:00 -대공연장 무료/김태훈(017-543-0883)
- 14 sat 어린이마당극 '흥부와 놀부' 14:00, 16: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플러스기획(080-271-1212)
- 15 sun 어린이마당극 '흥부와 놀부' 13:00, 15:00 -대공연장 균일 1만원/플러스기획(080-271-1212)
- 16 mon
- 17 tue 베이스 김태형 독창회 19:30 -대공연장 초대/김태형(010-2339-1973)
- 18 wed 금정수요음악회 '크로스오버&뮤지컬 콘서트'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4081)
- 19 thu
- 20 fri 세계명작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0:20, 11:40 -대공연장 균일 7천원/꾸러기교육사(621-2764)
- 21 sat 클래식기타 콘서트-3인 3색 19:30 -소공연장 균일 5천원/김윤중(010-9492-4180)
- 22 sun
- 23 mon
- 24 tue
- 25 wed 금정수요음악회 '베이스 문동환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4081)
- 26 thu 제 5주기 故 이수현 추모음악회 19:30 -대공연장 무료/나눔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582-3297)
- 27 fri
- 28 sat
- 29 sun
- 30 mon
- 31 tue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4(토)-2/5(일) 15:00, 19:00	뮤지컬 '비밀의 정원'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10%	인터스태이지 (627-6161)
시민회관 대극장	1/13(금)-1/14(토) 16:00, 19:30 1/15(일) 15:00, 19:00	뮤지컬 '캣츠 포에버'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10%(1/6일까지 예매시)	예술기획 성우 (053-626-1980)
	1/18(수) 20:00	비엔나 챔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신년음악회'	R석 150,000원 · S석 120,000원 A석 90,000원 · B석 70,000원 C석 50,000원	10%	인터스태이지 (627-6161)
	1/22(일) 15:00, 18:00	2006 이미자 '母情 사랑하나' 콘서트	S석 55,000원 · A석 45,000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	원스태이지 (1588-0881)
	2/4(토) 16:00, 19:00 2/5(일) 15:00, 18:00	뮤지컬 록기호려쇼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10%	아마데우스 (1588-9088)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월) 19:30	해피양상블 제3회 정기 연주회 신년축복음악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20%	이홍길 (517-6091)
KBS 부산홀	1/31(화) 15:00, 18:30	이은결 in Dream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10%	아마데우스 (1588-9088)
경성대학교 소극장	1/14(토) 18:00 1/15(일) 15:00, 18:00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균일 2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1/31(화)-2/26(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요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2006 코믹극 뉴 보잉보일	일반 30,000원 대학생 25,000원 청소년 20,000원	10% (평일 공연 20% 추가할인)	가람앤지 (1544-2141)
가마골소극장	1/13(수)-1/31(토)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 · 공휴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뮤지컬 '천국과 지옥'	균일 20,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액터스소극장	1/10(화)-1/15(일) 평일 19:30, 주말 17:00	생사계	일반 15,000원 학생 10,000원	30%	액터스소극장 (611-6616)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 남포동/문우당서점(버스정류소 앞 245-3843)
- 광복동/국도레코드(로얄호텔 옆 247-4240)
- 서면/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금정/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대연동/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감동을 · 함께 · 만드는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야마하 공식 A/S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문화 예술의 장을 기대하며



희망찬 2006년 병술년(丙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건승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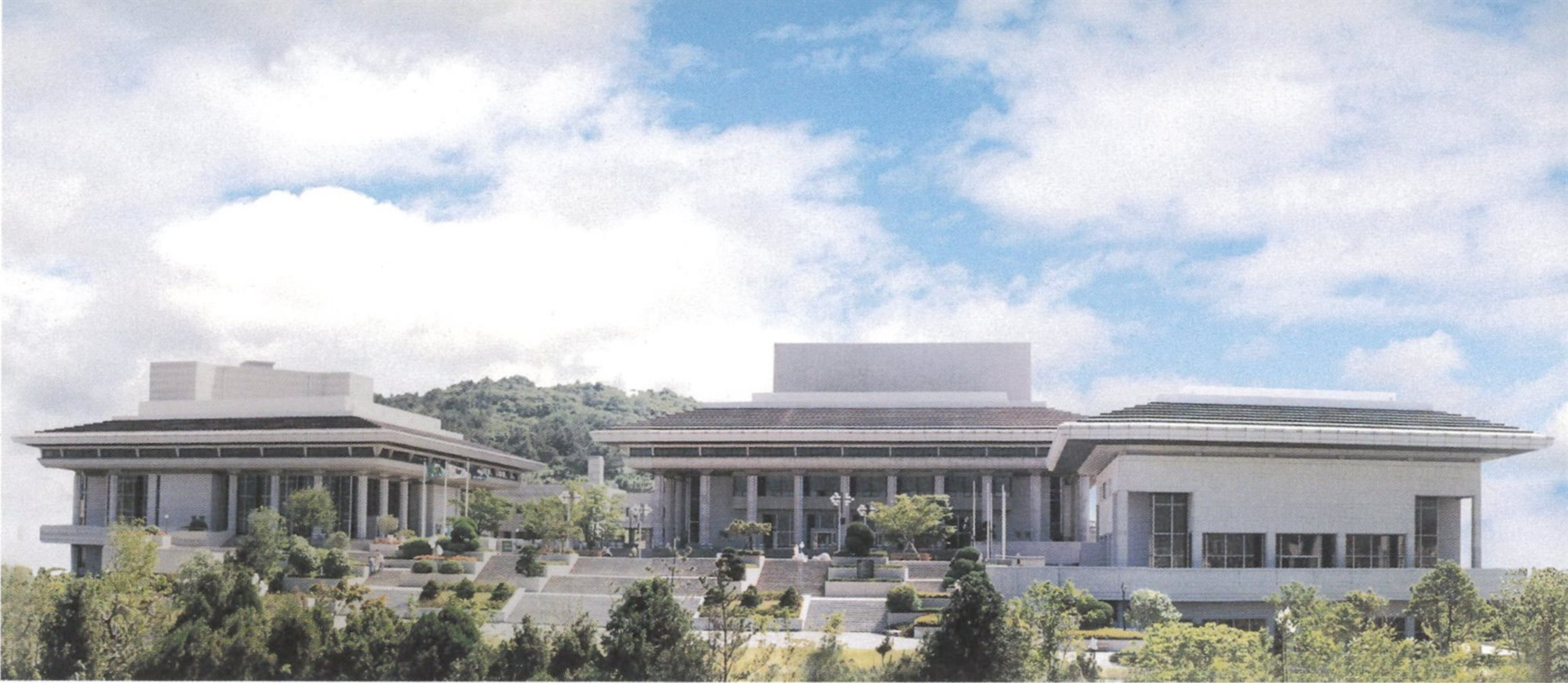
2005년 우리 부산은 개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인 세계 21개국 정상이 참가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우리도시 부산의 발전 가능성을 세계 각국에 알린 한 해였습니다. 광안대교를 환하게 밝힌 아름다운 불꽃놀이와 동백섬 누리마루, 우리의 두루마기를 입은 세계 정상들의 모습을 보고 흥분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은 물론 1년 내내 부산전역에서 펼쳐진 크고 작은 행사에서 시민 여러분 모두가 부산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지켜보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환호한 그날의 열기, 열정이 부산 각계각층에서 계속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해 부산시립예술단은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우리 부산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시립예술단원 260여명이 함께 한 창작가무악극 '즐거워라 무릉도원'은 춤과 노래와 극이 있는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상회의 만찬 문화공연은 세계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시립예술단의 역량만으로 치러내 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립무용단은 북춤과 추석명절 민속인 가배놀이를 통해 APEC 회원국의 어울림을 형상화하며 '한국의 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평소 부산시립예술단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과 수준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6년은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여가 활용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부산문화회관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세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수준을 내실화시켜 나가기 위해 국내외 저명 지휘자, 협연자 공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복지시설, 각급 학교, 교도소 등에서 공연을 펼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과 토요일상설무대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부산시민들과 부산시립예술단이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중인 조명, 음향 등의 무대 설비와 객석의자 교체 등 공연기반 시설의 리모델링은 2006년에도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중극장의 객석 의자와 중, 소극장 무대 조명 설비를 교체해 부산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는 최상의 공연시설로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관람객들에게는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향수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술년(丙戌年) 한 해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6 새해 아침에
부산문화회관장 **조 병 규**

내 나무는 날개를 꺼내어

강영환 · 시인,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

나이테 하나가 여물고 지나 간 뒤
뿌리는 성장점을 한 계단 올랐다
더 깊은 흙속으로
가지는 실부리 하나를 새끼 쳤다

하늘과 땅 사이 격랑을 넘어
쓰러지지 않는 미소를 위해
오늘은 아침을 달린다 그리고
내일은 깊은 산을 오른다

투명하게 반짝이는 살갱이여
불꽃처럼 빛나는 눈동자여
바위라도 깨뜨릴 근육이여
얼음을 녹이는 뜨거운 가슴이여

태극에 부는 바람 속으로
햇살은 깃발을 날린다
길은 끝나지 않았으므로
눈부신 그대 손을 잡는다

아침이 오는 바다 앞에서 내 나무는
숨겨 두었던 날개를 꺼낸다
날아야 할 때가 되었나보다
눈부신 하늘이 가지 끝에 열린다



부산을 알아야 세계를 안다

원로소설가 최해군



부산문화계를 대표하는 원로 최해군 선생(79). 선생을 떠올릴 때면 으레 소설가, 교육자, 향토사학자, 시민운동가 등 많은 수식어가 뒤따른다.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하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선생은 아직 '현역'을 고집하며 창작 열정을 보이고 있다.

1926년 동래군 정관면에서 태어난 최해군 선생은 1962년 부산일보에 장편 '사랑의 폐허에서'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종막'이 당선된 후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최해군 선생은 그동안 '부산포(전 3권)'를 비롯 '기다리는 사람들' '한마당 사람들' '얼룩진 매듭을 풀면서' 향토역사서 '부산의 맥' '부산향' 등을 발표했다. 1982년 2월 부산소설가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그는 향토사에도 관심을 가져 부산을 가꾸는 모임, 부산향 사랑운동 시

민모임, 부산경제 살리기 시민연대 등에서 사회, 시민단체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왔다.

“일부러 다 하려고 욕심을 낸 것은 아니었지. 국어 교사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치기 위해 소설 창작과 시 창작 이론에 몰두 하다 자연스럽게 소설가가 되었지요.”

향토사학자가 된 것도 색다른 경험에서 출발한다. 여름방학 학교에서 일직을 서던 중 학생이 과정천에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과정천을 찾아갔던 일, 뒤늦게 그곳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던 정과정곡의 무대였다는 것을 알고는 선생 스스로 알지 못하고 가르쳐온 것을 반성하며 부산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다. 부산 향토사 연구를 시작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산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1990년, 91년에는 부산지역 역사 탐방 프로그램 '부산의 뿌리를 찾아

서'를 13회 운영하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던 탓에 시민의 호응이 대단했다.

“사람들은 에베르스트 산 높이는 알아도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높이는 모릅니다. 지역 탐방을 진행하면서 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들의 희열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좋았지요. 향토애가 없다면 국가관도, 인류애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최해군 선생은 지역 탐방을 진행하며 잘못된 부산의 지명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승학산과 이웃한 엄광산은 한때 고원견산(高遠見山)으로 불리었다. ‘산이 높아 일본을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일제시대부터 불리워진 이름이다. 최해군 선생이 ‘부산을 가꾸는 모임’과 1995년 4월에 엄광산(嚴光山)이라는 이름을 찾아주고 정상표지석을 세웠다. 고갈산에도 봉래산이라는 정상 표지석을 세웠다. 일부 문헌에는 봉래산 꼭대기 모양이 마치 꼬깔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갈산이라고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한·일합방 이후 ‘초목이 마르고 목이 말라하는 산’이라는 고갈산(枯渴山)이라는 지명이 생겼던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봉래산에 표지석을 세웠던 것이다.

지난해 10월 최해군 선생은 팔순을 기념하는 소설 선집 ‘그날, 그 사람들’ ‘작가 최해군의 문단이야기’ 두 권의 책을 부산문단에 선보였다. 솔피 최해군 선생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고 반세기에 걸친 부산문단의 야사를 담은 이 책들은 동료작가, 문학평론가들이 최해군 팔순기념소설 선집간행위원회를 구성해 빛을 보게 되었다. 두 권의 책은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로 꼽히고 있다.

2006년 신년을 맞아 선생은 요즘 많은 생각을 한다.

“이제 광복 60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계는 문화의 경쟁시대에서 나아가 문화의 전쟁시대라고도 합니다. 물질만이 윤택해지는 사회는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정신문화도 함께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정신문화를 이끄는 것이 바로 문화 예술입니다.”

정신문화가 물질과 병행하여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는 최해군 선생. 팔순에도 현역을 고집하는 그는 그의 호 솔피처럼 늘 푸른 소나무로 변함없이 부산 문단을 지키고 있다.



팔순을 기념하여 소설 선집 ‘그날, 그 사람들’ ‘작가 최해군의 문단이야기’ 두 권의 책을 출간한 최해군 선생.(사진은 최해군 선생의 팔순 기념 및 출판한마당.)



丙戌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2005년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수준높은 창작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연주자들과의 만남 기대

2005년 러시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를 신임 수석지휘자로 영입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월 13일 부산국제음악제 초청 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신년음악회에서는 전 수석지휘자 광승의 지휘로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루시 스톨츠만, 첼리스트 로렌스 레쎈, 20세에 파가니니 국제콩쿠르 사상 최연소의 나이로 1위 입상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 및 일본 교토 Franco-Japanese Academy 교수 피아니스트 올리비에 가르동, 소프라노 박미혜, 테너 김남두가 신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수석지휘자 아니시모프는 3월 17일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마르카로프를 협연자로 초청하는 특별연주회로 2006년 첫무대를 갖는다.

어느해보다 협연자 선정에 고심한 아니시모프는 2006년 한해동안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을 협연자로 초청,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스타인웨이 국제콩쿠르 1등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사샤 아니시모프(3월 31일), 로스토프 온돈 국립극장 프리마돈나 이니라 크리쿠노바(4월 28일, 5월 4일, 5월 11일), 러시아음악콩쿠르 1등상 수상자 티그란 마르티로시안(4월 28일, 5월 4일), 서울시교향악단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데니스 김(9월 14일) 등이 협연자로 부산 무대를 찾는다.

또 2006년 부산연주인시리즈 협연자로 테너 전병호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선정되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전병호는 부드럽고 안정감 넘치는 소리로 유럽 음악의 중심지 독일에서 활동하다 귀국, 2005년 귀국 독창회를 가져 호평받았다.

8월 18일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협연자로 무대에 오르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은 2003년 줄리어드 입학 첫해에 줄리어드 콩쿠르에 우승한 차세대 유망주이다.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다양한 기획 무대 선사

수석지휘자 박호성과 함께 우리 음악의 전승, 현대화 작업을 꾸준히 펼쳐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06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다양한 기획 무대를 들려줄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06년 한 해 동안 보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무대를 기획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잠재된 관객을 창출해낸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06년 첫 무대로 1월 20일 평소 자주 들을 수 없는 전통음악을 선곡, 2006년 신년음악회 무대를 갖는다. 신년음악회에서는 평범한 무대를 지양하고 영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이향희, 강경아, 박성희, 정선희, 조경자와 함께 부산에서 처음으로 판소리 5바탕 눈대목을 들려준다. 3월 30일 봄을 여는 신춘 무대에서는 국악창작곡들 중 봄과 희망을 상징하는 관현악곡을 선곡, 봄의 화사함을 무대에서 재현한다.

2006년 5월 19일에는 국립국악원 연주를 계획하고 있다. 200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이후 처음으로 국립국악원무대에 연주,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국악관현악단은 2006년 무대에서 새롭게 위촉한 창작곡들로 국악애호가들에게 부산의 창작음악을 들려 줄 예정이다. 박호성 지휘자는 서울 공연 타이틀을 'Hi 서울, Dynamic 부산' 으로 정하고 창작음악의 선두 부산의 역동적인 음악을 들려준다는 각오다.

또 6월에는 환경, 생태에 맞는 곡을 선정, 인간과 상생하는 자연의 중요성을 음악으로 담아내는 '환경음악회' 를 계획하고 있다. 8월에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음악의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를 부활, 미래 우리 음악애호가를 키우기 위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국악이야기를 들려 줄 예정이다.



2003년 지역 특성을 가진 전국의 국악관현악단이 한자리에서 연주하는 '부산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6' 은 9월 26일부터 4일간 화려하게 펼쳐진다. 그동안 전국 주요 공연 단체들이 연주를 가진만큼 4회를 맞는 올해는 실력있는 지역 군소 악단에게도 문을 활짝 열고, 전국 최고의 창작관현악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나누는 노래하는 즐거움

“2005년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느 때 보다 분주한 한해 였습니다. 대외적으로 큰 공연이 많았지만 소규모 연주회를 꾸준히 가지면서 단원들의 기량 향상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특히 APEC칸타타는 부산을 대표할 부산칸타타로 손색이 없다는 청중들의 반응에 단원들 모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PEC의 머리글자를 Amor(사랑), Pax(평화), Excelsus(고귀함), Concordia(화합)으로 해석한 총 4악장 ‘APEC칸타타’를 발표, 동북아의 중심이며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21세기 새천년의 부산을 표현해 화제를 모았다.

2006년은 전 국립합창단 지휘자 염진섭의 객원지휘로 2월 23일 첫 연주를 시작한다. 2006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1년동안 모차르트의 음악 면면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인 부산시립합창단은 매년 6월 마련하는 호국보훈의 달 무대에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선곡한 것은 물론 특별연주회, 10월 정기연주회에서도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다.

2006년 부산시립합창단이 가장 주목하는 무대는 5월 가정의 달 무대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합창으로 듣는 7080’ 무대를 마련해 많은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합창단은 5월 25일 ‘7080 두 번째 만남’의 무대를 갖는다. 합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합창음악의 묘미를 선사한 7080 콘서트를 통해 합창인구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송년 무대에서는 2005년 10월 APEC정상회의 기간 중 연주한 ‘APEC칸타타’를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 부산시립합창단과 시민들로 구성된 200명의 연합합창단들과 함께 부산의 희망을 노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독일, 대만 등 순회연주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여온 부산시립합창단은 2006년 7월 독일 함부르크 초청연주회를 제의받고 구체적 일정을 협의중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찾아가는 예술단 무대로 시민을 더욱 가깝게 만난다

“매년 추운 해운대 바닷가에서 해맞이 공연으로 바쁘게 신년을 맞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이 1년 동안 작은 무대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며 우리문화를 알리는 문화 사절단으로 어느 해 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지만 그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는 2006년 신년을 맞으며 모든 무대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뛰 어준 단원들이 무엇보다 고맙다. 부산시립무용단은 2005년 2회의 정기공연과 창작가무악극 ‘즐거워라 무 릉도원’을 비롯 여름마당춤관 ‘이쁜이 시집가네’를 통해 부산시민들과 만난 것은 물론 독일, 루마니아, 불가리아, 미국 등 해외 공연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부산의 문화적 역량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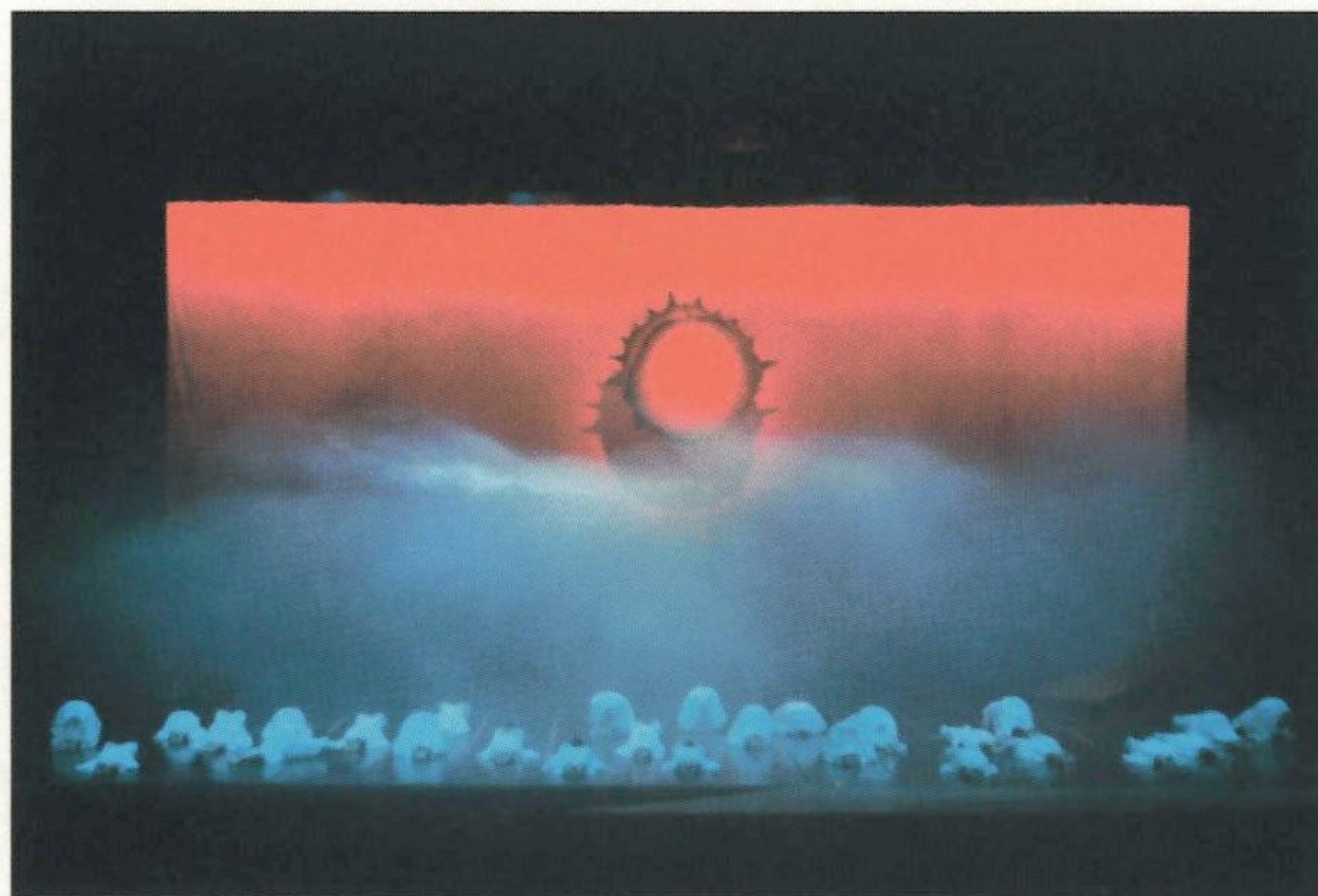
2006년에는 기존 주요 공연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자주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지역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더욱 확대해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 과 춤의 거리를 좁혀 나간다는 생각이다.

특히 올해는 2005년 제 52회 정기공연작품으로 발표한 ‘The War’가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전국 무대에서 부산시립무용단을 알리는 순회공연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그동안 ‘The War’나 ‘흰나비의 꿈’과 같이 시대를 반영한 무용극을 발표한 것과 달리 상반기 정기공연 무대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소재로 한 서정성 높은 작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현재 대본작업이 진행중이다.

또 2006년부터는 그동안 12월 선보여온 하반기 정기공연을 한달 앞당겨 11월에 개최, 연말 분위기에 휩

쓸리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 정기공연 무대에서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북의 대향연’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 고전의 재해석으로 해학과 웃음을 선사하는 ‘여름 마당춤관’은 2004년 ‘흥부놀부’, 2005년 ‘이쁜이 시집가네’에 이어 ‘콩쥐 팥쥐’로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한다.



한·일 합동공연으로 적극적인 문화교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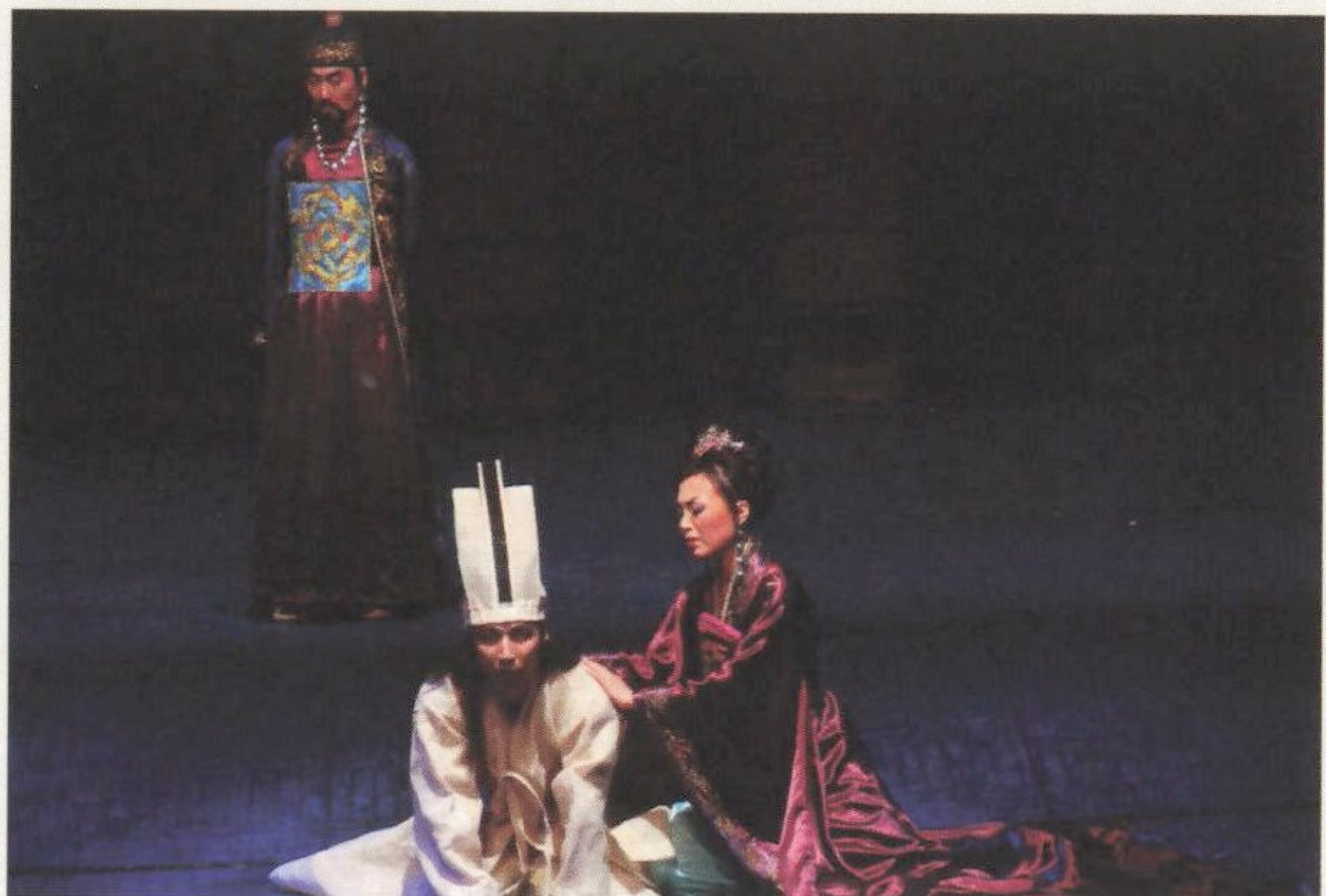
지난해 3월 일본 하키국제예술페스티벌 2005 초청무대로, 창단 이후 처음 해외공연을 가졌던 부산시립극단이 2006년에는 더 나아가 한·일 합동공연을 추진하는 등 시립극단으로서의 위상을 넓혀나간다.

일본 동경의 김가도극단과 함께 무대에 올리는 한·일 합동공연 '역수바다'는 젊은 극작가 홍원기의 창작극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인 바다, 그 바다의 파수꾼이자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는 살아있는 시간의 화석인 고래를 소재로, 환경의 소중함을 그린 창작극이다. 오는 7월 일본 김가도극단 연습실에서 연습을 시작, 8월 부산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총연습을 가진 후 9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 처음 올려지는 이번 작품은 부산을 시작으로, 김해, 울산, 서울 등 국내 순회공연 후 10월에는 동경을 비롯 야마구치현 우베, 시모노세키, 야마구치, 이와쿠니 등 일본 순회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2006년 첫 무대인 제 25회 정기공연(3월 21일~26일)에서는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로, 일란성 쌍둥이의 얽히고 설킨 사랑이야기를 그린 '십이야'를 무대에 올리며, 젊은 작가들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창작작품을 소개해온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은 올해부터 공연기간을 상반기로 옮겨 5월 29일부터 6월 24일까지 펼쳐진다.

지난 2004년부터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거창국제연극제 등 국내 유수의 연극축제에 참가, 연극애호가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한 부산시립극단은 앞으로는 영국의 에딘버러축제나 프랑스의 아비뇽축제 등 세계적인 연극축제에도 참가, 다양한 문화체험과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연극 공연'을 통해 공연장을 자주 찾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무대를 선사했던 부산시립극단은 올해도 문화 소외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래야류' 중 한 과장을 각색, 작품화하는 등 별다른 무대장치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찾아가 관객과 만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 개최

매년 한층 더 성숙된 기량 향상으로 청소년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오는 1월 23일부터 펼쳐지는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로 2006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한자리에서 만나 음악적 교류를 가지며 교향악 발전의 밑거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는 올해 부산을 시작으로 매년 장소를 바꿔 열릴 예정이다. 오는 1월 26일까지 나흘간 펼쳐질 이번 행사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비롯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서울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 4개 지역 시립청소년교향악이 참가, 교향악의 향연을 펼친다.

그동안 거장 음악가들의 교향곡을 비롯 아카데미한 레퍼토리로 청소년교향악단의 음악적 역량을 확인받았던 정기연주회에서는 올해 탄생 250주년과 100주년을 맞는 모차르트와 쇼스타코비치의 연주곡을 들려준다. 더불어 특별연주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선곡, 청소년들이 클래식음악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편안한 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평소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었던 지역민에게도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기 위해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악선물을 선사할 계획이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해 USC음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피터 마쉬, 웨퍼드음대 교수인 첼리스트 전준승 등 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 협연자들이 단원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를 열어 공부와 음악활동을 병행하는 단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올해도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르에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을 초청, 좋은 연주와 더불어 단원들에게 실력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오는 1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주에서 음악캠프를 가진다.

다양한 교류무대로 기량 향상에 주력

지난 한 해 전국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다양한 교류무대를 통해 대외적으로 음악적 위상을 높여나갔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6년에도 다양한 무대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오는 3월 25일 열리는 2006년 첫 무대 '프렌들리 콘서트(Friendly Concert)'에서는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월드비전선명회어린이합창단(구 선명회어린이합창단),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4번째로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우정의 무대를 갖는다. 또한 지난해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이어 올해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무대를 갖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6월 13일에는 군포에서, 9월 30일에는 부산에서 공연을 펼친다.

7월에는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들의 최대 음악축제인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지난 1994년에 이어 오랜만에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라 그 어느때보다 행사준비로 분주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여름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를 위해 시원한 광안리해수욕장 야외무대에서 행사를 갖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작곡가들과 함께하는 우리성가, 우리민요로 마련되는 특별연주회(4월 27일)와 일본 후쿠오카교육대학교 교수인 합창전문지휘자 이와자키 요이치가 객원지휘하는 제 117회 정기연주회(6월 2일), 부산지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제 22회 부산청소년합창제(11월 3일), 뮤지컬을 통해 단원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무대 송년음악회(12월 29일~30일)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개최기간동안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 12월에도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순회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본격적인 연주일정에 앞서 1월에는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음악캠프가 부곡에서 열린다.



2006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계획

단체명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교향악단		▶13(금)대 제417회 정기 및 신년음악회	▶24(금)대 신춘음악회	▶17(금)대 특별 ▶24(금)대 특별 ▶31(금)대 제418회 정기	▶20(목)대 제60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28(금)대 제419회 정기 ※서울연주	▶4(목)대 특별 ▶11(목)대 제420회 정기 ▶26(금)대 특별
국악관현악단		▶20(금)대 제128회 정기 및 신년음악회		▶30(목)대 제129회 정기 및 신춘음악회	▶27(목)중 제130회 정기	▶19(금)국립국악원 예약당 순회연주
합창단			▶23(목)중 신년특별연주회	▶23(목)대 제118회 정기	▶21(금)중 특별	▶25(목)대 특별 '7080 두번째 만남-어릴때 들던 라디오 소리'
무용단		▶11(수)~12(목) 2006 우리춤 산책				▶23(화)~24(목) 제54회 정기
극단				▶21(화)~26(일)중 제25회 정기 '십이야'		▶5/29(월)~6/2(토)소 제26회 정기 및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젊은 연출가'
청소년교향악단		▶23(월)~26(목) 전국청소년교향악축제		▶28(화)대 특별		▶18(목)대 제23회 정기
소년소녀합창단				▶25(토)대 제116회 정기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 '프렌들리 콘서트'	▶28(금)중 특별	

※이 공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목)대 제421회 정기	▶14(금)대 부산음악콩쿠르 ▶26(수)~28(금)대 썸머페스티벌	▶18(금)대 특별기획	▶14(목)대 제422회 정기 ※일본순회	▶13(금)대 제423회 정기 ▶20(금)대 특별	▶17(금)대 제424회 정기 ▶30(목)대 제425회 정기	▶7(목)대 제61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28(목)대 제426회 정기 및 송년음악회
▶22(목)대 제131회 정기 '환경음악회'	※ 시민국악교실 (7월 말)	▶22(화)~23(수)대 특별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재미있는 국악이야기'	▶26(화)~29(금)대 특별 '제4회 부산창작국악관현악 축제 2006'	▶20(금)중 특별 제31회 청소년 협연의 밤	▶16(목)중 제132회 정기	▶15(금)대 제133회 정기
▶23(금)대 제119회 정기 모차르트 '레퀴엠'	▶20(목)대 특별	▶24(목)~26(토)대 3개시도 합동 연주	▶26(화)중 특별 '모차르트의 가곡과 아리아의 밤'	▶17(화)대 제120회 정기 ▶24(화)~28(토)대 부산합창제	▶14(화)중 특별 '창작음악의 밤'	▶20(수)~21(목)대 APEC성공개회 1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APEC 칸타타'
	▶11(화)~12(수)중 청소년을 위한 여름무용축제 ▶20(목)중 여름 마당춤판	▶24(목)중 한여름밤의 춤 작품전		▶19(목)대 3개시도 춤 교류전	▶8(수)~9(목)대 제55회 정기	▶12(화)대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3(수)대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연
▶5/29(월)~6/24(토)소 제26회 정기 및 소극장 연극페스티벌 '젊은 연출가전'			▶22(금)~24(일)중 제27회 정기 26(화) 김해 28(목) 울산 30(토)~10/4(목) 서울 '역수바다' 순회공연	▶19(목)~26(목) 동경, 29(일) 우베, 30(월) 시모노세키, 31(화) 야마구치 '역수바다' 순회공연	▶2(목) 이와구니 '역수바다' 순회공연	
	▶6(목)중 협주곡의 밤		▶21(목)대 제24회 정기	▶26(목)중 실내악의 밤		▶19(화)대 특별
▶2(금)대 제 117회 정기 ▶13(화)군포시 순회연주	▶26(수)~29(토)제14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30(토)대 제118회 정기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초청 연주회'		▶3(금)대 제25회 청소년합창제	▶29(금)~30(토)대 제119회 정기 '송년음악회'

〈大-대극장, 中-중극장, 小-소극장〉

천정없는 화실 금정산

김봉진 · 서양화가



나는 8·15 광복 후 일찍이 미술가로서 입신 출세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라온 서울이다. 하지만 당시의 서울은 혼란했다. 미군정하의 서울에는 애국지사들이 두갈래로 갈라져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 나는 박성규 화백의 도움으로 많은 미술인과 문인들을 알게되는 행운이 있었다. 그러나 힘들게 입학했던 미술대학은 ‘국대안 반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휴교하는 날이 많았으니 긴 하루 하루가 지겨웠다. 그리하여 나는 고민끝에 낙향을 결심했다.

이 때 “부산은 바다가 있는 좋은 곳이다. 우리 화단에는 현재까지 해양화가가 없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바다의 화가로 대성하여 다시 만나자!”라고 내 눈물을 닦아 주면서 격려해 주던 화우들이 있었다. 푸른 날개를 접을 낙향이지만 나에게는 해양화가가 되겠다는 의욕은 살아있었다.

부산에는 바다를 그릴 수 있는 소재가 많았다. 자갈치시장, 영도조선소, 태종대, 민락동, 동백섬, 구덕포, 공수마을, 동해안의 거북바위와 죽성이 있는 바다는 모두가 절경이다. 나는 바다를 즐겨 그렸다.

대형 태풍이 휘몰아치던 날, 나는 화구통을 매고 남부민동의 방파제로 나갔다. 집채보다 큰 파도가 방파제를 삼키고 남향에 정박한 배들의 밧줄이 끊어지면서 곤두박질치는 무서운 바다를 보았다. 이 공포감은 꿈속에서도 잊혀지질 않고 계속되었다. 이 때부터 나는 바다를 보면 불길한 공포심이 움틀거렸으니 발길을 산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금정산과 친숙해지고 이 산을 사랑하게 되었다.

산! 산은 말이 없다. 산은 춘하추동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꽃이 피고 꽃이 진다. 나무는 자라 숲을 이루고 그곳에 다람쥐가 놀고 토끼가 굴을 판다. 나뭇가지에는 산새들이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기른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금정산을 사랑하게 되었다.

특히 청룡동에서 하마로 오르며 조망하는 금정산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편안하게 그어진 그 능선 위에 이곳은 쉽터라고 짐을 짊어온 바위는 화폭에 강약을 잡아준다. 조용한 노을을 배경으로 먹물을 혼합하여 뿌린 듯 우아한 보라색으로 물들여지는 금정의 산



김봉진 선생은 편안한 마음을 갖게하는 금정산 하마마을과 상마마을을 즐겨찾는다. 작품은 하마마을의 초가(금정산).

● 작품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최근 작품 중 가장 아끼는 금정산 작품.

색은 내 가슴의 숨을 멈추게 한다.

내가 외국여행에서 그린 산은 거의가 실패작이다. 인공조림으로 가꾸어진 일본의 산, 웅장하게 우뚝 솟아오른 죽순같은 중국의 산, 중량감있는 백설을 덮고 있는 신비로운 큰 산들을 그린 작품은 나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평소 보아오던 그 정다운 금정산의 평화로운 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내가 평소 애정을 가지고 편안하게 대하던 그 모습이 아니기에 경이(驚異)로운 마음에서 오는 긴장감에서 비롯된 것일까?

사람을 대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까이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와같이 산을 그려도 부담없이 그리고 싶은 산이 있다. 이러한 풍경이 금정산 아래자락에 자리한 청룡동 용성리의 자연부락이고 초가가 있던 하마마을과 상마마을이라고 하겠다.

나는 이 지역을 '천정없는 화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나는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화구박스를 매고 나의 넓은 뒤뜰을 산책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렇게 가벼운 기분으로 손쉽게 그린 4호 크기의 소품이 쌓이게 되었다.

일찍이 공자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조용하며, 어진 사람은 수(壽)하다"라고 했다. 나는 산이 좋아 산을 그리지만 아직도 산의 참모습을 제대로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바다를 그렸을 때,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파도는 움직이는 산맥'이라고 느꼈을 때가 있는데, 요즘 산을 그리면서 겨우 산의 해부학적 골격은 조금 파악했지만 그 근육과 그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속 깊은 곳에 감추져 있는 산의 마음을 아직도 읽을 수가 없으니 그냥 산을 대할 때마다 겸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개숙여 절을 하고 화필을 드는 일은 잊지 않으려고 한다.

사슴처럼 살아온 부산화단의 어른

원로화가 김봉진



팔순을 앞두고도 틈틈이 금정산을 오르며 금정산의 서정을 화폭에 담고 있는 원로화가 김봉진 선생(79)은 평생을 교육자로 올곧게 살아온 부산화단의 어른이다.

1954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김봉진 선생은 그동안 많은 작품을 발표해왔다. 특히 그는 1955년 민백향, 차주환과 함께 군록회를 창립했다. 전후 황량한 시기에 ‘사슴처럼 착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평화롭게 살자’는 의미로 단체이름을 군록(群鹿)으로 정하고 회원들과 군록의 정신을

살리며 부산화단을 지켜왔다. 군록회는 2005년 50주년을 맞아 부산시 초대전으로 ‘군록미술 50년 전’을 가졌다. 작품 도록을 제작하면서 선생은 부산개항과 군록회 창립까지 부산미술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다.

요즘 선생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한달에 두 번 일요화가회와 함께 떠나는 스케치여행이다. 1992년부터 일요화가회를 지도해온 김봉진 선생은 한번도 거르지 않고 회원들과 사생을 하고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

“일요화가회 회원들은 평생의 꿈을 버리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파 한주를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그들의 열정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김봉진 선생의 지도로 일요화가회는 그동안 전국일요화가회 스케치대회 대상, 여수바다그리기 사생대회 본상, 부산비엔날레 사생대회 대상 등 많은 결실을 맺었다. 2005년 6월, 일요화가회에서 선생의 팔순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통해 평소 선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알리기도 했다.

언제나 1등을 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60여년 화업을 이어온 김봉진 선생. 그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을 배운다.

병술년에는 악화(樂化)로 부터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불교의 한 경전인 금강경(金剛經)은 32장으로 되었는데 3장에서 6장까지 읽다보면 사람은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 등이 있고, 또한 신상(身相)과 법상(法相)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생각하니 아상은 나를 집착하는 것이요, 인상은 인간이 최고라고 다른 사물을 소홀히 하는 것이요, 중생상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물질과의 번뇌요, 수자상은 어떤 문제나 하고자 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려고 하는 극한 상이요, 신상은 사람의 내심보다 외모만을 꾸미는 것이요, 법상은 설법 즉 말로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相)에 대해서는 논어(論語)에도 나오는데, 그 예가 자한장(子罕章)의 무의(毋意)·무필(毋必)·무고(毋固)·무아(毋我) 등을 말한다. 무의란 나의 사사로운 뜻을 없애는 것이요, 무필은 필히 하겠다고 장담하며 내세우는 것을 없애는 것이요, 무고란 나의 고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요, 무아는 나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니, 금강경의 6상과 논어의 4상은 그 둘이 일맥상통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을 없애기 위하여 음악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이를 위하여 동양의 악경(樂經)이라 일컬어지는 악기(樂記) 중 악화(樂化)편을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악기는 중국의 음악사상을 논한 글인데 우리의 전통음악사상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책으로 유교의 13경 중 예기(禮記)에 실려 있고, 그 내용은 11편으로 되어있다.

악기의 차례는 악의 본령을 설명한 악본(樂本)에서 시작하여 악론(樂論) - 악례(樂禮) - 악시(樂施) - 악언(樂言) - 악상(樂象) - 악정(樂情) - 위문후(魏文侯) - 빈모고(貧牟賈) - 악화(樂化) - 사을(師乙)로 되었는데, 자공(공자의 제자)의 음악선생인 마지막 사을 편을 제외하면 악기는 악화로 끝을 맺고 있다. 즉 악본에서 시작하여 악화로 마치는 것이 악기의 구성인데, 악화 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려있다.

樂也者는 動於內者也오 禮者也는 動於外者也라. 故로 禮主其減하고 禮主其盈하니 禮減而進하야 以進爲文하고 樂盈而反하야 以反爲文이라. 禮減而不進이면 則銷하고 樂盈不反하면 則放이라. 故로 禮有之報而樂有反하니 禮得其報하면 則樂하고 樂得其反하면 則安하나니 禮之報와 樂之反이 其義一也라.

이를 해석하면, 악(樂)이란 내 마음 속을 들어내는 것이요, 예(禮)는 사람의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사람의 행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사양심과 공경심으로 해야 되고, 악은 내 마음 속을 들어내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영만(盈滿: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금강경의 6상이나, 논어에서 말하는 4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해지

니, 예(禮)는 사양심과 공경심으로 나아가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고, 악(樂)은 영만해지기 때문에(영만해 진다는 것은 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아상이나 수자상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 자신을 되돌아 살피고 반성으로 아름다움을 삼아야 한다. 예를 행하는데 사양심과 공경심만 있고 바른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소침(사람의 기력이 상실해지는 것)해지고, 악은 영만해져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방일(제 맘대로 행하는 것)해진다. 그러므로 예는 보답(이쪽에서 예를 행하면 상대방이 예로써 보답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악은 돌이킴이 있어야 하니, 예는 그것(보답)을 얻어서 즐겁고(서로 화답하기 때문이다), 악은 그것(영만함을 반성하는 것)을 터득해서 돌이킬 줄 알아 마음이 편안해지니, 예의 보답(예의 화답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과 악의 반성(영만해지는 것을 돌이켜서 방일함을 줄여나가 즐거움을 얻는 것)은 그 뜻이 하나이다.

예와 악이 이와 같이 어려우나 한번 행하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니 어찌 행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악에서 진퇴 유곡에 빠질 때는 앞뒤가 없다는 상상의 동물인 낭패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예술 그 악(樂)의 자체는 맥이라는 상상의 동물같이 항상 꿈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꿈과 함께 병술년 신년에는 악화를 통하여 하나의 상이라도 조금씩 벗겨보기로 다짐해 본다.

한잔에 茶를 놓고 이 밤이 지나도록
琴과 글을 벗삼으니 이곳이 極樂이요
이 몸이 阿彌陀가 아니겠는가

丙戌年 아침에.....

시간은 안개숲의 흰 여우처럼

- 김춘자 <자라나는 땅>(부분)

김형술 · 시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난 그저 습관적으로 잠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술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 들었을 뿐인데. 어쩐지 시간이라는 놈은 내가 모르는 사이 저 혼자 달려가 나를 낚설고 새로운 곳에 떨어뜨려 놓은 듯하다. 인간이 구획해놓은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는 어쩌면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멈추지 않고 저 혼자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은 명확한 경계를 가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만들어 놓고 늘 새로운 시간을 만나는 것으로 믿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는 하지 말자 올해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걱정하고 새해라는 전혀 새롭지 않은 시간을 맞는다. 그러면서 인간은 비로소 시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잠시 생각하게 되고 어렵풋하게나마 시간의 얼굴과 마주친 듯한 느낌을 갖는다. 하지만 시간은 검은 숲 속의 검은 여우처럼 명민해서 좀처럼 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어, 저기 시간이라는 놈이 있구나' 생각하는 순간, 시간은 어느 새 검은 숲같은 일상 속으로 제 모습을 감추어버린다.

화가 김춘자는 <자라나는 땅>이라는 제목을 가진 많은 그림들을 그렸다. 이 <자라나는 땅>의 연작 속에 생명의 환희와 죽음의 엄숙한 기운이 생성되고 소멸되며 끊임없이 몸을 바꾸는 땅에 대한 사유들이 환상적인 색채와 형상으로 수놓아져 있는데 이 그림 또한 그런 연작들 중의 하나이다. 김춘자의 그림 속에는 거의 대부분 시간이 멈추어져 있거나 흘러 가버린 혹은 흘러오고 있는 시간이 독특하게 뒤섞여 있다. 대단히 비일상적이게 낯선 이 시간들은 어느 혼곤한 저녁의 꿈결인 듯 몽환적인 풍경들이 기묘한 정적을 내포한 채 멈춰서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멈춰 서 있다고 생각하며 그림 가까이로 몸을 굽히는 순간, 그림 속의 풍경들은 제 스스로 정적의 껍질을 벗어내고 치열하게 움직인다. 일상에서 한 번도 마주친 기억이 없을 것같은 꽃들, 줄기도 잎사귀도 없는 꽃들이 문득 나무의 몸피를 뚫고 솟아오르고 새의 눈을 가진 뱀들이 꽃처럼 땅 위에서 피어나며 작지만 큰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하늘을 향해 수직상승 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마치 그 나무들의 그림자처럼 땅 위에 길게 누운 채 제 몸에 또 다른 생명을 키우며 자라는 나무도 있다. 이처럼 전혀 낯선 곳에 자리를 잡은 꽃들과 나비, 뱀, 나무가 뒤엉킨 숲 속의 풍경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뒤엉켜 가로지르며 생명과 생명이 서로 몸을 섞는 곳이다. 움직이는 듯 멈추어 서 있고 환상과 일상이 교묘하게 교차된 이 공간의 색채는 당연하게도 아스라한 안개의 느낌을 머금은 채 청색과 녹색, 분홍과 보라빛으로 감싸여 있는데, 아마도 이런 숲, 이런 정적을 누구나 한 번 쯤은 다녀오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새벽녘의 꿈 속이거나 혹은 한낮의 짧은 백일몽 속에서.

치열한 움직임을 숨긴 이 정적인 공간 한가운데엔 외롭고 천진한 눈빛을 가진, 세상의 모든 네 발 달린 것들의 이름을 다 가져도 좋을만한 짐승 한 마리가 홀연히 서 있다. 이 짐승은 이 숲의 주인인 듯도 하고 잘못 길을 든 낯선 방문객같기도 하며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같기도 하다. 비교적 사실적인 형상을 가진 이 짐승의 존재는 누가 원하기만 한다면 꽃과 뱀, 나비와 달팽이가 뒤섞여 소리없이 움직이는 이 불길한 매혹의 미궁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금방이라도 알려줄 것만 같다. 그리고 이 짐승의 눈빛에는 어떤 지 무중력의 공간 속을 치열하게 부유하는 낯선 생명체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죽음과 소멸에 관한 연민을 숨기고 있



김춘자 작 '자라나는 땅' (162.2×112.1cm 2002)의 부분.

는 듯도 하다. 그렇다면 이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의 형상은 아닐까.

화가 김춘자는 기이한 매혹을 내뿜는 환상적인 세계들을 줄곧 그려왔다. 시선을 빼앗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의 혼종들을 중력을 배제한 공간에 배치하는 독특한 작업을 해왔는데, 가만히 눈여겨 보면 초기의 강렬한 원색의 색채들은 더 깊고 무거운 공간감을 가진 색채들로 바뀌어 가는 변화를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조금씩 움직여 하구에 모래톱을 쌓고 사막에 모래계곡을 만들고 구름을 숲으로 바꾸듯 시간은 또한 화가의 내면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어떤 시간들이 화가의 내면을 침식하여 화가의 영혼 속에 잠재해있던 색채와 형상을 꺼집어 내고 또 숨기며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을 가진 세계를 창조하게 하는 것일까. 또 하나의 숫자가 또 보태어져서 바뀐 이름표를 단 시간을 살게된 새해의 아침, 문득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면 목덜미를 어루만지고 가는 차갑게 날선 바람의 갈피 속에 문득 시간의 그림자가 보이는 듯 하다. 이미 지나쳐 왔으므로 익숙한 어제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어디쯤에서 숨가쁘게 오늘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내일을 연결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시간은 안개 자욱한 숲 속의 흰 여우처럼, 꽃이 만발한 들관의 붉은 당나귀처럼 등 뒤에 서 있거나 사람들 사이를 날렵하게 달려간다. 할 수만 있다면 달려가 시간의 머리 위에 푸른 꽃 한 송이를, 시간의 어깨 위에 금빛 나비 한 마리를 얹어주고 싶다. 너는 어쩌면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너의 손을 잡고 너와 눈을 마주치며 살고 있단다. 농치듯 슬쩍 속삭이며.

1월호부터 김형술 시인의 그림에세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김형술 시인은 시집 '의자와 이야기하는 남자' '의자, 벌레, 달' '나비의 초대' '물고기가 온다' 영화산문집 '영화속의 시'를 출간했습니다. 2006년 김형술 시인과 편안한 그림 산책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균형 속에 있는 영화

김희진 · 영화감독

겨울은 추워야 제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막상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지면 금방 계절을 원수처럼 여기고, 남쪽 지방에 어찌다 눈이 오면 신이 나서 반기는 사람들은 매년 눈 때문에 고생을 하는 윗 지방 사람들의 고충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은 가변적이고 협소하다. 자신이 느끼는 데로만 이해하고 다른 쪽 사정에 대해선 한상 뒷전이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주관이 있고, 본인 감정을 솔직히 드러낸다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이런 생각마저 편을 가르듯 이야기 한다면 또한 편협하진 않은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일을 치르게 될 때 그 결과를 논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요즘은 그 기준이 대개 상업적 결과가 어떠했느냐가 되는 것 같다. 영화의 경우 관객이 얼마나 들고 홍보가 어떠했으며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등이 대개 평가의 기준을 이룬다. 독특한 기준에 특별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호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대개 듣는 순간이 끝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결국 요즘은 모든 게 돈에 집중된다.

11월엔 일곱 해를 맞는 '메이드 인 부산 독립영화제'가 있었다. 한 해 동안 부산에서 만들어진 독립영화들을 모아 상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하는 자리였다. 독립영화는 아주 주관적인 방식으로 개성이 담긴 주제를 나름의 방법으로 만드는 영화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 대중적인 소통이나 상업적인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 대개 초저예산으로 만들어지기에 기술적 완성도나 세련됨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만드는 연령도 젊은층이 많고 결혼을 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에 정말 힘든 것이 독립영화다.

독립영화의 지금껏 이어져 오는 동안 편협한 여러 관점들이 있어왔다. 한 때 상업영화 측에서는 독립영화를 미숙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독립영화를 좌지우지하는 골수 반골 영화로 보기도 했다. 그래서 독립영화를 하고 있는 영화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반응도 있었다. 또 독립영화 쪽에선 상업영화를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예술성이 없고 사회의식이 없는 가벼운 영화로 여기기도 했다. 마치 독립영화만이 순수하고 주체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 속에 독립 영화적 성향을 가진 상업영화인과 상업 영화적 성향을 가진 독립영화인들의 작품을 두고 여러 분란과 논쟁이 있기도 했다.

사실 영화가 가진 가치란 분명하게 규정되어 온 적이 없다. 공공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면서 눈에 띄게 자본주의

적 효용성의 대표 주자로 지목되기도 한다. 역사 속에선 정치의 시녀노릇을 하기도 하고 폭압적 정치에 대항하기도 했다. 추억 속의 명화가 지금 되돌아보면 지극히 일방적인 관점만을 주입시킨 영화가 되기도 한다. 결국 영화란 어떤 유행과 흐름에 의해 그 성격을 가변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같다. 상업영화든 독립영화든 그 가치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작년 한 해의 부산 독립영화를 지켜보면서 다양성의 경험과 세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



오석근 감독이 100% 부산에서 촬영하고 부산 인력이 스텝으로 참여한 영화 <연애>.

를 변화 시켜나가는 역동적인 힘만이 독립영화를 비롯한 모든 영화의 긍정적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오석근 감독이 100% 부산에서 촬영하고 대부분의 스텝에 부산 인력이 참여하고 주연은 아니지만 많은 부산 배우가 출연한 영화 <연애>는 대작 <태풍>과 인기 시리즈 <해리포터와 불의 잔>의 틈 속에서 악전고투하며 공개되었다. 좋은 흥행 성적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극장 수도 처음 예정과는 달리 아주 적었다.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그 배급 계통을 받는 저예산 영화의 비애라고 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투자분이 큰 영화에 대한 본전 찾기식 대량 공개와 적당히 개봉시켜 자사 손익분기점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독자적 기획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연애>를 본 분들이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사이의 비교 평가보단 <연애>를 보지 못하고 또는 존재조차 인식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다. 다 편협한 경제 논리에 의한 결과라고 본다. 근데 어렵게 영화를 만들고 데드볼이라도 맞고 진루해야지 라며 항상 얘기하던 오석근 감독은 오히려 편안해 보인다. 그에게 남은 건 최선을 다했던 자신의 모습일지 모른다. 점수를 내진 못했어도 이건 분명 진루임에는 틀림 없다. 모든 선수가 점수를 낸다면 경기는 흥미롭지 못할 것이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다. 실패한 성공에 대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우린 경험으로 안다. 이기기 위해 암수를 쓰는 사람보다 당당히 지는 자를 우린 영웅이라 부른다. 그가 영웅일지 아닐진 몰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가려는 그의 모습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새해를 맞아 좀더 나은 환경과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올 한 해 모두가 뜻한 바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럼 누가 잃고 누가 다 가진단 말인가.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참을 늦게 뜻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야 세상은 균형을 유지한다. 영화에서 한 장면을 반복해서 촬영하다 보면 어떤 것이 최고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진정으로 만들고 싶었던 장면이 어떤 것이었는지 모를 때가 있다. 아마 내가 모를 때 누군가는 알게 되고, 내가 잃을 때 누군가는 얻게 되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는 편할 것이다. 세상의 균형이란 참 모호한 것 같다.

미래의 기억 - 〈신의 아그네스〉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아그네스] (빠르고 간단하게) 미리암 수녀님은 그것을 내게 남겨둔 채 날 혼자 있게 했어요. 그 작은 것을... 난 그것을 바라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실수야, 하지만 내 실수가 아니에요. 엄마의 실수도 아녜요. 하느님의 실수였어요. (침묵)
난 생각을 했어요. 난 그 아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는... 난... 아기를 하느님께 돌려보낼 수 있다고... (침묵)

[닥터]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그네스] 아기를 잠들게 했어요.

‘수녀 아그네스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였다.’

이 한 문장만으로 모순과 욕정, 경악, 공포, 죄악, 부패가 순차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의 판결은 그녀의 순결이다. 물론 그 판결에는 무지라는 작은 딱지가 붙여지지만 말이다.

〈신의 아그네스〉는 신학도 출신의 미국 극작가 존 필미어가 쓴 작품이다. 1980년 초연한 이후로 존 필미어는 이 작품으로 토니상을 받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품은 1983년 장기 공연에 성공하여 현재까지도 여러 극단에서 공연되어지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종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한다. 하나는 현시대에 있어서 종교의 각성이고, 또 하나는 현대과학사회에서의 종교성에 대한 해답이다.

종교의 각성

결론을 모르고 보는 이 작품의 묘미는 추리극적 전개이다. 당시를 기억 못하는 아그네스가 과연 정말로 아기를 죽였는가, 아그네스는 누구의 아이를 가졌는가, 아그네스는 정말 부도덕한 정신상태인가. 사건이 일어난 후 아그네스의 정신상태를 검진하러 온 닥터는 이 작품에서 그 외 단 두 명의 등장인물인 수녀원장과 아그네스와의 면담 속에서 이러한 의문들의 해답을 발견해간다.

닥터는 처음부터 종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지닌 인물이다. 초등학교 절친한 친구가 차사고로 죽었을 때 그 아이는 아침기도를 드리지 않아 죽었다고 말하는 수녀님의 말을 들은 이후로 그녀의 종교에 대한 반감은 시작되었다. 수녀인 그녀의 여동생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 수녀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해 죽은 이후로는 편협하고 외골로만 흐르는 종교계에 더욱 염증을 느끼던 터였다. 더욱이 신앙심 깊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반대 한 나머지 그녀는 그와 헤어지고 아기마저 낙태한 사적인 경험도 닥터에겐 내재해 있다.

닥터는 결국 영아살인의 배후에 수녀원장이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낸다. 아그네스가 아기를 가졌음을 원장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에 보내지 않았고 수녀원에서 아기를 낳게 하여 순간 정신착란을 일으킨 아그네스가 아이를 죽이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종교가 지나친 신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착오에서 비롯되었다. 작가는 실제로 '수녀가 아이를 죽이다'라는 기사문구에서 이 작품을 착안했다. 수녀원장은 불행한 결혼생활 끝에 두 딸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아그네스는 매춘부이자 알콜중독자였던 어머니에 의해 사회적 경험을 차단당하고 성에 대한 무지와 공포감만 지니게 된다. 이 두 사람은 사회에 대한 벽을 쌓고 그들이 사회 속에 몸담은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임을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간과한 나머지 사건을 초래한다.

[닥터] 성인들도 담배를 피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타바코를 즐겼던가요?

[원장]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고행자들은 아니었지만... 네, 성 토마스 무어는...

[닥터] 캔트... ? (를 피웠겠군요)

[원장] 성, 아그나티우스는 그렇죠, 그는 <카멜>을 피웠는데, 태우고 나선 항상 발바닥으로 비벼 버렸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사교상 함께 담배를 하셨답니다.

[닥터] 성 베드로, 그는 오리지날 <말보로>죠.

수녀님 생각에 근세의 성인들도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장] 지금의 시대에 성인이란 없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은 있지요! 하지만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 아니요. 시대적인 결여라고나 할까요...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요.

종교와 과학

서두에서 말했듯, 아그네스는 그녀의 지나친 순수성에서 아이를 살해하게 된다. 그녀에게 처음 찾아든 한 남자와의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21세의 여자이다. 이러한 무지함의 일면은 그녀의 커다란 신앙심으로 승화된다. 그녀의 손에서는 부정기적인 출혈현상이 나타난다. 성녀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이 그녀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다.

아그네스의 기적은 허구적 기적이지만 실상 우리 주변에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일부분에 대해 믿음의 시각에 따라서 종교적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신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태고적, 번개나 태풍, 홍수, 가뭄, 질병은 하나님의 분노였고, 풍요로운 수확과 무사태평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당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대안적 해석이다.

이 해석에 따른 해법은 사랑, 신뢰, 베품 등의 종교적 윤리에 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윤리로 인간은 천재지변에 슬기롭게 대처해왔다. 현대의 첨단과학도 역시 우주의 신비를 다 풀지 못한 채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렇다면 종교적 믿음과 실천은 언젠가는 밝혀질 미래과학에 대한 앞선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당면과제는 올바른 종교관일 뿐이다.



즐겁고 신나는 체험형 어린이 도서관

부산여자대학 어린이 도서관 **매직 라이브러리**

금방이라도 동화속 주인공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듯한 친근한 분위기로 꾸며진 어린이 도서관 '매직 라이브러리'. 아동학 특성화를 지향하는 부산여자대학이 지난 2003년 3월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도서관으로 개관한 이 곳은 어린이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놀이와 체험활동을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책이 구비된 서가는 물론 소꿉놀이, 인형, 퍼즐 등 어린이를 위한 놀이감과 다양한 체험공간이 한 장소에 배치되어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도서관의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 '즐겁고 신나는 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여자대학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 자리잡은 120여평 규모의 매직 라이브러리에 들어서면 야자수를 연상시키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왼쪽 한 벽면을 따라 정렬된 서가에는 그림책을 비롯한 단행본 7천여권과 비디오테이프 및 CD, DVD 등 비도서 200여점, 학부모와 유아교사용 단행본 300여권, 멀티동화(e-book) 372종, 잡지 등이 비치되어 있다. 어린이가 직접 쉽게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높이가 낮은 3단 서가를 설치했으며, 별도의 열람석 없이 곳곳에 재미나는 모양의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록 배려했다.

중앙의 두 기둥을 따라 돌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역할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역할놀이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 아나운서가 되어 직접 뉴스를 진행해보는 방송국과 시력검사표와 인체해부 코너를 갖춘 병원, 여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용실과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역할놀이 공간에서는 창의력과 더불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음률·미술영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만들기, 그리기, 자르기, 칠하기, 구성하기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실로폰, 전자피아노, 탬버린, 트라이앵글, 장구, 북 등 다양한 악기 뿐 아니라 영아를 위한 많은 종류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음원 CD플레이어 및 소리나는 그림책, 그리고 크레파스, 물감, 붓, 가위, 풀 등 미술작업을 위한 그리기 도구와 만들기 도구가 비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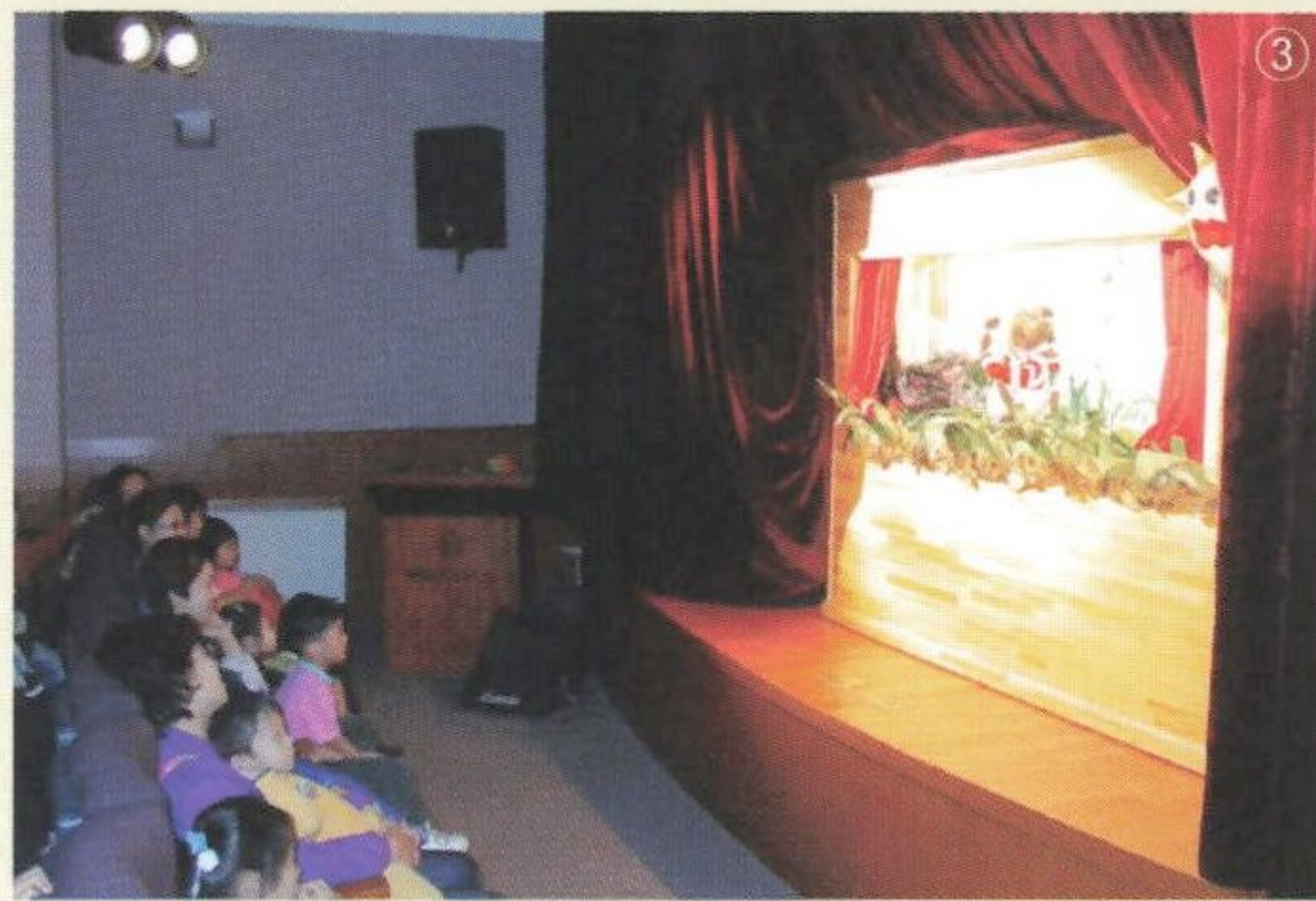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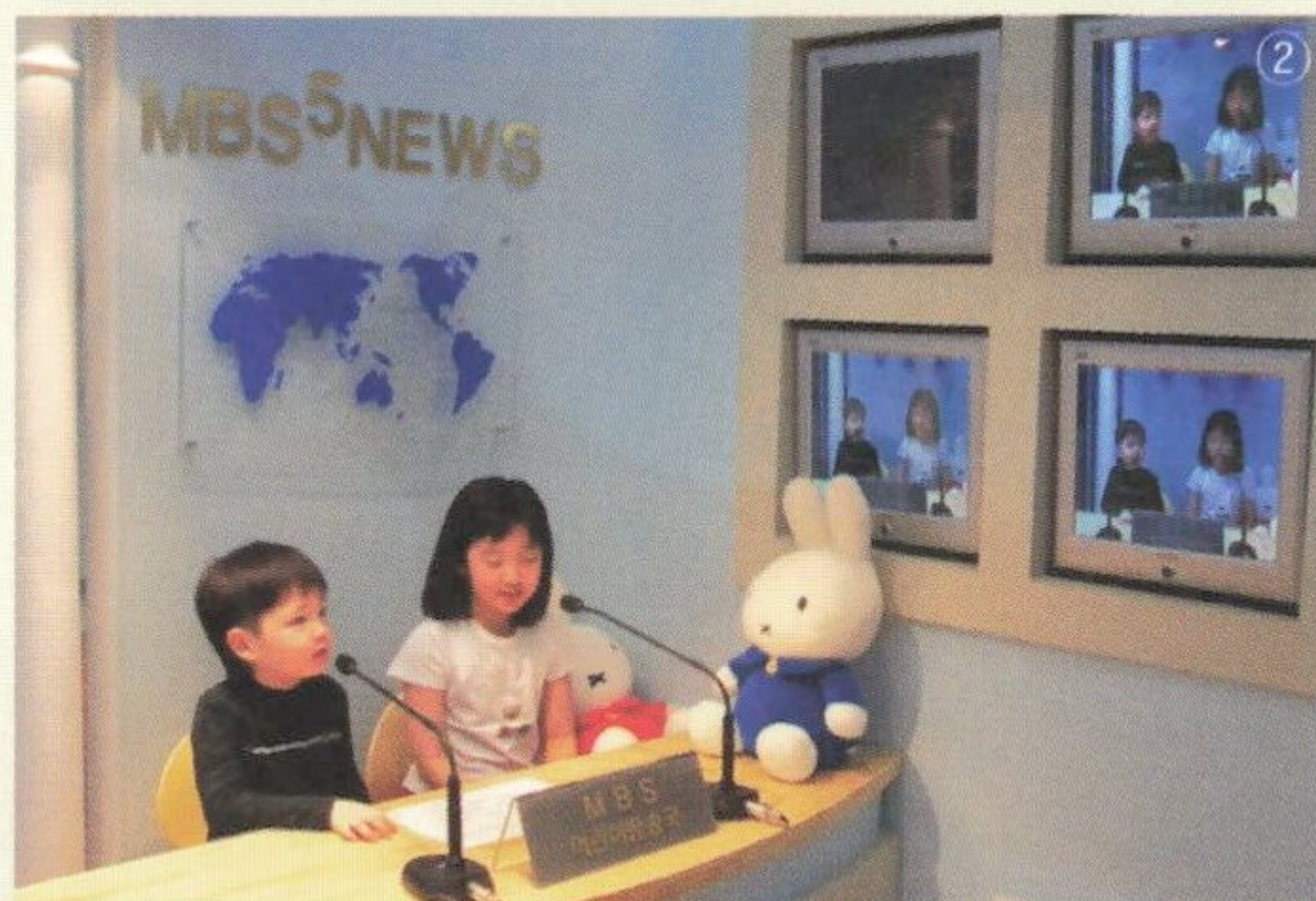
이밖에도 낮은동굴 모양으로 지어진 스토리텔링실, 신나는 동요를 불러볼 수 있는 노래방과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영상물이 상영되는 VTR/DVD 상영관 등도 갖춰져 있다.

2005년 개관 2년에 접어들면서 매직 라이브러리는 체험학습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의 단체 견학장소로도 인기높아 6개월 이전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단체견학 시에서는 도서관 이용과 함께 동화구연, 멀티동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단체견학 후 부모와 함께 다시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매직 라이브러리는 어린이 전문도서관 역할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린이 문화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 茶道교실을 비롯 엄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엄마와 함께하는 미술치료, 인형극 상연, 동화구연, 영화상영 등 다양한 행사를 가져온 매직 라이브러리는 2006년 1월에는 연 만들기 및 연날리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직라이브러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3월~6월, 9월~12월은 오후 5시까지) 개관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1인당 1,000원의 입관료를 내거나 3만원의 연회비를 내는 대출회원에 가입하면 가족 모두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현재 600여 가족이 가입해있는 대출회원은 1회에 가족 단위로 2권의 책을 10일간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관이 제공하는 부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문의:부산여자대학 어린이도서관 매직 라이브러리(051-850-3113, magic.pwc.ac.kr)



- ① 매직라이브러리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린이 문화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사진은 어린이 다도교실)
- ②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역할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더불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역할놀이 스튜디오.
- ③ 매직라이브러리는 동화구연, 멀티동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들의 단체견학 장소로 인기가 높다.

색소폰 대중화에 앞장서는 아마추어 색소폰동호회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직장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

클래식에서부터 재즈, 팝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있는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색소폰. 25명의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는 창단 1년도 채 안된 새내기 동호회이지만 그 열정과 실력은 어느 프로연주팀 부럽지 않다.

부산의 '색소폰 전도사'로 불리는 색소폰 연주자 방준모씨를 주축으로 2005년 5월 결성된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직장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교밴드나 군악대에서 색소폰

을 연주한 경험이 있는 회원도 있지만 색소폰 선율에 반해 입소문을 듣고 시작한 회원이 대부분이다.

구포에 마련된 연습실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 회원들은 바쁜 직장생활 틈틈이 연습실을 찾아 실력을 연마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열리는 정기모임에서는 그동안 쌓은 서로의 실력도 확인하며 전 회원이 하나되어 멋진 앙상블도 내어본다. 또한 초보회원들은 실력 있는 회원들로부터 꼼꼼한 개인지도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아 희노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색소폰”이라는 방준모 씨. 그 또한 취미로 시작한 색소폰이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아주는 수준급 연주자이다. 20대에는 트럼펫 연주자로 음악활동을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직업연주자의 꿈을 접었던 방준모씨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어 1999년 색소폰으로 제 2의 음악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직장인으로 밤에는 라이브 무대에 서는 색소폰 주자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 2003년 유명 색소폰 연주자 김무균 색소폰 앙상블과의 연주를 통해 시민들에

게 멋진 색소폰 화음을 들려줬던 그는 2005년 1월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해 보고싶다, 꽃밭에서, 천년의 사랑, 친구, 대니보이 등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16곡의 연주곡을 담은 음반 'QUITE'를 발매하기도 했다. 방준모씨의 이런 색소폰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색소폰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었다.

현재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 회장으로 있는 이봉춘씨 또한 방준모씨 덕분에 색소폰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2년전 우연히 라이브무대에서 연주를 하는 방준모씨의 모습에 반해 그 길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한 이봉춘씨는 독주 뿐 아니라 서로 어울려 앙상블 연주를 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에 큰 매력을 느낀다.

색소폰을 시작한지 3년된 회원 최동철씨는 학원에서 처음 색소폰을 배웠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와 인연을 맺은 그는 “혼자 연습하다 보면 흥미를 잃기 쉬운데 같은 관심을 가진 회원들과 활동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 실력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누구보다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다.

가입한지 사흘된 새내기 회원 장기중씨는 색소폰을 배우지 3개월밖에 안된 초보 연주자이다. 인터넷 색소폰 전국동호회에서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를 추천하는 댓글을 읽고 가입했다는 그는 방준모 단장의 상세한 지도가 초보자인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 회원들은 일정 실력이 갖춰지면 라이브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진다. 단장인 방준모씨가 매일 연주를 펼치는 라이브카페 '재즈하우스'에서 회원들은 무대 연주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며 실전 경험도 쌓는다. 지난 12월 17일 열린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 송년모임에서는 회원들의 즉석 라이브무대가 펼쳐져 참석한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동안 대남병원 독거노인 자선바자회, 심장병 어린이돕기 자선연주회, 국제골든벨클럽 초청 소년소녀돕기 자선연주회 등 음악을 통한 사랑나누기에도 앞장서온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창단 1주년이 되는 2006년 5월에 첫 정기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는 앞으로 서울 색소폰 필하모니와의 교류무대도 준비하는 등 보다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 색소폰 필하모니 회원들은 일정 실력이 갖춰지면 라이브 무대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며 실전 경험도 쌓는다.



부산의 '색소폰 전도사'로 불리우는 방준모씨는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라이브무대를 통해 색소폰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1월 11일(수)-1월 22일(일) 부산문화회관, 해운대 그랜드호텔

낭만의 부산 겨울바다를 뜨겁게 달굴 음악의 향연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가 오는 1월 11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한 앙상블로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부산국제음악제는 제대로 된 음악축제가 없는 부산에서 실력있는 음악가들의 명연주를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로 음악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월 11일 오프닝 콘서트 '그 화려한 시작'의 실내악 무대를 시작으로 22일까지 8차례의 다양한 음악회와 뮤직아카데미가 열리는 이번 부산국제음악제는 음악감독인 비올리스트 최은식, 피아니스트 백혜선 부부를 비롯 부조니, 윌리엄 카펠 콩쿠르 우승자이자 명교수인 피아니스트 로버트 맥도날드, 롱 티보 콩쿠르 우승자로 미셸 베로프와 더불어 프랑스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올리비에 가르동, 지난해 무대에서 빼어난 앙상블 실력을 선사했던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피아니스트 루시 스톨츠만과 세계의 모든 음악매니지먼트사가 주목하는 캐나다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스캇 세인 존,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최근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으로 화제를 모은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제네바 콩쿠르 우승자이자 클리블랜드 4중주단의 창립멤버인 명 비올리스트 마르타 케츠, 제네바 콩쿠르 우승자인 한국의 첼리스트 정명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인 첼리스트 로렌스 레쎈, 링컨센터 챔버 뮤직소사이어티 멤버이자 줄리어드 음대 교수인 첼리스트 프레드 웨리, 제네바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3위 입상한 플루티스트 윤혜리 등이 화려한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또 뉴올리안즈 콩쿠르 출신의 피아니스트 안소연이 뮤직아카데미의 주임으로 연주와 레슨을 맡는다.

특히 이번 부산국제음악제는 실내악 연주회로만 마련됐던 지난해와 달리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로 꾸며지는 '신년음악회', 부산 실내악의 견인차 역할을 한 뮤즈트리오와 콰르텟 뮤즈를 초청, 부산 실내악의 현재 모습을 조명해 보는 '부산의 실내악', 미래의 음악도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떠오르는 별' 시리즈로 마련되는 부산출신 천재 피아니스트 김다솔 독주회, 부산국제음악제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디너콘서트' 등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일정

- 1월 11일(수) - 오프닝 콘서트 '그 화려한 시작' - 오후 7시 30분/부산문화회관 대극장(7시부터 Pre Concert)
- 1월 13일(금) - 신년음악회(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 - 오후 7시 30분/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월 14일(토) - 가족음악회 - 오후 7시 30분/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월 16일(월) - 오늘의 부산 실내악 - 뮤즈트리오&카르텟 - 오후 7시 30분/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월 17일(화) - 축제음악회 - 오후 7시 30분/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월 18일(수) - 떠오르는 별 시리즈 - 천재소년 김다솔 피아노독주회 - 오후 7시 30분/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1월 20일(금) -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 - 오후 7시 30분/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1월 21일(토) -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 - 디너콘서트 - 오후 6시 30분/해운대 그랜드호텔 대연회장

제 17회 봉생문화상 수상한 부산대학교 김 남 순 교수



제 10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100인의 가야금 연주단을 이끈 부산대학교 김남순(49) 교수가 우리 정서가 담긴 우리 음악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알린 공연활동을 인정받아 제 17회 봉생문화상 공연부문상을 수상했다.

평소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작은 무대를 마다하지 않고 흔쾌히 연주해온 김남순 교수는 부산국제영화제 ‘100인의 가야금’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가야금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한 ‘100인의 가야금’을 구상한 그는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들과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가야금오케스트라를 이루어냈다.

1982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전신이었던 부산국악관현악단의 창단 멤버로 부산 활동을

시작한 김남순 교수는 1985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써 왔다.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실험정신을 가지고 다른 연주자들이 쉽게 할 수 없었던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그는 가야금연주회에서 처음으로 해설을 시도한 것을 비롯 한 무대에서 7종류의 가야금을 선보이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악보집과 음반해설 CD, 테이프를 제작하여 1995년 KBS 국악대상 ‘현악 부문’ 상을 수상하기도한 김남순 교수는 지난해 제자들과 부산가야금연주단을 창단, 모차르트 심포니를 가야금으로 연주해, 공연장을 찾은 청중들에게 또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좋은 음악을 어디에다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상하고 맑은 정신이 담긴 우리의 음악이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통해 울려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순 교수는 2006년 부산가야금연주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서울 연주회, 음반 준비, 독주회 등 바쁜 신년을 설계하고 있다.

단소(短簫) 불어 보기 <1>

채수만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

전통악기는 64종이 있는데 그중 단소는 악기 구조가 간편하고 소리내기가 쉬우며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대나무(竹)로 만든 관악기(管樂器) 중의 하나이다.

근자에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부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사람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악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은 있으나 단소를 접해본 일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예술의 초대에서 1인(人) 1기(器)의 차원에서 지면이 활해되어 본 연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단소의 기원은 중국 고대의 황제 현원이 기백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여 제왕의 덕을 선양케 하였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조선조 순조때 청나라로부터 수입하여 궁중음악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구조와 체제로 보아서 신라삼죽 보다 앞서 자연스럽게 태동되어 민간풍류에 애완되던 악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음역(音域)은 두옥타브 반에 이르며 방중세악(房中細樂)이나 가곡, 가사, 시조 반주악기로 널리 사용되었고 독주 악기로서도 매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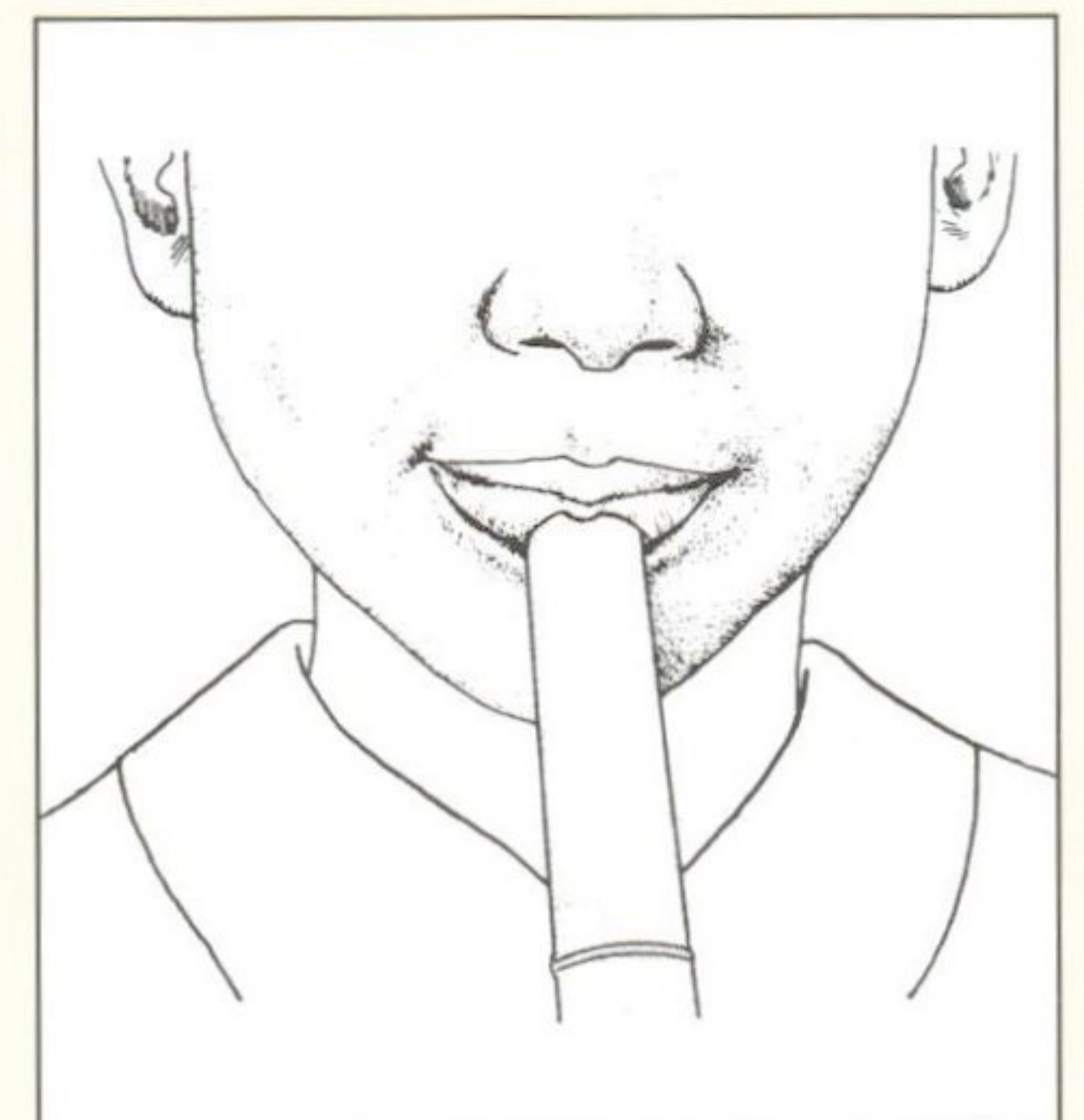
단소악기를 만드는 재료로는 황죽(篁竹)이나 오죽(烏竹)을 사용하나 근자에는 학습용으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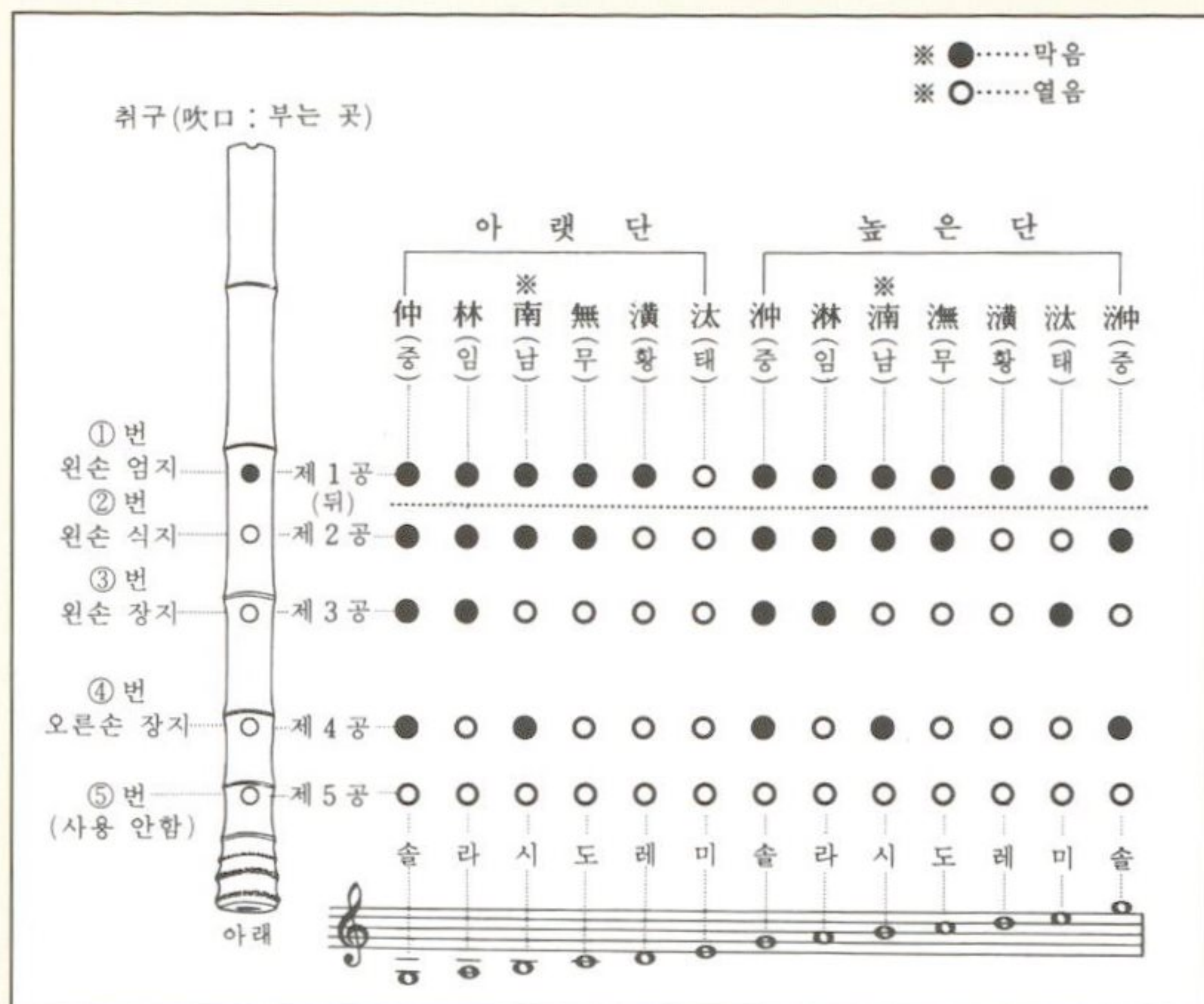
■ 자세

- 허리를 곧게 세우고 온몸에 힘을 뺀다.
- 복식호흡을 한다. 복식호흡이란 숨을 들여 마실 때 아랫배까지 숨을 깊숙히 들여마신 후 천천히 내뿜는 것을 말한다.
- 머리를 약간 숙이고 단소를 45도 각도로 세워 가볍게 잡고 시선은 전방 15도로 아래를 주시 한다.

■ 소리내기

- 아랫입술을 주름이 없도록 약간 편다.
- 그림과 같이 단소의 취구를 아랫입술 한 가운데 밀착 시키고 (프 -)하고 입김을 불어 넣는다.
- 소리가 나는 원리는 입김이 입술 한가운데서 얇고 일정하게 나와 단소의 취구에 부딪혀 반은 밖으로 반은 취구 안쪽으로 들어가 소리가 나게 된다
- 이 과정이 단소 입문과정 중 제일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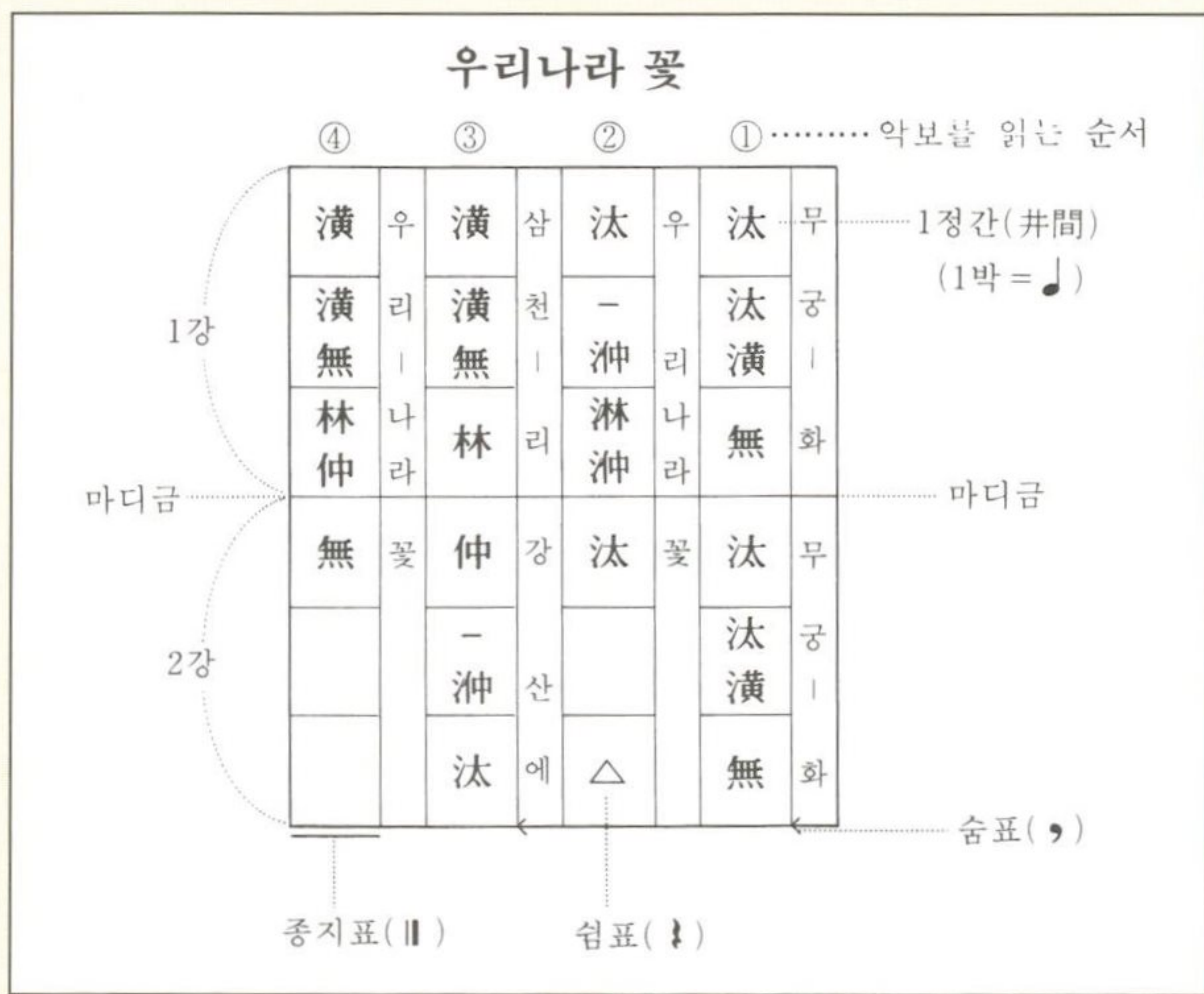


■ 단소의 음정과 손 잡는 법

국악에는 12율명이 있는데 먼저 기본 5음을 익히도록 한다.

단소의 기본 5음 : 仲(중) 林(임) 無(무) 濼(청황)
汰(청태)

국악 악보 보는 법



정간보(井間譜)란 우물 정(井)자 모양안에 여러개의 음명(예:仲·林·無·潢·汰)을 적어넣어 음정의 높고 낮음과 박자를 표시한 악보로, 한칸(一井間)을 한 박으로 쳐서 음의 쇠가를 나타내는 세종대왕이 창안한 우리나라 고유의 악보이다.

위의 정간보는 동요 '우리나라 꽃'을 정간보로 옮겨적은 것이다.

· 먼저 ①번줄 위에서 아래로 읽고(汰·汰·潢·無) 그 다음에 ①번 ②번 ③번 ④번의 순서로 읽는다.

- 한 정간안에 음정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는 4분음표 1박(♩)으로 계산한다.
- 한 정간안에 음정이 두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각각 2분의 1박씩이다. (♩ ♩ = ♩)
- 비어있는 정간은 위의 음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 한 정간안에 △(침표)가 있으면 1박을 쉬라는 뜻이다.
- 종지표(가로댤금)는 음악이 다 끝났다는 뜻이다.

2006년 예술에의 초대에서 '1인 1기를 배웁시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새해는 악기를 직접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전문연주자의 지상강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쉬운 악기를 선정해 악기를 배우면 2006년에는 생활이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단소로 출발하는 '1인 1기를 배웁시다'를 함께 시작하실 분들은 1월 31일까지 독자엽서를 보내주시시오. 선정된 분은 채수만님의 지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6 우리춤 산책

1월 11일-12일 수-목요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이 시대의 전통춤을 세우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이 오는 1월 11일, 12일 2006 '우리춤 산책'으로 병술년 새해의 첫무대를 연다. 이번 무대는 바쁜 공연 일정 중에도 실제 강습을 통해 평소 우리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그동안 전승 과정을 되돌아보며 빼어난 춤태와 기량을 선보이는 무대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중요무형문화재들이 한자리에서 공연되어 관객들은 한국춤의 정수를 골고루 맛보며 우리춤의 멋과 신명으로 신년을 맞을 수 있다.

첫 날은 김주연 '한영숙류 태평무'를 시작으로 이화성의 '부채산조춤' 장래훈, 서현미의 '진쇠춤', 전해련의 '한영숙류 살풀이춤', 이현주 '강선영류 태평무', 김현숙 '승무', 둘째 날은 장해정의 '승무', 권봉정 '강선영류 태평무', 정진희 '산조춤', 서정숙 '지전춤', 윤은하 '한영숙류 태평무', 김진영 '부포놀이'를 선보인다. 춤꾼에 따라 다른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태평무와 승무는 이틀동안 무대에 오른다.

첫날 첫 무대를 장식하는 '한영숙류 태평무'는 경기도 도당굿에서 행하여진 무악과 무무를 故 한성준 선생이 발채하여 재구성한 춤이다. '부채산조춤'은 우조의 편안함과 평조의 안정감, 계면조의 섬세한 맛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절제된 기교가 그 특징이다. '진쇠춤'은 쇠를 들고 절묘하게 가락과 소리를 내어 여러 신을 불러들여 잡귀를 물러나게 한다하여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노래하고 팔도 원님들이 왕 앞에서 국운을 빌며 제사 지낼 때 추던 춤으로 근세에 와서는 경기 도당굿 제석거리에서 추어졌다.

둘째날에 새롭게 선보이는 지전춤은 씻김굿(동해안 오구굿) 중에서 한지를 길게 오려 만든 것을 양손과 한손에 번갈아 들며 망자의 넋을 불러들여 원과 한을 풀어 깨끗이 정화하여 왕생극락토록 하는 춤이다. 이날 공연될 작품은 별신굿 12거리 중 지전춤을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춤 산책에서 처음으로 공연되는 '부포놀이'는 사물가락과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춤사위로 선반 사물놀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상쇠나 장구잡이가 쓰는 것으로 놀 때마다 깃털 모양이 꽃모양으로 활짝 펼쳐져 화사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 특징이다.

- 입장료 :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7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함께하는 2006신년음악회

1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5년 신임 수석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와 함께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13일 부산 국제음악제에 참가하는 세계 정상급연주자들과 함께 2006 신년음악회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2006년 신년음악회는 전 수석지휘자 곽승 지휘로 뉴잉글랜드 음악원 현악 및 실내악 파트 과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루시 스톨츠만,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첼리스트 로렌스 레써,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및 일본 Franco-Japanese Academy 교수 피아니스트 올리비에 가르동, 천재적인 자질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서울대학교 교수 소프라노 박미혜,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로 있는 테너 김남두가 협연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신년 희망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해준다.

한해를 시작하는 신년음악회에서 매년 음악애호가들의 귀에 익은 경쾌한 곡들을 선곡해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도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차이코프스키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 베토벤 '3중 협주곡 다장조 작품 56',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 레하르 '메리 위도우' 중 '빌리아의 노래', 조두남 '뱃노래', 푸치니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사라사테 '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선곡, 2006년 첫 무대를 연다.

이번 무대는 세계적인 연주가 스톨츠만, 레써, 가르동이 들려주는 베토벤 '3중 협주곡 다장조 작품 56'에 기대가 크다. 협주곡이라는 장르 전체에서 희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곡은 협주곡으로서도 매우 특이한 작품이다. 베토벤의 비서이자 전기작가였던 쇤들러에 의하면 이 곡은 베토벤의 후원자이자 제자였던 루돌프 대공(피아노), 칼 아우구스트 자이들러(바이올린), 하이든의 에스터하지 오케스트라 수석 주자 안톤 크라프트(첼로)를 염두에 두고 작곡되었다고 한다.



루시 스톨츠만



로렌스 레써



올리비에 가르동



김수빈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7,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미리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28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2006 신년음악회

1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6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전통음악으로 병술년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28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2006 신년음악회'가 오는 1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유경조 악장의 집박으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는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관악합주를 비롯 현악합주 아리랑 메들리, 판소리 다섯바탕 중 주요 눈대목(주요 하이라이트)이 1, 2부로 나뉘어 화려하고 풍성한 무대가 펼쳐진다.

1부 첫 곡 관악합주 '취타, 절화, 길타령, 금전악, 군악'에서 취타는 고려시대 후기부터 전해오는 군악(軍樂)의 하나로, 왕의 거동때나 군대의 행진, 개선때 연주된 곡이다. '절화'는 취타 뒤를 이어 연주되는 행진곡풍의 행악(行樂) 관악곡으로 씩씩하고 힘차며, 타령장단에 얹어져 멋스럽게 흥청거려서 무용반주곡으로도 연주되는 길타령과 별우조타령이라 불리우는 금전악, 경쾌한 군악이 이어 연주된다. 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의 가락을 18현가야금, 25현가야금, 거문고, 아쟁으로 편곡한 현악합주 '아리랑, 밀양아리랑'은 소박한 연주에 풍부한 음향이 더해져 색다른 멋을 느끼게 해준다.

2부에서는 이향희, 강경아, 조경자, 박성희, 정선희 등 영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판소리 명창들의 무대로 춘향가, 수궁가, 심청가, 적벽가, 흥보가 등 판소리 다섯바탕 중 주요 눈대목을 연창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에서는 처음 열리는 형식의 연주로, 판소리 다섯바탕의 주요 장면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다.

판소리를 들려줄 이향희는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판소리 다섯바탕 눈대목 발표, 창작판소리 '유관순 열사가' 완창발표 무대를 가져왔으며, 강경아는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 KBS 서울국악경연 판소리부문 장원 등을, 조경자는 경북도립국악단 단원으로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을 차지한 바 있다. 부산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박성희는 그동안 판소리 '흥부가' 완창, 판소리 '수궁가' 완창, 서일본신문사 초청 판소리 독창회 등을 가졌으며 정선희는 무형문화재 제 2호 전주조교로 판소리 명인부 국민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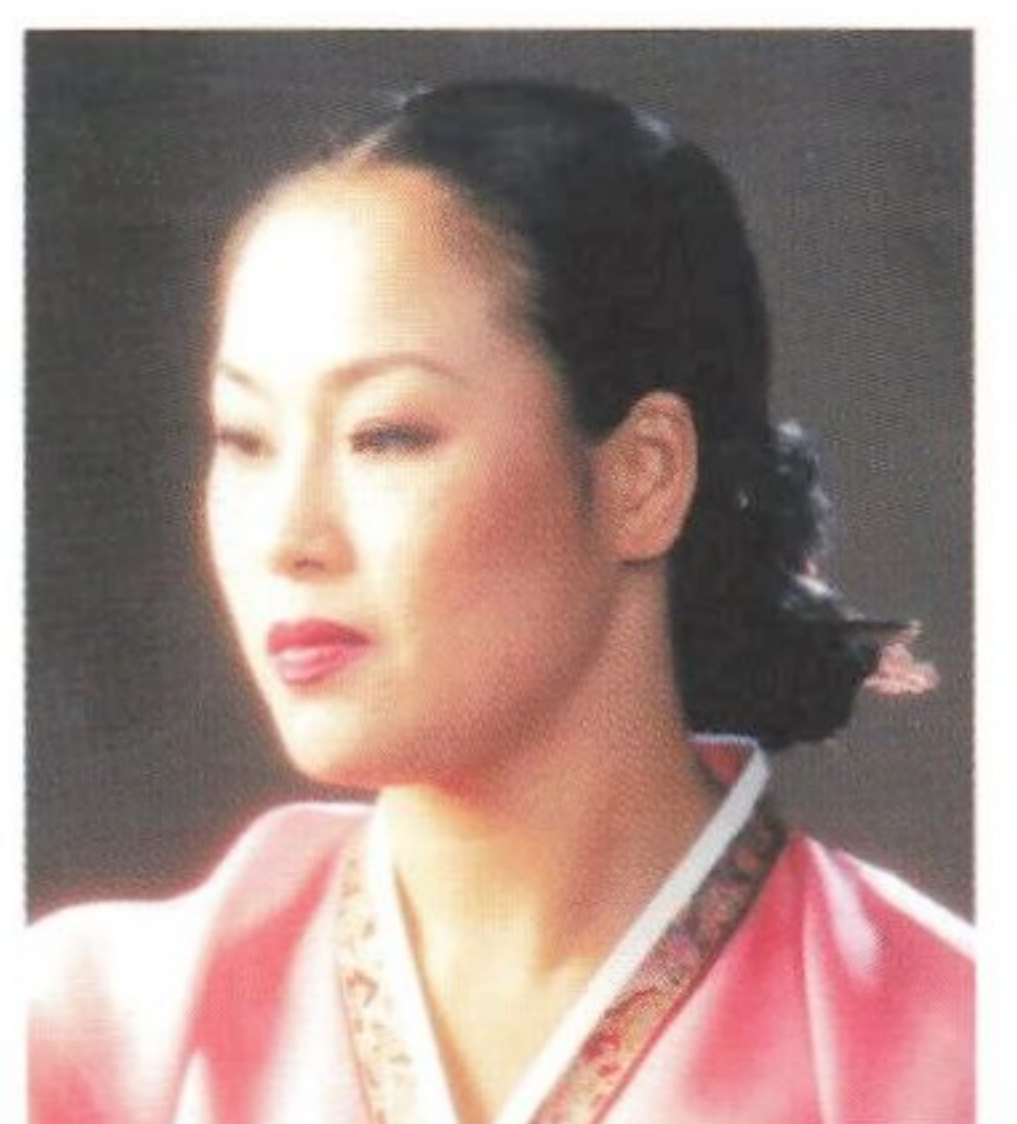
이향희



강경아



박성희



정선희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요.)
 ■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

1월 23일-26일 월-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미래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들로 구성, 폭 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의 시립청소년교향악단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 제 1회 무대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올해 부산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을 돌며 개최하게 될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축제는 지역간 음악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연주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는 뜻 깊은 무대로 이번 무대는 울산, 과천, 서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참가한다.

23일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 교향악축제 서막을 여는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00년 12월 창단, 연 7여회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김종규의 지휘, 첼리스트 이동우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돈 지오반니 서곡', 하이든 '놀람 교향곡' '첼로협주곡 다장조'로 조화로운 선율과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준다.

둘째날인 24일은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가 이어진다. 2001년 6월 창단된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초대 상임지휘자 박진욱과 매년 '세계음악여행 시리즈'로 호평 받아온 정기연주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온 '해설이 있는 음악회',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상과 함께하는 팝스 콘서트' 등의 기획연주로 박수를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와 스트라빈스키 '페트르슈카'를 들려준다.

25일은 전국의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의 무대가 마련된다. 1984년 창단된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은 서울올림픽 문화사절로 하와이 연주를 시작으로 뉴욕 카네기홀 100주년 초청연주, 일본 3개 도시 순회연주 등을 통해 뉴욕타임즈와 일본 언론으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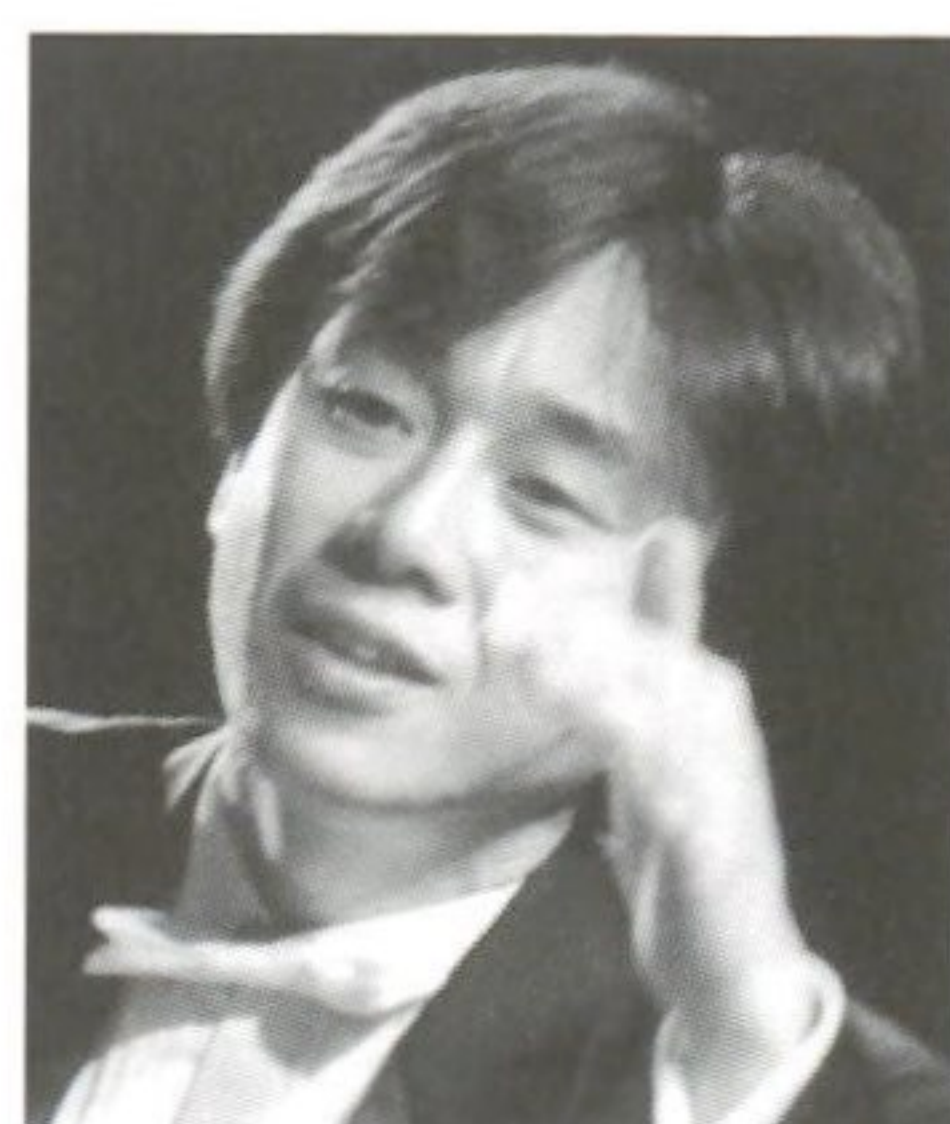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 마지막 무대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장식한다. 아카데미즘을 바탕으로 한 학구적인 무대를 선보여온 윤상운 지휘자의 지휘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다장조 K.467'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5번 라단조 작품 47' '축전서곡 작품 9'를 들려준다.



김종규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박진욱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박태영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



윤상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입장료: 2,000원(이 공연은 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없습니다.)
-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2006년 신년특별음악회

첼로의 거장 조영창 & 김규식 듀오 콘서트

10일 화요일 오후 7:30



테크닉을 초월하여 청중을 매혹하는 풍부한 음악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조영창과 조영창의 제자 첼리스트 김규식이 들려주는 신년 듀오 콘서트.

1999년 '조영창과 친구들'을 창단, 매년 아름다운 첼로 선율을 들려 주고 있는 조영창은 이번 무대에서 제자 김규식과 학구적이고 클래식한 프로그램으로 첼로 연주의 진수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바리에르/두 대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 사장조

모차르트/두 대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 내림나장조 KV. 292

피아티/두 대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세레나데 라장조

메노티/두 대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등 수곡

· 피아노/조영창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사)부산문화(635-9081)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오프닝 콘서트 그 화려한 시작

11일 수요일 오후 7:30

지난 해 1월 첫 닷을 올린 부산국제음악제 두 번째 무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그의 남편인 비올리스트 최은식 부부가 음악감독을 맡아 화제가 된 부산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부산에서 실



내악의 묘미를 느껴볼 수 있는 부산 유일의 음악축제이다.

그 첫 무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백혜선, 최은식, 정명화 등 세계적인 연주자와 로렌스 레셔, 마르타 케츠, 프레드 웨리, 로버트 맥도날드 등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연주자, 그리고 젊은 연주자 백주영, 윤혜리가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의 화려한 시작을 연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플룻 4중주 제 1번 K.285

쇼스타코비치/피아노 3중주 제 2번 마단조

드보르작/피아노 5중주 가장조 작품 81

연주

윤혜리(서울대학교 교수), 백주영(서울대학교 교수), 최은식(서울대학교 교수), 로렌스 레셔(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백혜선(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윌리엄 카펠 콩쿠르 우승), 스캇 세인 존(알렉산더 슈나이더 콩쿠르 우승), 프레드 웨리(줄리아드음대 교수), 로버트 맥도날드(줄리아드음대 교수), 루시 스톨츠만(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마르타 케츠(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정명화(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정규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7:00 제1회 BMF 콩쿠르 우승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임희영의 Pre Concert 진행)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제 1057회 MBC 목요일음악감상회

울속도 교향악단 초청 연주회

12일 목요일 오후 7:30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돈을 내어 직접 운영하는 시민자치예술단으로 출발한 울속도 교향악단을 초청, 2006년 희망의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레타 '박쥐 서곡'

레하르/금과 은 왈츠

모차르트/바이올린, 비올라, 오케스트라를 위한 Symphonia Concertante K.364 내림나장조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왈츠, 피치카토 폴카 등 수곡

· 지휘/채운(상임지휘자)

· 협연/조현미(바이올린), 이성호(비올라), 김유섬(소프라노)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사)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761-0255)

울속도교향악단(321-2626)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17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함께 하는 2006신년음악회

13일 금요일 오후 7:30



2006년 신년의 희망과 환희를 들려줄 부산시립교향악단 2006 신년음악회.

전 수석지휘자 광승의 지휘로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에 참가하는 세계적인 연주자 루시 스톨츠만, 로렌스 레셔, 올리비에 가르동, 차세대 유망주 김수빈, 국내정상급 성악가 소프라노 박미혜, 테너 김남두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작품 45

베토벤/3중 협주곡 다장조 작품 56
 구노/‘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
 레하르/‘메리 워도우’ 중 ‘빌리아의 노래’
 조두남/뱃노래
 푸치니/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작품 20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 지휘/곽승
 · 협연/루시 스톨츠만(바이올린,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김수빈(바이올
 린), 로렌스 레씨(첼로,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 올리비에 가르동(피아
 노,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
 일본 교토 Franco-Japanese
 Academy 교수), 박미혜(소프라
 노, 서울대학교 교수), 김남두(테너)

· 해설/곽근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가족음악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슈베 르트의 송어

14일 토요일 오후 7:30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감동의 앙
 상블.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슈베르트의
 ‘송어 5중주’를 올리비에 가르동, 김수빈,
 최은식, 프레드 웨리 등 남자연주자 5인의
 연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버/플룻 3중주 사단조 작품 63
 스메타나/피아노 3중주 사단조 작품 15
 슈베르트/피아노 5중주 ‘송어’ 작품 114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부산 신한 개장 성공기원 신년음악회

15일 일요일 오후 5:00



장원상

배수진

2006년 신년을 맞아 소프라노 전이순,
 배수진, 이윤정, 테너 장원상, 정거화, 이은
 민이 출연, 부산신한의 성공적인 개장을 기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선율
 을 들려준다.

· 피아노/차미소란(동아대학교 교수)

입장료 S석 15,000원 · A석 10,000원(학
 생 30% 할인)

문의 공연기획 예성(248-2011)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뮤즈트리오 & 콰르텟 뮤 즈-오늘의 부산실내악

16일 월요일 오후 7:30



콰르텟 뮤즈

1990년대 부산실내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실내악단 뮤즈 트리오는
 2000년대 부산의 실내악을 이끌고 있는 콰
 르텟 뮤즈앙상블이 들려주는 실내악의 향연.

뮤즈트리오의 오리지널 멤버인 피아니
 스트 조현선,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첼
 리스트 이유미가 오랫동안 함께 무대에
 선다.

프로그램

드볼작/현악4중주 바장조 ‘어메리칸’

브람스/피아노5중주

드볼작/피아노 3중주 작품 90 ‘둥키’

· 뮤즈트리오-조현선(경성대학교 교수), 임
 병원(경성대학교 교수), 이유미(코리아 챔
 버소사이어티 단원)

· 콰르텟 뮤즈-임병원(1st 바이올린, 경성
 대학교 교수), 황지원(2nd 바이올린, 경성
 대 외래교수), 최영화(비올라, 부산시립교
 향악단 부수석), 김판수(첼로, 부산시립교
 향악단 단원)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다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051) 627-2563(대) FAX: 051) 627-2560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축제음악회

17일 화요일 오후 7:30



세계적인 연주자 루시 스톨츠만, 스캇 세인 존, 마르타 케츠, 최은식, 프레드 웨리, 로버트 맥도날드, 로렌스 레셔, 정명화, 백혜선이 들려주는 실내악의 향연.

프로그램

모차르트/현악 5중주 라장조 K.593
지안 카를로 메노티/2대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브람스/피아노 4중주 사단조 작품 25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떠오르는 별 (Rising Star) 시리즈

김다솔 피아노 독주회

18일 수요일 오후 7:30



2005년 11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전세계에서 모인 경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2등상을 수상한 부산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 김다솔 초청 피아노독주회.

니스트 김다솔 초청 피아노독주회.

어려운 형편으로 교회의 피아노로 연습하며 해외 유학 없이 기량을 닦아온 김다솔은 최근 일본 나고야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를 비롯한 각종 콩쿠르를 석권하면서 권위있는 국제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7번

리스트/파우스트 왈츠

슈만/심포닉 에튀드 등 수곡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28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2006 신년음악회

20일 금요일 오후 7:30



자주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음악으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

영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판소리 명창 이향희, 강경아, 박성희, 정선희, 조경자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을 연창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관악합주/취타, 절화, 길타령, 금전악, 군악
황의중/현악합주 아리랑 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 연창/적벽가 중 '군사 설음 대목',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춘향가 중 '오리정 이별 대목', 수궁가 중 '별주부가 모친과 이별한 후 세상나오는 대목',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 집박/유경조(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 협연/이향희, 강경아, 박성희, 정선희, 조경자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21일 토요일 오후 7:30



합창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봉사하기 위해 2000년 4월, 전국에서 6번째로 창단된 사랑의 부부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43쌍의 부부가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구노/대영광송
모차르트/아베 베룸 코르푸스
포테/죽임 당하신 어린양
김동환/총각타령
송창식/우리는 등 수곡

· 지휘/김정일(고신대학교 교수)
· 반주/최윤희(경성대학교 교수), 이은영

입장료 초대

문의 남화성(743-5436,
017-557-5436)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 교향악단 교향악축제

23일-26일 월-목요일 오후 7:30

미래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들로 구성된 전국의 청소년교향악단들이 들려주는 '제 1회 전국시립청소년교향악단 교향악축제'.

■ 23일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2000년 12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연 2회의 정기연주회, 기획공연 1회, '찾아가는 예술단' 프로그램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조화된

선율과 아름다운 화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KBS교향악단 첼로수석을 지낸 울산대학교 교수 이동우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돈 지오반니 서곡 K.527
하이든/놀람 교향곡 사장조 제 94번
하이든/첼로협주곡 제 1번 다장조

- 지휘/김종규
- 협연/이동우(첼로, 울산대학교 교수)

■ 24일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01년 6월에 창단된 과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 박진욱과 매년 '세계음악여행 시리즈'로 호평받아 온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 '영상과 함께하는 팝스 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연주로 박수를 받아왔다.

6인 비평가그룹이 선정한 '오늘의 음악가상'을 수상한 첼리스트 홍성은이 협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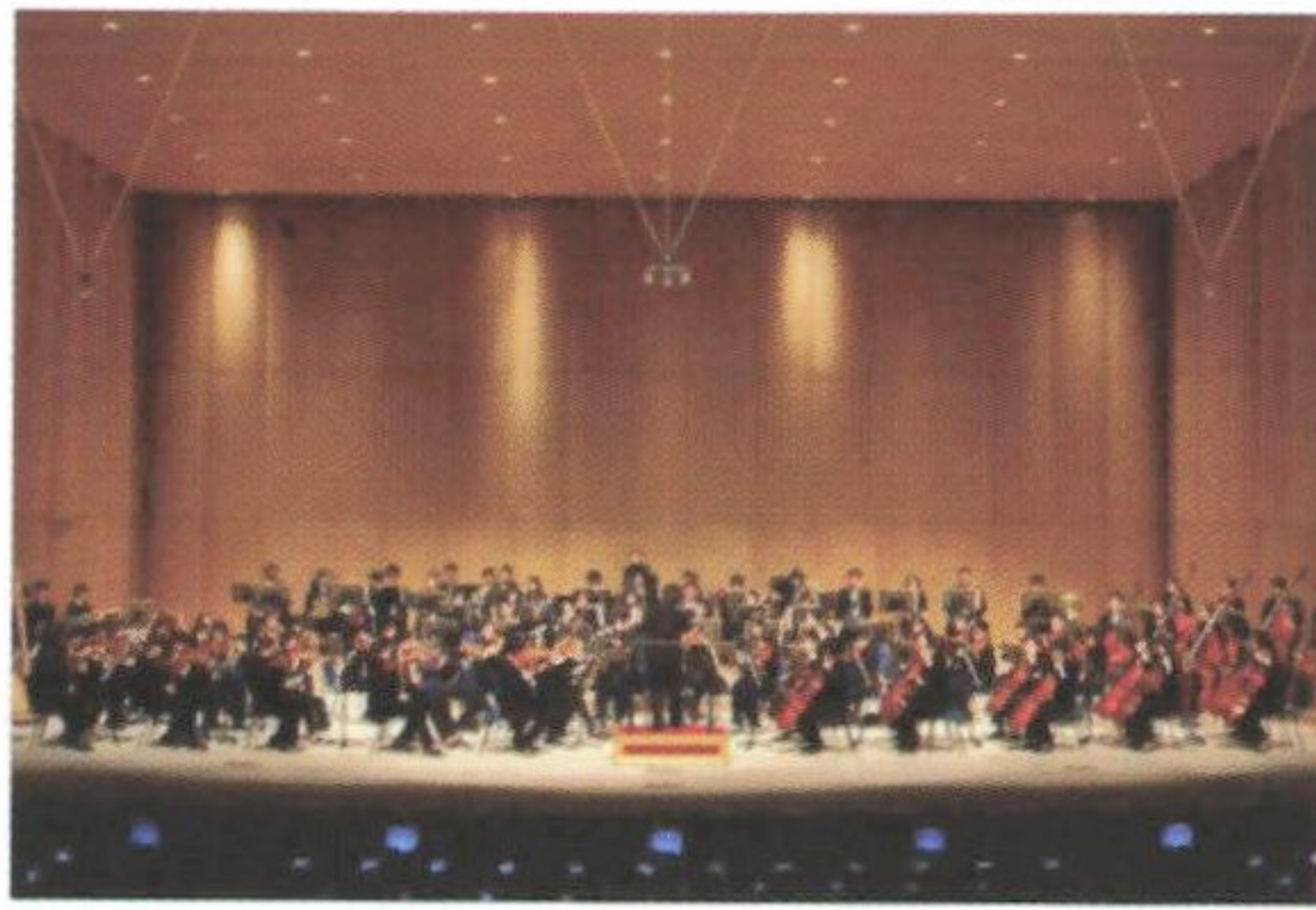
프로그램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104
스트라빈스키/페트르슈카

- 지휘/박진욱
- 협연/홍성은(첼로, 단국대학교 교수)

■ 25일 서울시청소년소녀교향악단

1984년 서울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으로 출발,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은 서울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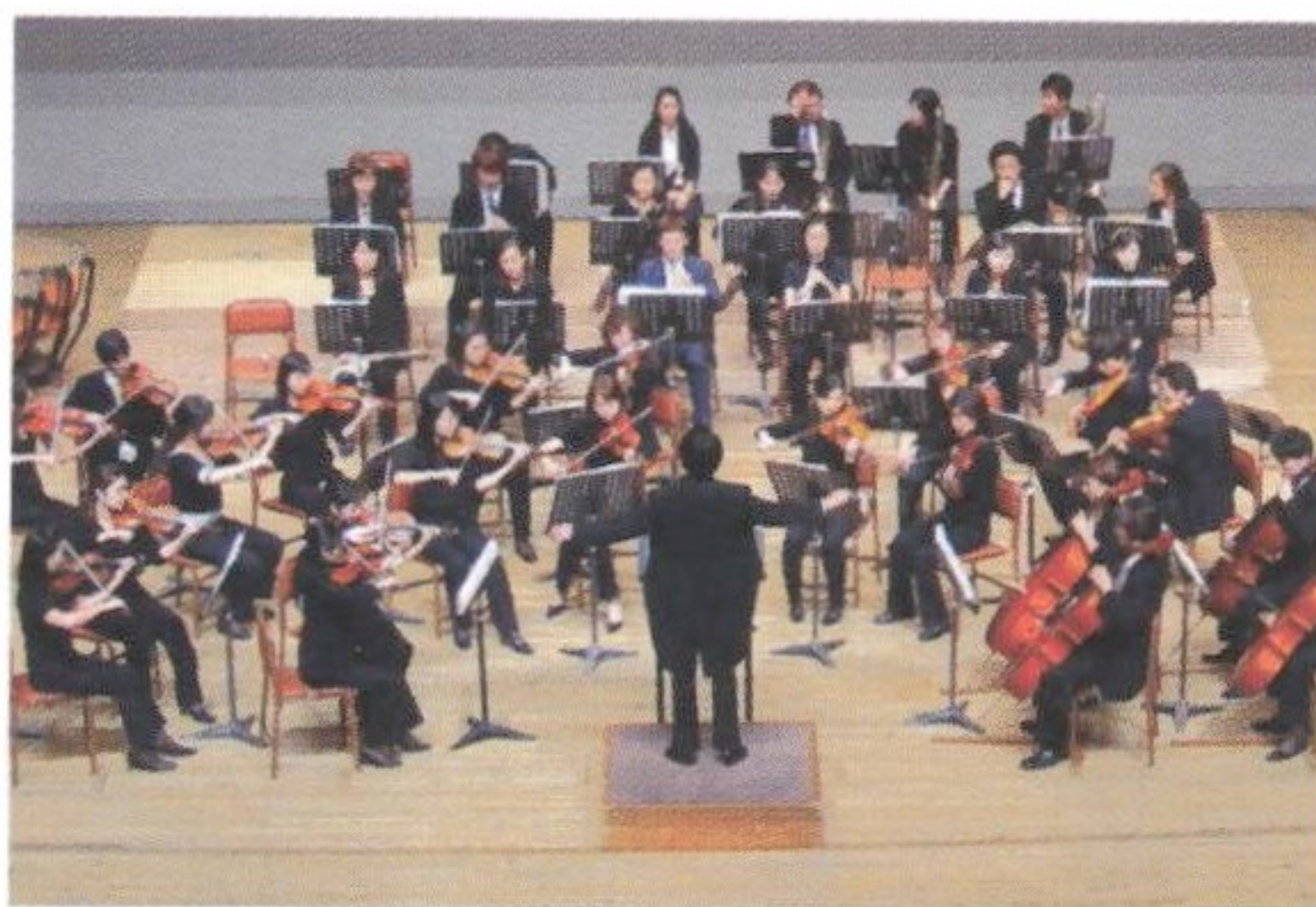
소년교향악단은 1987년 서울올림픽 문화사절단으로 가진 하와이 연주를 시작으로 뉴욕 카네기홀 100주년 초청연주, 일본정부 초청 3개 도시 순회연주 등을 통하여 뉴욕 '타임즈'와 전 일본 언론으로부터 격찬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연주를 마친 바 있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7번 다장조 작품 60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 지휘/박태영
- 협연/안준희(바이올린,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 악장)

■ 26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1994년 80여명의 단원들로 창단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부산·경남의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의 기회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1년과 2003년 부산시립청소년교향

악단의 실내악 팀이 한·일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일본 대마도의 '신세기 우정의 음악제'에 초청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 호평을 받았다.

뉴욕 WQXR 라디오방송국 주최 신인 발굴 콩쿠르 대상, 영국 해이스팅스 콩쿠르에서 1위를 한 피아니스트 채정원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다장조 K.467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5번 라단조 작품 47

쇼스타코비치/축전서곡 작품 96

- 지휘/윤상운
- 협연/채정원(피아노)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6109)

뮤지컬 비밀의 정원 부산공연

2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국내 뮤지컬 1세대인 최정원과 남경주가 함께 뭉쳐 세계 최고의 뮤지컬 음악들을 새로운 스토리로 엮어 만들어낸 뮤지컬 '비밀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남포동
자갈치 중앙아치탑 앞
각종 공연 예매처
Tel: 245-3843

문우당서점의 특별한 혜택!

문우당서점 회원카드로 문우당과 CGV(영화)에서 사용!
도서구입시 5%적립 CGV 10%적립 및 특정요일 할인
문우당창립 50주년 기념 1년간 책구매시마다 사은품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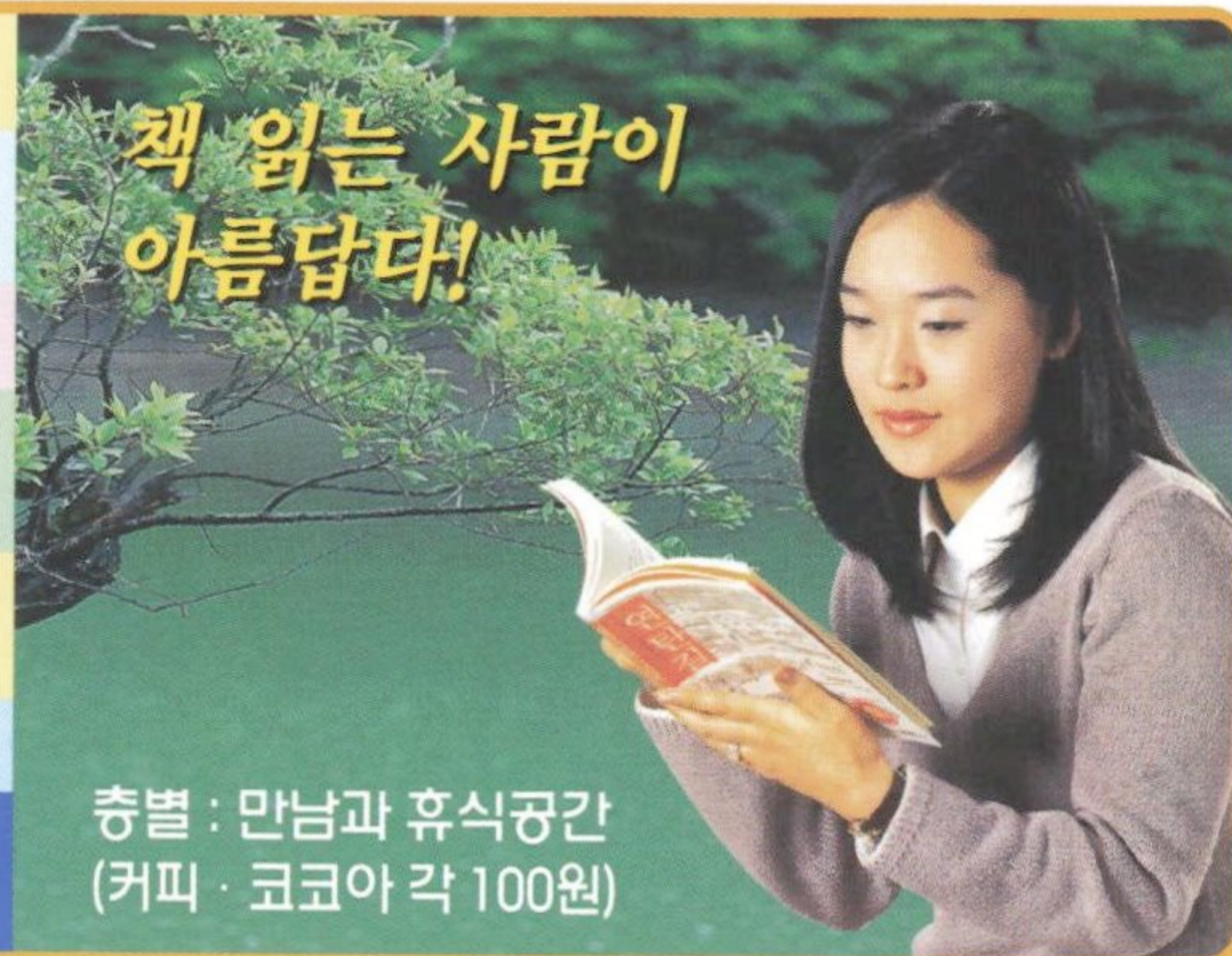
가마골소극장 할인! 문우당 영수증제시로 수요일은 문우당의 날로 50%할인 화·목·금요일 20%할인(일부대관공연 제외)

2월부터 1년간 매월 회원카드를 추천하여 50명에게 독서대(10,000)를 드립니다.

경주월드 자유이용권 할인판매중·통도환타지아 자유이용권 가을부터

책과 지도의 백화점
전국최고를 지향하는 종합지도의 대형매장(최대형코팅)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코코아 각 100원)

의 정원' 부산 무대.

'비밀의 정원'은 남경주가 직접 재구성, 연출을 맡아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 구성, 연출, 대본/남경주

출연

최정원, 오재익, 이계창, 나성아, 최지오, 함태영, 김은영, 김희원, 김희진 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인터스테이지(627-6161)

중극장

어린이 뮤지컬 스폰지밥과 니안다의 모험

13일 - 15일 금 -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스폰지밥과 똥이 아저씨, 니안다, 메롱이, 콩이 등 다양한 캐릭터를 배우들이 직접 쓰고 연기한 캐릭터 뮤지컬로 진정한 친구의 우정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 극본, 연출/김세진

출연

김혜진, 이선주, 김애양, 조미영, 김흥주, 최민우 외

입장료 현매 10,000원 · 할인 8,000원

문의 극단 대추(802-0530)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

2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국제음악제 초청 아티스트와 뮤직아카데미의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4중주

브람스/현악 6중주 등 수곡

연주

루시 스톨츠만, 백혜선, 최은식, 스캇 세인 존, 프레드 웨리, 올리비에 가르동, 로버트 맥도날드, 안소연 외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이지선 귀국 피아노 독주회

23일 목요일 오후 7:30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인디애나 음대와 이스트만 음대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부산출신의 피아니스트 이지선 귀국 독주회.

귀국 후 2005 서울대학교 음대 동문 연주회에 출연한 이지선은 미국 유학중 독주회를 비롯 Chamber Recital, Lecture Recital, Aspen Young Artist Concert 등의 무대에서 폭 넓은 음악수업을 해왔다.

프로그램

베토벤/32 Variationen in c minor, WoO 80

쇼팽/소나타 제 2번 나단조 작품 35

바흐-부조니/샤콘느 BWV 1004

입장료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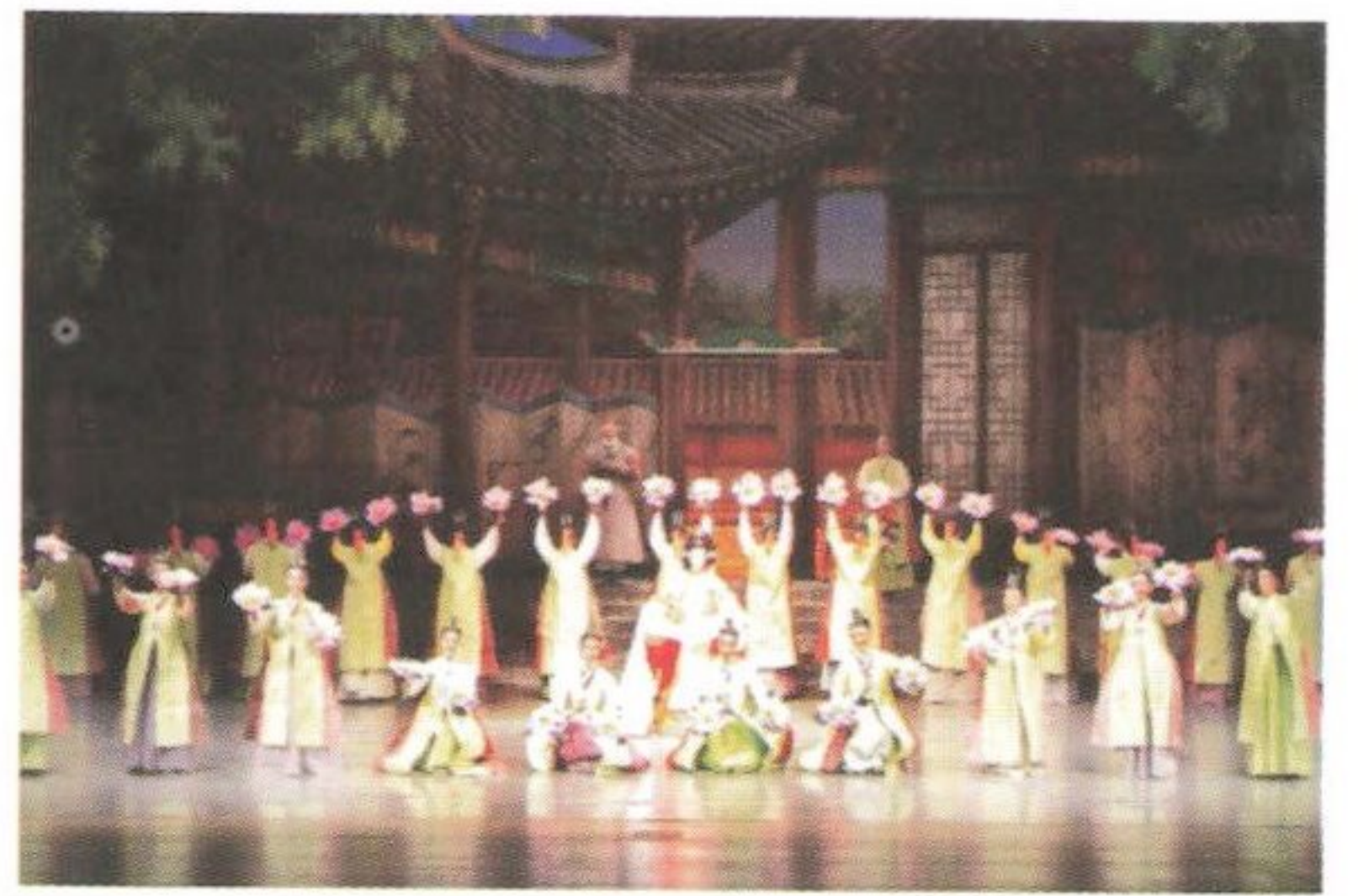
문의 (주)음연(02-3436-5929)

예술기획(0505-700-9798)

소극장

부산시립무용단 2006 우리춤 산책

11일-12일 수-목요일 오후 7:30



실제 강습을 통해 평소 우리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이 그동안의 연구를 되돌아보는 무대로 한국춤의 정수를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중요무형문화재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프로그램

첫째날

한영숙류 태평무(춤/김주연)

부채산조춤(춤/이화성)

진쇠춤(춤/장래훈, 서현미)

한영숙류 살풀이춤(춤/전혜련)

강선영류 태평무(춤/이현주)

승무(춤/김현숙, 악사' 김윤호)

둘째날

승무(춤/장해정, 뒷장고' 장래훈)

강선영류 태평무(춤/권봉정)

산조춤(춤/정진희)

지전춤(춤/서정숙)

한영숙류 태평무(춤/윤은하)

부포놀이(춤/김진영)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The Who 직장인밴드 공연

21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구성된 아마추어음악동아리 'The Who 직장인밴드'의 2006년 연합무대.

온라인 다음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오프라인 모임도 연계하고 있는 'The Who' 내 6개 밴드들이 모두 참가하는 이번 무대는 한국인이 즐겨듣는 편안한 음악으로 무대를 꾸민다.

입장료 균일 8,000원

문의 박일만(011-837-2223)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408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45-4951)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556-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11-8518)

(※ 가나다순)

음 악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4일 테너 장원상 독창회 '희망과 추억의 애창곡'



그동안 22차례 독창회를 비롯 1,000여회가 넘는 연주무대에 서온 경성대학교 교수 테너 장원상 독창회.

프로그램

비숍/즐거운 나의 집
최영섭/해뜨는 나라의 아침
포스터/민요모음곡 등 수곡

· 피아노/최혜련 · 해설/박진홍

■ 11일 소프라노 이슬미, 바리톤 안영중 듀오콘서트

소프라노 이슬미와 바리톤 안영중이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의 밤.

프로그램

도니제티/오페라 '루크레치아 보르지아' 중 '그 마법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베르디/오페라 '가면무도회' 중 '그대인가'
스트라우스/오페레타 '박쥐' 중 '나의 주인 마르퀴스' 등 수곡

· 피아노/박수호 · 해설/윤성원

■ 18일 크로스오버&뮤지컬 콘서트 '겨울향기 가득한 날'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이자 보이스아트 크로스오버 듀엣으로 활동중인 김지현, 류무룡이 뮤지컬 테마곡과 영화 주제곡, 팝송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1부/빈센트, 시네마 파라다이스, 파워 오브 러브, 클로징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등
2부/뮤지컬 '페임', '미스 사이공', '지킬 앤 하이드' 등 주요 테마곡

· 해설/한주형

■ 25일 베이스 문동환 독창회 '그리움의 강과 바다와 사랑'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로마 A.R.D.M.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현재



보이스 남성양상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이스 문동환이 강과 바다, 사랑을 소재로

한 성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변훈/한강, 임진강

임금수/사랑하는 마음, 그대 창 밖에서
아일랜드민요/대니보이 등 수곡

· 피아노/이용란 · 해설/김지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4081)

가람 영아티스트 초청음악회

5일 목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부산예고 입학 후 미국으로 유학, 맨하탄 음대에 재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원 초청무대로, 동생인 첼리스트 김영빈과 맨하탄 음대에 재학중인 피아니스트 현경영이 앙상블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크라이슬러/코렐리 테마에 의한 변주곡
브루흐/스코틀랜드 환상곡
프랑크/소나타 가장조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가람아트기획(626-6664)

박진 바이올린 독주회

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아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

리니스트 박진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 8번 작품 30
프로코피에프/소나타 라장조 작품 115
비발디/사계 중 '겨울'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고려대학교 윈드앙상블

부산시민을 위한 기념연주회

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 고려대학교 윈드앙상블이 부산시민을 위해 마련한 기념연주회.

프로그램

로시니/월리엄 텔 서곡
필립 스파크/하노버 페스티발
마르셀 피터스/찰리 채플린 등 수곡

· 지휘/유동휘
· 찬조출연/소년의집 관현악단(지휘/안영국)

입장료 무료

문의 고려대학교 교우회(556-1905)

Dream Forever

7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플루티스트 장미란, 타악주자 김순희, 첼리스트 윤유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제자음악회.

· 출연/최세라, 이소현, 이성언, 이유주, 김동현(이상 플룻), 김현성, 장민서, 허진영(이상 첼로), 이일순, 김태영, 신유지, 송은지, 심영건, 박민지, 김이연(이상 타악기)

· 특별출연/테너 이건수 · 반주/백현주

입장료 초대

문의 장미란(019-525-3988)

빈소년합창단 내한공연

8일 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대극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사의 소리' 빈소년합창단이 들려주는 2006년 신년 메시지.

시대를 초월한 명곡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민요,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 팝송, 영화음악 주제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입장료 VIP 80,000원 · R석 60,000원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문의 올리브엔터테인먼트(1588-4430)

해피앙상블 제 3회 정기연주회

신년축복음악회

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해외유학을 마친 전문 남성성악가들로 구성된 해피앙상블은 지난 2002년 창단 이후 클래식곡 외에도 대중음악 및 민요,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프로그램

성가곡/축복받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의 통로, 영원한 은혜 등
CM송 메들리 등 수곡

· 출연/이홍길, 박훈, 우원석, 이남일, 우경준(이상 테너), 허종영, 김대성, 강재석, 정용욱, 배재진(이상 베이스)

· 피아노/안선애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이홍길(011-839-1084)

곽소정 피아노 독주회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부산음교 콩쿠르, 부산음협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는 피아니스트 곽소정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제 15번 사장조
BWV 884

코플랜드/파스칼리아
슈만/환타지 작품 17 다장조 등

입장료 초대

문의 곽소정(016-541-7035)

부산가톨릭대 음악교육원 제 15회 정기연주회

1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가톨릭대 음악교육원 수강생들이 현악앙상블, 오르간 독주, 그레고리오 성가 등 다

양한 연주곡을 들려주는 제 15회 정기연주회.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가톨릭대 음악교육원
(517-8241)

부산주니어클라리넷앙상블 제 6회 정기연주회

13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2001년 클라리넷 선율을 좋아하는 초·중·고등학생들로 창단된 부산주니어클라리넷앙상블의 6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9번 '합창' 중 '환희의 송가'
엘가/위풍당당 행진곡

김현철/Love is 등 수곡

· 지휘/김태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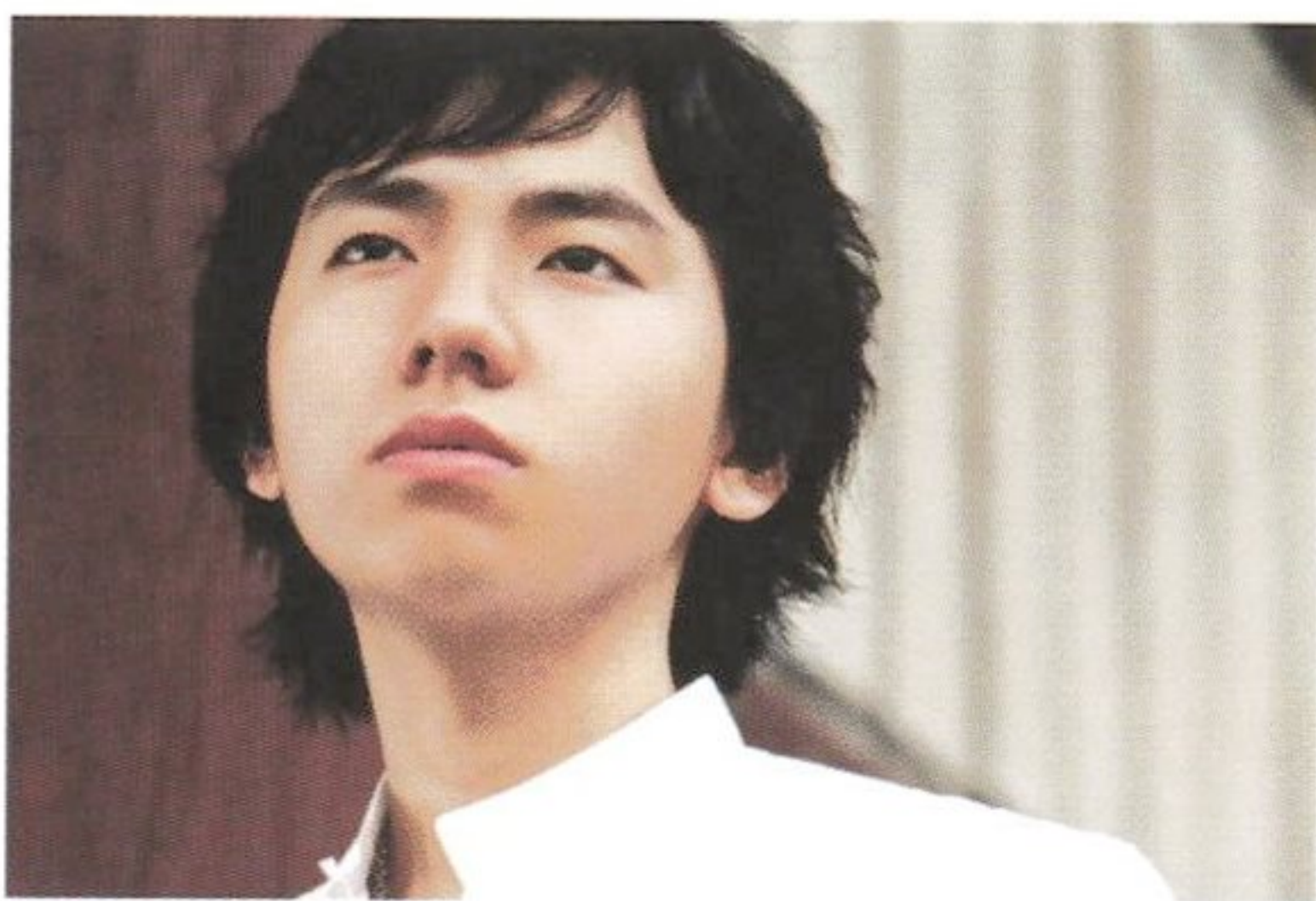
입장료 무료

문의 김태훈(017-543-0883)

팝페라 테너 임형주 4집 'The Lotus' 발매 기념

신년음악회

15일 **일요일** 오후 6:00
KBS 부산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4집 앨범 'The Lotus' 발매를 기념해 마련한 신년음악회.

오케스트라와 우리나라 민속악기인 대금, 태평소 등이 만나 동양 특유의 환상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타이틀곡 '연인'을 비롯 한국적인 정서와 동양적인 오리엔탈 팝페라를 표현한 4집 앨범 수록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문의 귀석엔터테인먼트(1588-5345)

베이스 김태형 독창회

1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뛰어난 오페라 해석능력과 풍부한 성량으로 전문 베르디아노 가수로 평가받는 베이스 김태형 독창회.

김태형은 추계예술대와 영남대 대학원 성악과, 이태리 살레르노 국립음악원, 로마 산타체칠리아 아카데미 최고과정 등을 졸업하고 꼬르떼 밀리아 국제콩쿠르, 루제로 레온 까발로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 '애처로운 마음이어'

로시니/오페라 '세빌라의 이발사' 중 '힘담은 미풍처럼'

푸치니/오페라 '라보엠' 중 '외투의 노래' 등 수곡

· 피아노/박윤정 · 해설/엄말순

입장료 초대

문의 김태형(010-2339-1973)

비엔나 챔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신년음악회

18일 **수요일** 오후 8:00
시민회관 대극장



새해 신년음악회로 유명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24명으로 구성된 앙상블 '코르소 비엔나'가 들려주는 신년음악회.

아시아에서의 첫 번째 공연이 될 이번 무대에서는 'Old Vienna-New Vienna'라는 주제로 1부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곡을 비롯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레퍼토리를, 2부에서는 영화음악, 재즈, 팝송 등을 들려준다.

· 지휘/Alfons Egger

입장료 R석 150,000원 · S석 120,000원
A석 90,000원 · B석 70,000원
C석 5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인터스테이지(627-6161)

을숙도교향악단

동물의 사육제

20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를 재구성, 동물의 소리를 구연동화로 표현하는 등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청소년 음악회.

이날 연주회장에서는 '생태와 천연기념물'이라는 주제로 유치원, 초등학생의 미술작품 전시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 객원지휘/홍성택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8,000원

문의 을숙도교향악단
(203-2627, 321-2626)

제 2회 부산국제음악제 디너콘서트 - 부산국제음악제의 후원자와 함께

21일 **토요일** 오후 6:30
그랜드호텔 부산 대연회장



화려한 스타군단으로 이뤄진 실내악 드림팀이 연주하는 실내악의 대향연 제 2회 부

산국제음악제 디너콘서트.

- 피아노/백혜선, 안소연, 로버트 맥도날드, 올리비에 가르동
- 비올라/최은식
- 바이올린/스캇 세인 존, 루시 스톨츠만
- 첼로/정명화, 로렌스 레셔, 프레드 웨리

입장료 균일 150,000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클래식기타 콘서트 3人 3色

21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9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김윤종, 고석호, 강해청이 들려주는 '3인 3색' 클래식기타 콘서트.

프로그램

- 마르티니/사랑의 기쁨
- 바흐/프렐류드 BWV 995
- 김광민/학교가는 길 등 수곡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김윤종(010-9492-4180)

다음카페 뮤클(뮤지컬&클래식) 동호회 1st 뮤지컬 합창단 발표회

21일 토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다음카페 뮤지컬&클래식 동호회인 '뮤클'

회원들이 뮤지컬 음악을 테마로 합창곡, 듀엣곡 등을 들려준다.

입장료 무료

문의 이상훈(010-3135-0423)

제 5주기 故 이수현 추모 음악회

2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취객을 구하려 선로에 몸을 던진 故 이수현의 의로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마련해온 추모음악회.

- 출연/여성합창단 세실(지휘/조경규, 피아노/김지인), 숲속 음악학교 어린이들, 부산대학교 합창단(지휘/손동현), 부산페스티벌 레이디싱어즈(지휘/김정환), 테너 전병호, 바리톤 안성철, 소프라노 정미애
- 반주/부산레이디즈앙상블

입장료 무료

문의 나눔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 (582-3297)

무용

리틀엔젤스예술단 부산 공연

19일-20일 목-금요일 오후 3:00, 7:00 KBS 부산홀



'춤추고 노래하는 평화의 천사' '친선과 우정의 작은 외교사절'로 전 세계 순회공연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소개해 온 리틀엔젤스예술단 부산공연.

리틀엔젤스예술단은 1962년 창단된 이래 전 세계 50여개국 5,000여회가 넘는 공연

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 1부/화관무, 처녀총각, 부채춤, 시집가는 날, 가야금병창, 화랑무, 북춤
- 2부/장고춤, 춘향이이야기, 강강수월래, 꼭두각시, 농악, 합창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A석 35,000원

문의 모델리아엔터테인먼트 (756-0372~3)

연극

사람의 아들

12월 22일(목)-2006년 1월 2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00(월요일 공연없음)
SH공간소극장

동명의 소설을 작가가 직접 희곡으로 각색한 '사람의 아들'은 극단적 방법으로 사회구원을 실천하는 민요섭과 그를 추종하는 조동팔을 통해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의 문제를 고민하는 작품이다.

- 작/이문열 · 연출/허영길
- 출연/호민, 권철, 원경식, 김진욱, 송준승, 김동하, 황자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의 SH공간소극장(611-8518)

생사계

10일(화)-15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액터스소극장



국내 초연무대로 올려지는 '생사계'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중국출신 프랑스 작가 가오싱젠의 대표작으로, 꿈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여성의 성과 정체성을 한 중년여성의 서술적 독백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 작/가오싱젠

- 재구성, 연출/이성규

· 출연/김미경, 하현관(마임이스트), 한영주 (무용수)

입장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액터스소극장(611-6616)

뮤지컬 천국과 지옥

13일(수)-31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천국과 지옥'을 오늘날 젊은 세대의 성장드라마로 새롭게 구성한 힙합 뮤지컬.

대학의 뮤지컬학과 천국팀과 길거리 힙합 모임 지옥팀이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면서 펼쳐지는 사랑과 우정,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 각색, 재구성/김현영, 남미정

· 연출/남미정 · 작, 편곡/강중환

· 출연/박채연, 허중혁, 김낙균, 최윤미, 이종현, 추은경, 오성택, 박세다 외

입장료 균일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뮤지컬 캣츠 포에버

13일-14일 금-토요일 오후 4:00, 7:30, 15일 일요일 오후 3:00, 7:00 시민회관 대극장

브로드웨이 뮤지컬 '캣츠'의 명성과 감동은 전하면서도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새롭게 각색한 뮤지컬 '캣츠 포에버'.

웅장한 스케일로 재현한 무대와 실제 고양이와 흡사할 정도의 세밀한 분장과 의상, 고양이의 움직임을 연상케 하는 스펙타클한 안무, 매력적인 음악 등이 재미와 감동을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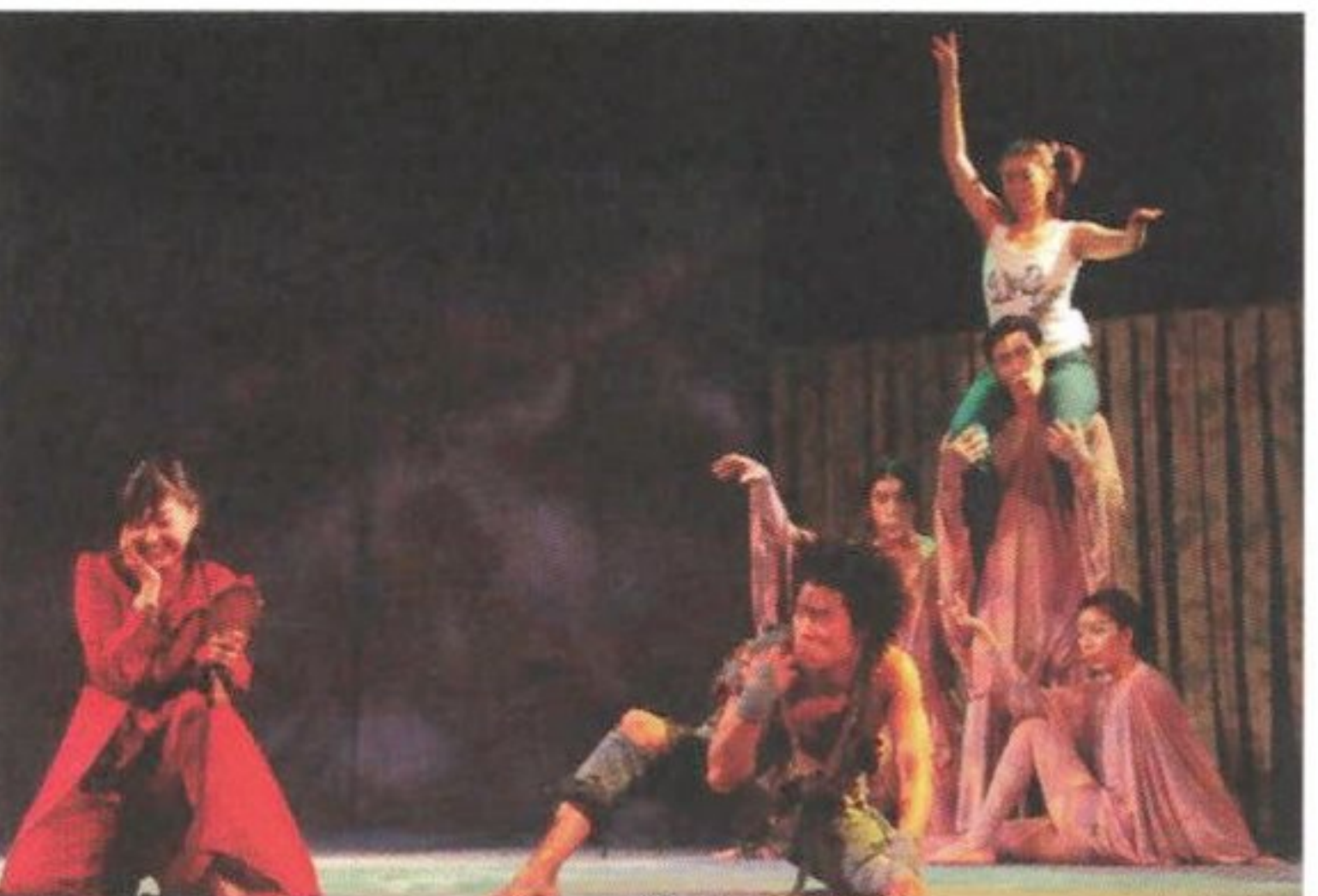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월 6일까지 예매시 10% 할인)

문의 (주)예술기획 성우 (053-626-1980)

아카펠라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14일 토요일 오후 6:00, 1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경성대학교 소극장



우리가 알고있는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 무대장치나 조명, 소품 등 특별한 효과없이 배우의 목소리와 신체의 움직임만으로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아카펠라 뮤지컬.

· 작/최은이, 민준호

· 연출/민준호

입장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2006 코믹극 뉴 보잉보잉

1월 31일(화)-2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소극장



서울 대학로에서 흥행돌풍을 일으켰던 폭소 코믹극 '뉴 보잉보잉' 부산공연.

미모의 스튜디오스 애인 세 명을 둔 바람둥이 주인공에게 어느날 세 명의 애인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주인공의 진실한 사랑찾기가 펼쳐진다.

· 연출/손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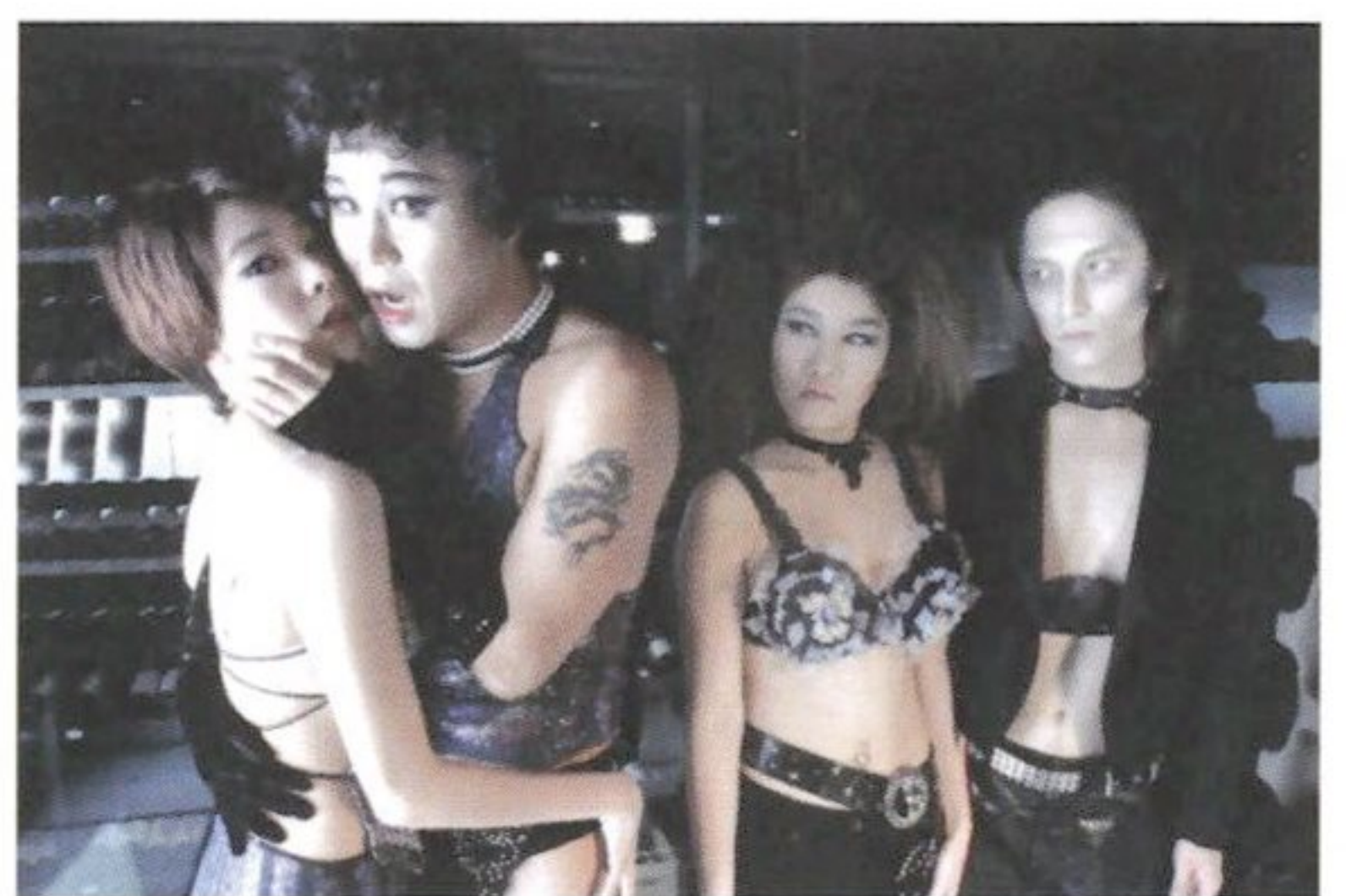
· 출연/김요한, 임대일, 김경룡, 장소연, 최영완, 석희연, 김미경

입장료 일반 30,000원 · 대학생 25,000원 청소년 20,000원(평일공연 20% 할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추가할인)

문의 (주)가림앤지(1544-2141)

록키호러쇼

2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7:00, 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1973년 초연된 이후 컬트문화의 대명사로 불리며 30년 넘게 공연된 컬트 락 뮤지컬 '록키호러쇼'.

스승을 찾아 여행을 떠난 모범생 커플이 우연한 사고로 외딴 저택에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기상천외한 세계가 열정적인 춤과 락음악속에 펼쳐진다.

· 작/리처드 오브라이언

· 연출/홍록기

· 출연/홍록기, 김태한, 송용진, 조서연, 이영미, 추상록, 황태광, 유나영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데우스(1588-9088)

영 화

부산시립미술관 무료영화상영

1월 4일(수)-2월 1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 강당

■ 상영일정

- 4일 그린치
- 11일 꼬마돼지 베이브2
- 18일 레모니 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 25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2/1일 슈렉2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버스터 키튼 특별전

5일(목)-26일(목) 오후 12:00, 2:00, 4:00, 6:00, 8:00(월요일 휴관, 목요일 8시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시네마테크 부산

찰리 채플린과 더불어 무성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슬랩스틱 코미디의 거장 버스터 키튼의 대표작 30편과 그의 영화와 인생을 조명하는 버논 베커 감독의 다큐멘터리 '그레이트 스톤 페이스'를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부산 '버스터 키튼 특별전'.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아 동 극

세계명작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6일-8일 금-일요일 오후 1:00, 3:00 시민회관 소극장

온갖 잔피로 아기돼지를 괴롭히는 늑대에 맞서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용감한 활약상과 따뜻한 형제애를 그린 가족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출연/오계영, 김혜원, 이선화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4,000원 할인, 매표소에서 카드 제시)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어린이 마당극 흥부와 놀부

14일 토요일 오후 2:00, 4:00, 15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을 그린 '흥부와 놀부'를 마당극으로 각색한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이제희
· 출연/최재영, 정미선, 이제희 외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플러스기획(080-071-1212)

콘 서 트

마술사 정성모의 마술콘서트 마법의 성

21일 토요일 오후 3:00 시민회관 대극장



휴전선 철책 사라지기, 국회의사당 사라지기, 남산타워 3단분리 등 그랜드 일루전의 대가인 마술사 정성모의 마술콘서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예매시 50% 할인)
문의 (주)조이씨앤씨(02-555-5157)

2006 이미지 '母情 사랑 하나' 콘서트

22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S석 55,000원 · A석 4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5,000원 할인)
문의 (주)원스테이지(1588-0881)

SG워너비 부산콘서트

22일 일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문의 편엔터테인먼트(1588-3370)

이은결 in Dream

31일 화요일 오후 3:00, 6:30 KBS 부산홀



화려하고 깔끔한 무대매너로 마술공연을 국내에 정착시킨 국내 최고의 마술사 이은결이 펼치는 매직쇼.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마데우스(1588-9088)

행 사

뮤지컬&클래식 예술공연 영상회

매주 일요일 오후 3:00(15일은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뮤지컬&클래식 동호회인 '뮤클'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하는 예술공연 영상회.

- 1일 오후 3:00 베르디 오페라 '팔스타프'

- 8일 오후 3:00 뮤지컬 '파리의 노트담'
- 15일 오후 5:30 발레 '석화'
- 22일 오후 3:00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입장료 초대

문의 이상훈(010-3135-0423)

제 45회 시올림 시낭송회

4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강문출, 김경수, 김길녀, 김영미, 김지숙, 이규열
- 사회/한창옥 · 음악연출/김옥균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전 시

쾌락의 교환가치展

2005년 12월 3일(토)-2006년 2월 12일(일)

사회적인 문제에 발언하면서도 개인의 특수성에 천착해온, 나카무라 마사토(일본), 문형민(한국), 차오 페이, 잔 왕(중국), 토마스 바이얼레, 디릭 플라이쉬만, 다니엘 플룸(독일), 클로드 클로스키(프랑스) 등 5개국 8명의 작가들의 작품 20여점이 소개된다.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클로드 비알라展

2005년 12월 9일(금)-2006년 1월 21일(토)

1960년대 네오-다다이즘과 개념미술 경



향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쉬포르-쉬르파스의 주요 멤버로, 회화를 떠났던 미술을 다시 회화로 돌리고자 활동했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클로드 비알라 작품 전.

문의 조현화랑(747-8853)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05

2005년 12월 10월(토)-2006년 2월 19일(일)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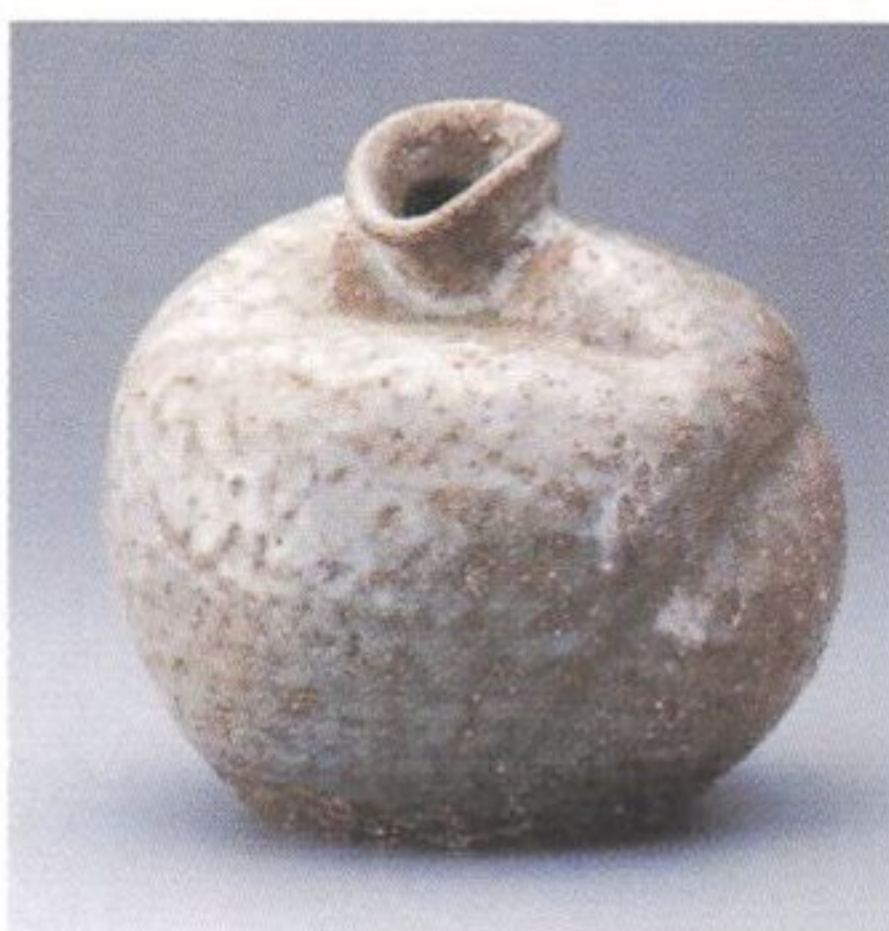
부산수채화협회 소품전

2005년 12월 12일(월)-2006년 1월 15일(일)

문의 부산수채화협회 갤러리(253-3777)

故 토암(土岩) 서타원, 粉白의 맛

2005년 12월 16일(금)-2006년 2월 5일(일)



토우작품으로도 유명한 故 토암 서타원 선생의 작품 중 분청사기만을 모아 마련한 기획전.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인체의 세계' 부산특별전

2005년 12월 17일(토)-2006년 3월 5일(일)

해운대 스펀지 4층 특별전시관

입장료 일반 10,000원 · 초중고 7,000원
만4세 이상 5,000원

문의 스펀지(740-4388)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2005년 12월 20일(화)-2006년 1월 8일(일) 경성대학교 제 1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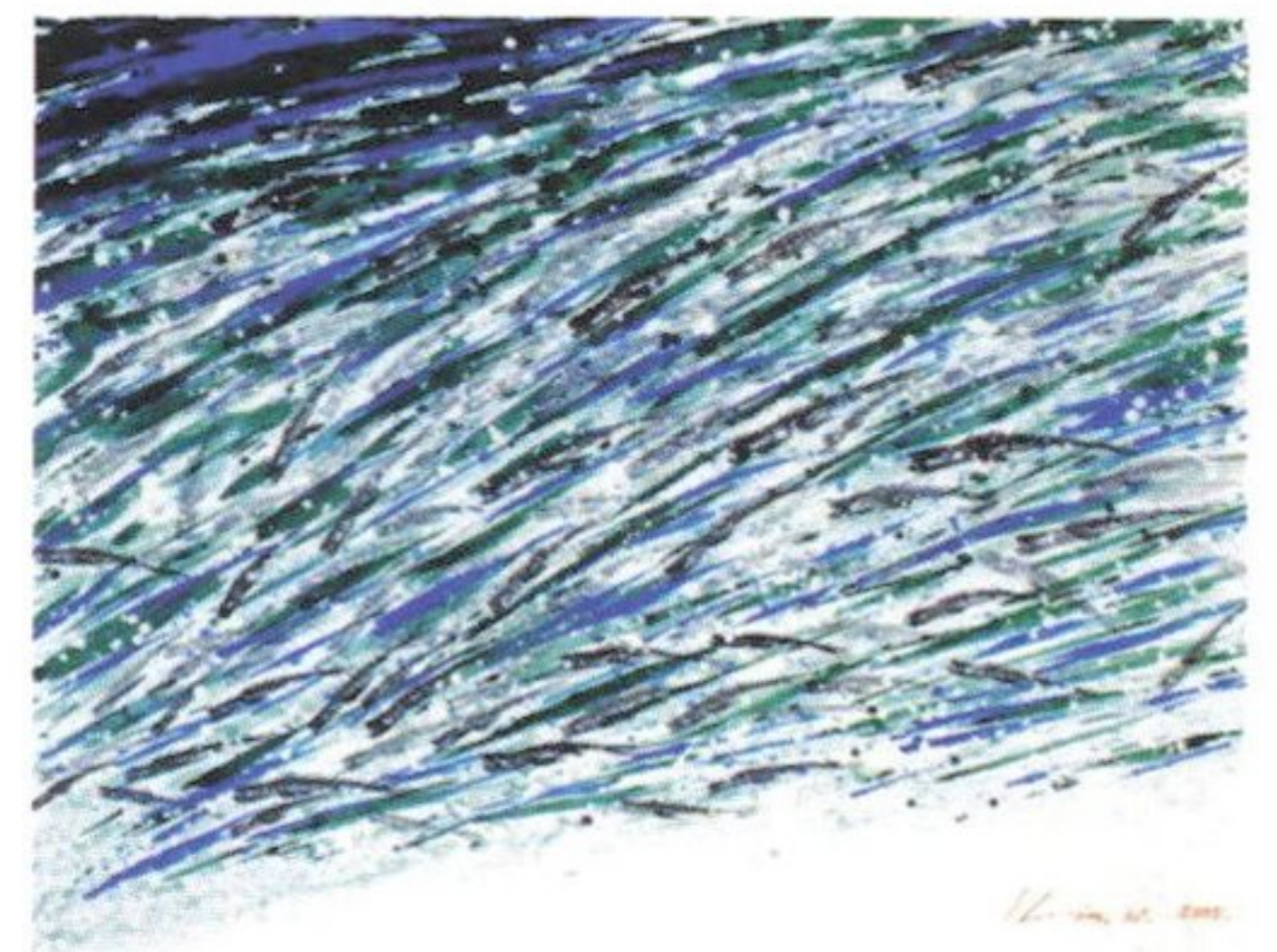
- 12월 27일(화)-12월 30일(금) 조형
- 12월 31일(토)-1월 4일(수) 서양화 I
- 1월 5일(목)-1월 8일(일) 서양화 II

문의 경성대학교 미술학과(620-4926)

2006 사상갤러리 초대전

김웅 작품전 '삶과 생명의 서(書)'

1월 16일(월)-1월 26일(목)



김웅作 Life(生)-1/2005

고향인 통영바다를 소재로 바다와 고향, 생명과 삶에 이르는 끊임없는 작품활동을 펼쳐온 서양화가 김웅의 11번째 개인전.

문의 사상갤러리(310-4068)

미술작품 판매, 대어

초대전시 작가 작품

- 김연규-제 1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
- 김형률-동의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서 용-중국 막고굴 돈황벽화
- 안정숙-홍익대 미술디자인교육원 및 교육대학원 출강
- 오병인-국립안동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 김미숙, 박혜림, 티나김
- 윤애근-국립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이두식-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
- 이철수-제 4회 미술세계 작가상 수상
- 장정애-현대미술대전 현대미술상 수상
- 최성환-2002~2005 한국국제아트페어 참여

- 김경수, 김배희, 김원, 서상환, 유진재, 주옥경 작품
- 판화 : 국내, 프랑스, 아르헨티나 작가 작품



※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센터 3층 T.624-0933 www.yehga.co.kr 한글도메인:갤러리에가

Recommended Performance in January

The Vienna Boys' Choir Concert

8th (Sun.) 5:00 P.M. Busan Citizen Center Main Theater



The Vienna Boys' Choir is one of the oldest boys' choirs in the world and will deliver a hopeful message of new year with its 'voice of angel'. The choir with more than 100 members aged 10 to 14 is divided into four groups called Mozart, Haydn, Schubert, and Bruckner and has given concerts all around the world.

Honoring the 250th anniversary of Mozart's birth, the Mozart team will visit Korea and sing music classics, folk songs, waltz and polka of Johann Strauss, pop music, and film 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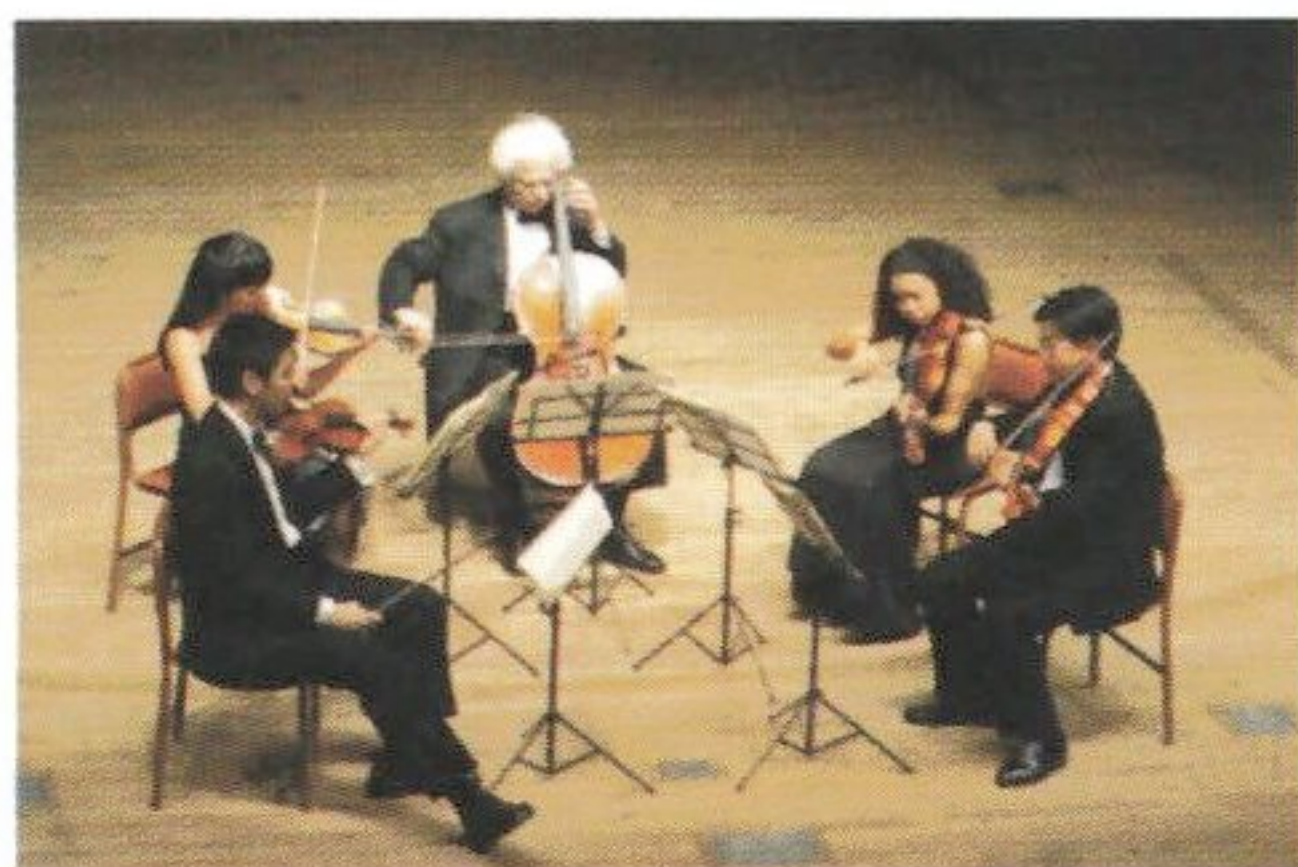
Ticket: VIP 80,000won · R 60,000won · S 50,000won

A 30,000won

More information: 1588-4430

The 2nd Busan PreMusic Festival

11th (Wed.) to 21st (Sat.)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Grand Hotel



Since its inception in January 2004, the BMF will have the second festival this month.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appreciate chamber music played by world-class musicians.

- 11th (Wed.) Opening concert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participant musicians include Back Hae-sun, Choi Eun-sik, Chung Myung Wha, Laurence Lesser, Marta Getz, Fred Sherie, Robert McDonald, Back Ju-young, Yoon Hae-ree.

program

Mozart/Flute Quartet No.1 K.285

Shostakovich/Piano Trio No.2 e minor etc

- ※ Pre Concert of Yim Hee Young, a winner of the 1st BMF Concours will be at 7:00 before a main concert

- 14th (Sat.) A family concert- 'The Trout', Franz Schubert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program

Weber/ Flute Trio g minor Op. 63

Smetana/Piano Trio g minor Op.15 etc

- 16th(Mon.) Muse Trio & Quartet Muse- Busan chamber music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Muse Trio is Busan's representative chamber orchestra in the 1990s. It will play together with Quartet Muse led by a violinist Yim Byung-won.

program

Dvorak/String Quartet F Major 'American'

Dvorak/Piano Trio Op. 90 'Dumky' etc

- Muse Trio- Choi Hyun-sun (Piano), Yim Byung-won (Violin), Lee Yu-mi (cello)

- Quartet Muse- Yim Byung-won (1st violin), Whang Ji-won (2nd violin), Choi Young-wha (viola), Kim Pan-su (cello)

- 17th(Tue.) Festival Concert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Lucy Stolzman, Scott Shane John, Marta Getz, Choi Eun-sik, and Fred Sherie will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beautiful chamber music.

program

Mozart/String Quintet D Major K 593

Gian Carlo Menotti/Two Cellos and Piano Suite ect.

- 18th (Wed.) A rising star Kim Dasol's piano recital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Dasol Kim is a second-place awardee in the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Kim is a pianist from Busan and was outstanding among competitors from the world. Kim won first place in Nagoya International Piano Concours and in other competitions, being lavished with praise by prestigious jurors.

program

Beethoven/Piano Sonata No. 7

Liszt/Faust Waltz etc.

- 20th (Fri.) Concert for professors and students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iddle Theatre)

The concert will be attended by artists invited to BMF and students of Music Academy.

- Cast/Lucy Stolzman, Back Hae-sun, Choi Eun-sik, Scott Shane, John Fred Sherie, Olivier Gardon, Robert McDonald, Ahn So-yun

- 21st (Sat.) Dinner concert with sponsors of BMF (6:30 P.M. the grand ballroom of Grand Hotel)

Ticket: 20,000won (except 13th's New Year's Concert and 21st's Dinner Concert)

More information: 747-1536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2006 Korean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11th (Wed.) to 12th (Thu.)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Small Theater

Members of the BMDC will perform the maj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 The first day

Han Young-suk style Taepyeongmu(dancer/Kim Ju-yeon), Buchesanjochum(dancer/Lee wha-sung), Jinswechum(dancer/Jang Rae-hun, Seo Hyun-mi), Han Young-suk style Salpuri(dnacer/Jeon Jae-ryeon) etc.

■ The second day

Seongmu(dancer/Jang Hae-jung, ganggu/Jang Rae-hun), Kang Sun-young style Taepyeongmu(dancer/Kwon Bong-jung), Sanjo dance (dancer/Jung Sun-hee), Jijeon dance(dancer/Seo Jung-suk), Han Young-suk style Taepyeongmu(dancer/Yoon Eun-ha)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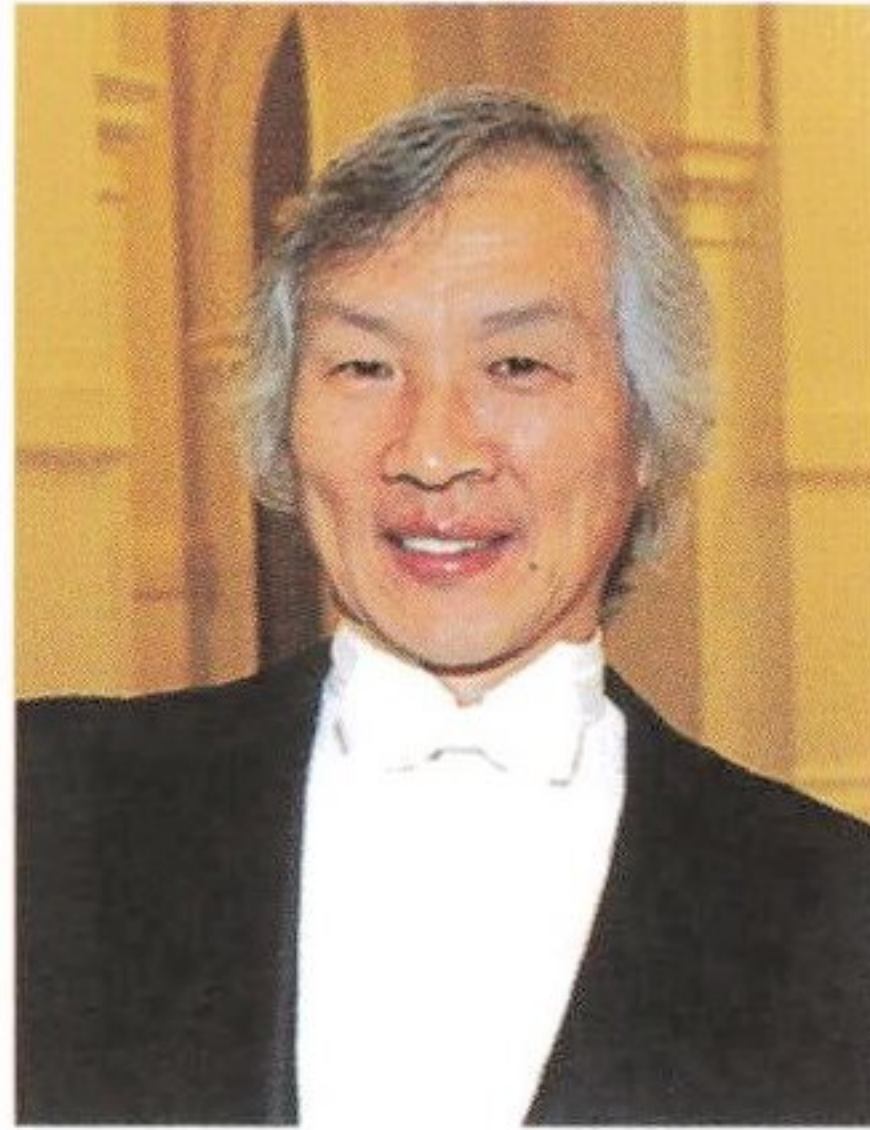
Ticket: 5,000won

More information: 607-6070, 607-6118

Busan Philhamonic Orchestra: The 417th Subscription Concert '2006 New Year's Concert'

13th (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is concert will play for New Year's hope and joy. The ex-principal conductor Kwak Sung and the BMF(Busan Music Festival) participant musicians will meet music fans of Busan program



P.I.Tchaikovsky/Capriccio Italien op.45
L.v.Beethoven/Triple Concerto for Piano, Violin, Cello and Orchestra in C Major op.56

P.Sarasate/Zigeunerweisen op.20 etc

• Conductor/Sung Kwak

• Cast/Lucy Stoltzman(Vn), Kim Soo-vin(Vn), Laurence Lesser(Vc), Olivier Gardon(Pf), Park Mi-hae(Soprano), Kim Nam-du(Tenor)

Ticket: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 607-6070, 607-6101~4

Lim Hyung Joo (Popera Tenor) Concert: 'The Lotus'

15th (Sun.) 6:00 P.M. KBS Busan Hall

Korea's world-renowned popera tenor Hyung Joo Lim released the latest album 'The Lotus'. This album has a specifically oriental and Korean feel. 'Lovers' (title song) adds taepyeongso and daegeum to an orchestra.

Ticket: R 80,000won · S 60,000won · A 40,000won

More information: 1588-5345

The Vienna Chamber Orchestra: The New Year's Concert

18th(Wed.) 8:00 P.M. Busan Citizen Center Main Theater

Corso Vienna, an ensemble of 24 members, is famous for giving New Year's concert. It will be a premier concert in Korea. Under the theme of 'Old Vienna-New Vienna, the first part will be consist of repotory pieces of the Vienna Philharmonic Orchestra's New Year's concert and pieces of Johann Strauss and the second part will

comprise film OSTs, jazz and pop songs

• Conductor/Alfons Egger

Ticket: R 150,000won · S 120,000won · A 90,000won

B 70,000won · C 50,000 won

More information: 627-6161

The Little Angels Art Company's concert in Busan

19th (Thu.) to 20th (Fri.) 3:00 7:00 P.M. KBS Busan Hall

The Little Angels Art Company is considered 'angels to sing and dance for peace' and 'little diplomatic delegates for friendship' thanks to its commitment to introduce Korean culture to the world. Since its inception in 1962, it had over 5,000 tour concerts in more than 50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gram

1st part/Hwagwan Dance, Young Men and Women Dance, Fan Dance, The Weddign Day, Gayageum Chorus, Hwarang Dance, Drum Dance

2nd part/Jangu Dance, ChunHyang, Ganggangsulrae, Kokdugaksi nolum, Nongak, Chorus

Ticket: R 55,000 won S 45,000 won A 35,000 won

More information: 756-0372~3

Jung Sung Mo (Korea's top magician) Magic Concert: 'Magic Castle'

21st (Sat.) 3:0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A master magician's magic concert will show a variety of fantastic magic including the disappearance of iron railings in DMZ,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etc.

Ticket: R 50,000won · S 30,000won · A 20,000won

More information: 02-555-5157

Lee Eun Gyeol in dream

31st(Tue.) 3:00, 6:30 KBS Busan Hall

Eun Gyeol Lee is a magician who made magic concerts popular in Korea in a variety of wonderful magic skills. A foreign magician Mike Michaels will be a guest magician who catches on with the only robot magic in the world, performing fantastic magics under fantastic music and 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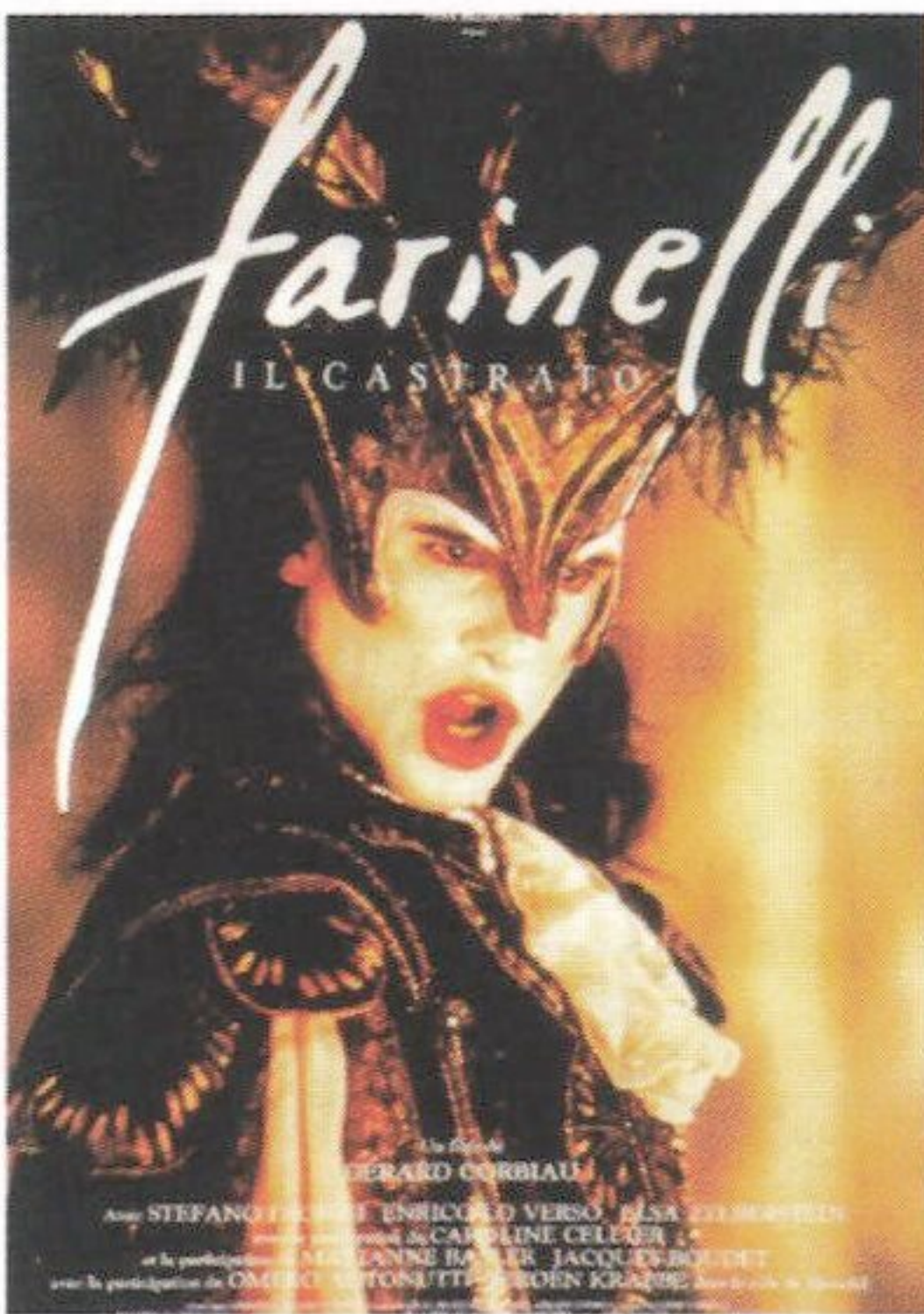
Ticket: R 55,000 won S 44,000 won

More information: 1588-9088

(Translated by Heo Mi-ran)

카스트라토(Castrato)

곽근수 · 음악평론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린도전서 14장 34절)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중세 교회가 음악사의 한 부분을 비극으로 만들었다. 중세 암흑시대의 그리스도교는 종교뿐 아니라 정치, 사회, 예술의 모든 분야를 지배했고 종교의 부패와 잘못된 성경해석은 수많은 비극적 사례를 남겼다. 그중 하나가 여자들이 교회에서 큰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16세기에 로마교황청의 시스틴 채플에서 카스트라토들이 활약했다는 기록이 있고, 카스트라토의 전성기 때인 18세기에는 이탈리아에서만도 1년에 4천여 어린 소년들이 거세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정상급 카스트라토의 인기와 영화는 요즘 영화배우나

오페라 가수들을 능가할 정도여서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었다. 거세된 가수,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게다가 아이도 어른도 아닌 이상야릇한 중성적인 존재. 카스트라토는 바로 그런 존재였고, 그게 엄청난 신비감을 조성했다.

미성을 지닌 소년이 8~10세에 이르렀을 때 고환제거 수술을 해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멈추게 하여 성대가 충분히 발육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소년의 미성을 지니도록 했다. 성대는 변성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러나 다른 신체적 발육은 정상적이었다. 그들은 소년과 같은 고음을 자유자재로 발성했을 뿐 아니라 성인 남성처럼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폐활량이 좋았다. 여성의 목소리를 가성을 써서 흉내 내는 팔세토 가수의 가늘고 어두운 목소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풍성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3 옥타브 반 정도의 음역을 커버할 수 있고 그들 특유의 음색은 물론, 콜로라투라라의 화려한 장식음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성의 소프라노와 알토보다 더 강력하고 관능적이었다.

로마교황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소년들의 거세를 금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틴채플에 카스트라토를 고용했었다. 18세기 시스틴채플의 성가대 구성은 28명의 남자성가대원으로 4부가 각각 7명으로 되어있어 7명의 소프라노가 필요했다. 그러나 1810년대 이탈리아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카스트라토를 엄하게 단속하고 교회도 카스트라토의 고용을 제한해서 19세기말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많은 카스트라토의 이름들이 역사에 남아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가수는 영화 ‘파리넬리(Farinelli)’의 주인공 카를로 브로스키(Carlo Broschi, 1705-1782)이다. 원래 오페라 작곡가였던 헨델이 오페라를 접고 오라토리오 작곡으로 방향을 튼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파리넬리 때문이었다. 헨델이 고용한 카스트라토 세네시노가 라이벌 오페라 회사의 파리넬리의 인기를 따르지 못하게 되어 막을 올리는 공연마다 실패를 거듭해 결국은 파산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이사도라 던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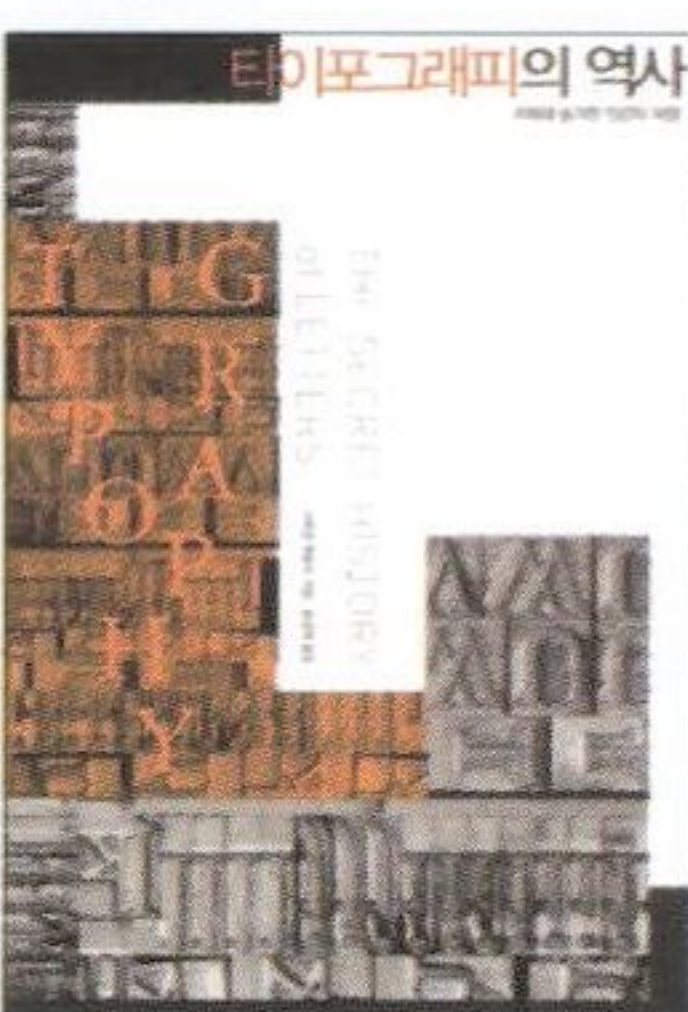
프레데릭 꾸데르꼬 지음 | 현대문학 | 395p | 12,000원



20세기 초 자유주의 운동의 선두에 섰던 춤의 혁명가 이사도라 던컨, 그녀의 자유분방한 예술혼과 사랑, 그리고 내면의 고통을 재현한 소설. 저자 프레데릭 꾸데르꼬는 소설가이자 전기작가로 프랑스 문단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작가이다. 그는 이사도라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 상황을 정확히 재현하고자 백여 권이 넘는 분량의 사료집과 이제까지 출간되었던 이사도라에 대한 모든 전기를 탐독했다. 그 덕분에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1차 세계대전 전시상황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고, 등장인물들 역시 실존감 있게 표현되고 있다. 물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은 실재했던 인물들이고, 주요 사건들 역시 실화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요소로만 작용한다. 이 점이 주인공의 연대기를 순차적으로 따르는 보편적인 전기소설과 분명한 구별점이 되어준다. 이 소설 속에는 천재 이사도라 던컨의 활약이 아닌, 사랑에 빠진 한 여인으로서의 이사도라와 자식을 잃고 절규하는 뜨거운 모성의 이사도라가 등장한다. 화려한 명성만큼 빛났던 사랑과 삶, 비극적 운명마저 정열적으로 감싸 안았던 이사도라 던컨의 일대기를 소설로 만나는 책.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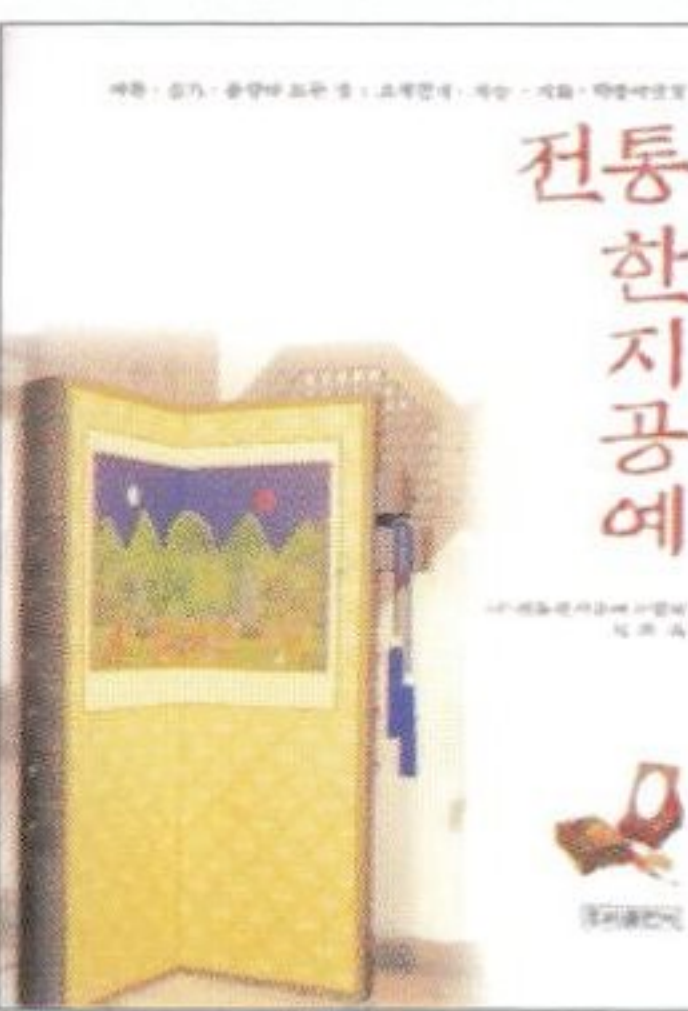
사이먼 록슬리 지음 | 생각의 나무 | 322p | 22,000원



카페의 분위기 있는 간판, 줄거리를 암시하는 영화 포스터의 제목 등에 시선이 끌리는 경험이 있다면 이 책에 관심을 생길 것이다. 문자이긴 하되 문자 이상의 것을 말해주는 활자와 글꼴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룬 책이다. 인쇄물, 특히 서적의 본래의 자세를 관찰하면 타이포그래피는 서양 활판 인쇄술 이전에 이미 상당히 발달된 양식을 갖춘 원류를 가지고 있었다. 현대적인 개념의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요소, 즉 이미지, 타이프, 그래픽 요소, 색채, 레이아웃, 디자인 포맷,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각디자인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이너이자 타이포그래퍼인 저자가 역사적인 현장을 누비고 오랜 서체 자료가 보관돼 있는 도서관과 박물관을 뒤져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섭렵한 뒤에 이야기를 풀어내듯 역사를 기록하였다. 우리가 항상 접하지만 그냥 흘려 지나칠 수 있는 문자를 다른 관점에서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인문교양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전통 한지공예]

심화숙 지음 | 우리출판사 | 261p | 18,000원



한국인에게 한지는 생활과 신앙을 아우르는 의미를 지닌 친근한 소재로서 전통문화의 바탕이기도 하다. 우리 선조들은 종이로 노끈을 만들기도 하고, 일상용품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근대 이후로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한지와 관련된 문화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랜 세월 전통문화와 단절된 일반인들에게 한지공예가 낯선 것이 사실이다. 손재주가 뛰어난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한지공예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전통한지공예>의 출간소식은 그런 의미에서 반갑다. 이 책은 한지의 기원, 제조과정에서부터 한지공예의 기본이 되는 옷칠, 유칠, 염색의 이론과 실기, 오색전지공예, 지승공예, 지화공예, 닥 인형 공예의 이론과 실기도 담고 있다. 또한 직접 따라해 보면서 조상들의 따스한 숨결을 느끼고 실생활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응용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우수한 한지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책이다.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지문화가 제대로 평가받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 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부산시립합창단 2005년 송년 대시민합창을 마치고

한재희 · 제 4기 시민합창단 단원



12월 20일 부산시립합창단 송년시민 대합창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연합합창단을 만들어 함께 한 무대 선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김강규 수석지휘자 선생님의 지도로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연습하고 공연을 마치고 나니 가슴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올해로 3번째로 송년 시민대합창에 참가했다. 처음 신문에서 우연히 시민합창교실 개강소식과 수료생들은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연합합창단을 만들어 부산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설레었다.

3년간 계속 참가하면서 걱정도 많았다. 12월이 시작되어 한주에 두 번씩 연습을 하면서도 혹시 공연 당일 사람이 적게 오면 어쩌나, 큰 무대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도 했다.

나는 처음 송년시민대합창에 참가하고 난 다음해부터는 새해를 맞이할 때 마다 연말에 있을 송년음악회에 참가하리라 미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연말에 공연이 끝나면 한해를 정리하고 또 한해가 다갔구나 느끼곤 했다.

부산시립합창단 송년시민대합창은 부산문화회관 합창교실을 수료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대이다. 돌아오는 2006년에는 많은 분들이 연주자면 연주자의 자세로, 관객이면 관객의 자세로 송년 시민대합창에 참가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1년에 단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무대에도 서 보고 바쁜 일상생활에서 잃어버린 나의 소중한 꿈을 펼쳐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번 시민대합창에 함께 하여주신 시민단원 여러분들, 특히 지휘자 선생님과 부산시립합창단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번 무대를 계기로 시민합창단원들도 부산문화를 가꾸는 마음으로 합창사랑을 펼쳐 나가고 싶다.

제 14기 어린이한국춤교실 수강생모집

부산시립무용단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국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한국무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 14기 어린이 한국춤 교실을 개강합니다.

- 강습기간 : 2006년 1월 16일(월)~1월 20일(금) 13:00~14:00 (5일간)
- 강습장소 : 무용단 연습실,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강습내용 : 어린이 탈춤, 아리랑춤
- 강 사 : 어린이탈춤-홍기태(수석안무자), 이성원(수석단원)
아리랑춤-이윤희(훈련지도자), 장해정(부수석단원)
- 대상 및 인원 : 초등학교 어린이/각 반 20명
- 접수기간 : 2006년 1월 2일(월)~2006년 1월 12일(목)(9일간) (평일 09:00~18:00)
- 접수장소 : 부산시립무용단
- 강 습 료 : 10,000원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

제 25기 시민무용교실 수강생 모집

부산시립무용단에서는 우리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무용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25기 시민무용교실을 개강합니다.

- 강습기간 : 2006년 1월 16일(월)~1월 20일(금) 14:00~16:00 (5일간)
- 강습장소 : 무용단 연습실,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 강습내용 : 탈춤, 부채산조춤
- 강 사 : 탈춤 - 홍기태(수석안무자), 이성원(수석단원)
부채산조춤 - 이윤희(훈련지도자), 장해정(부수석단원)
- 대상 및 인원
 - 대상 : 일반 시민 및 교사
 - 인원 : 각 반 20명
- 접수기간 : 2006년 1월 2일(월)~2006년 1월 12일(목)(9일간) (평일09:00-18:00)
- 접수장소 : 부산시립무용단
- 수 강 료 : 20,000원
-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문제

1. 설달 그림이나 정초에 하는 인사.
2. 조선시대 정초의 생모이자 사도세자의 빈(嬪)이었던 혜경궁 홍씨의 자전적 회고록.
4. 남성과 여성을 오가는 주인공의 500년에 걸친 삶을 그린, 1928년에 발표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6.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8.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
9. 무대와 객석 사이를 가르는 장치.
11. 허구를 넣지 않고 사실을 바탕으로 쓴 작품.
13. 드라마 '인어아가씨'로 제 2의 연기인생을 시작한 아역 출신의 연기자.
15. 2005년은 을유년, 2006년은 ○○○.
17.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19. 불교에서 석가가 그 아래에 앉아서 도를 깨쳤다는 나무.

21. 지중해 중앙부, 북서에서 남동으로 약 1,200Km에 걸쳐 장화모양을 한 반도로,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두 섬으로 구성된 국가. 수도는 로마.
23. 지난날 '행세하는 집의 자손으로서 허랑방탕한 사람'을 이르던 말.
24. 부산의 대표적인 수산물시장.
25. 재즈의 유행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목관악기.
26. 음력 12달은 태양력에서 약 11일이 짧아 3년에 한번, 또는 8년에 석달을 끼워넣는 달을 지칭한다.

세로문제

1. 새해 첫날에는 세배를 하며, 정월대보름날에는 지신밟기를 하는 등 예로부터 해마다 관례로 행해지던 행사를 일컫는 말.
2. 상봉에 백록담이 있는 제주도의 명산.
3. 한쌍의 연인이 외딴 성에서 겪는 기괴하고 황당무계한 일을 그린, 1975년 개봉된 짐 셔먼 감독의 컬트영화의 원조. 앞서 1973년 뮤지컬로 먼저 상연되어 열광적인 매니아들에 의해 컬트문화의 대표작으로 사랑받고 있다.
4. 르네상스 이래 최초로 현실의 여성을 누드로 그려내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프랑스 화가 마네의 작품.
5. 도기를 굽는 가마.
7. 남자무당.
10. 배우가 작품 속의 인물의 모습으로 옷차림이나 얼굴을 꾸밈, 또는 그 모습.
12. 왕자 타미노가 악의 화신인 밤의 여왕을 물리치고 그의 딸인 아름다운 파미나와 맺어진다는 내용의 모차르트 2막 오페라.
14. 덜 마른 장작.
16. 자연을 하나의 색채현상으로 보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한 변화속에서 자연을 묘사한,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사조.
18. 팽이를 채로 쳐서 돌리는 놀이.
19. 주변의 빛깔과 비슷한 빛깔로 되어있는 동물의 몸빛. 먹이가 되는 동물의 눈을 속이거나 외적으로부터 자기몸을 지키는 구실을 한다.
20. 미국의 '행진곡왕' 수자가 헬리콘 베이스를 개량한 최저음용의 대형 금관악기로 취주악 등에 쓰인다.
22. 단군 왕검이 도읍으로 삼았다는 지명. 평양이라는 설과 구월산(九月山)이라는 설로 양분되어 있다.

지난호 정답

환	모	나	리	자	진	강
희	곡	막		가	시	버
의	와	신	상	담	황	
송	강	호	하	가	릉	빈
가	장		이	슬	람	처
	계	룡	산	룻	뺨	양
미	륵		타	임	머	신
네		씨	클		신	
르	포		로		구	운
바		에	스	페	란	토
						롱

- **큰집 식사권**
박상현(부산진구 부전2동) 이영경(사상구 학장동) 홍소라(해운대구 반여1동) 김선영(동래구 온천3동) 송정숙(부산진구 연지동)
- **돈방불패 식사권**
이정아(기장군 기장읍) 구순자(서구 서대신동1가) 김재은(동래구 온천3동) 신상수(부산진구 가야3동) 강혜은(부산진구 연지동)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노현희(부산진구 연지동) 문정아(남구 용호1동) 최은아(기장군 교리) 홍경애(연제구 연산5동) 유지영(남구 대연3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유문준(해운대구 반여2동) 소은희(동래구 온천3동) 최윤숙(부산진구 연지동) 진석순(양산시 웅상읍) 이연희(동구 범일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돈방불패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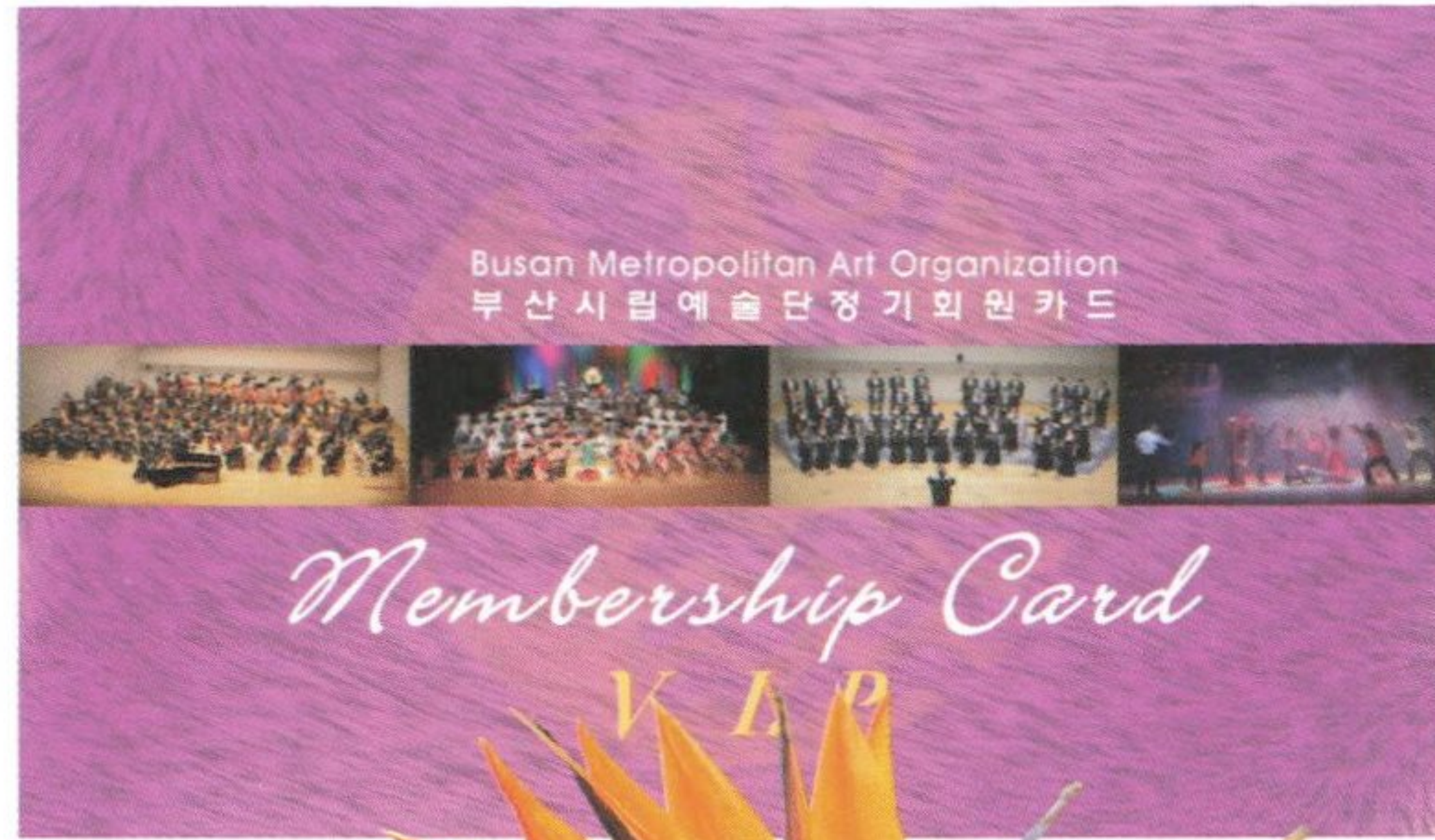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내마음에 담아둔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제공과 부산시립예술단 무료 공연에 최우선 초대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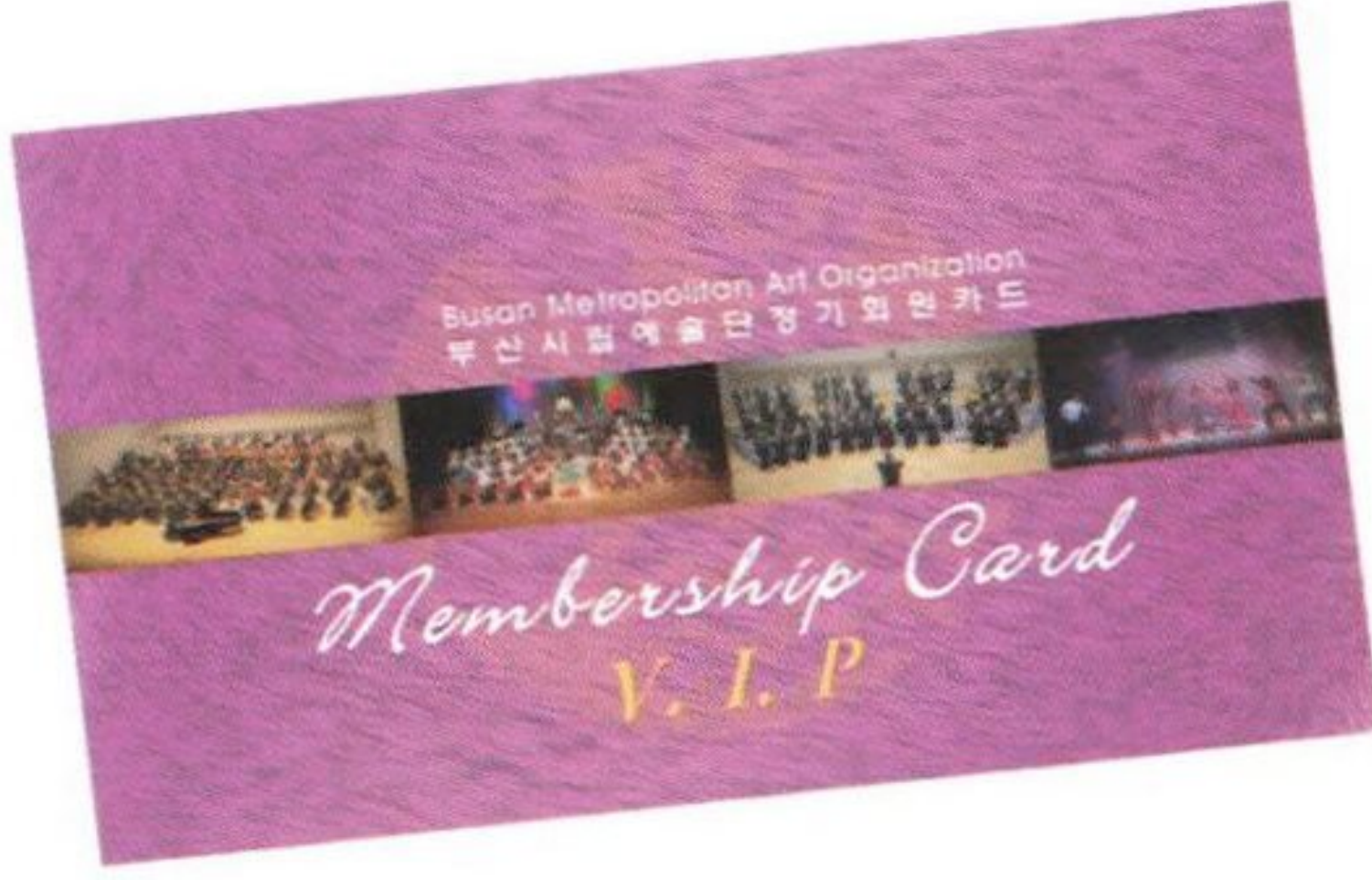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6 0 8 - 0 2 4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회원님 명의로 사전 예약하고 지정계좌에 입금 하셔야 됩니다. 단,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최저가는 할인 되지 않습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 · 경로우대 · 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연 관람 하루전까지 예약을 해주십시오

- 예약이 빠르면 좌석이 앞섭니다.
- 공연 예약후 사전에 취소 연락없이 공연관람을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예약한 인원 전체를 관람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인기있는 공연으로 예상되는 시립예술단 공연에 대하여는 관람 인원을 공연회당 회원본인과 동반자 1인을 포함 2명으로 제한합니다.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그동안 사용하던 가입비 납입계좌번호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정기회원가입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가입	
가입구분	성명	휴대폰	
	자택	☎	
	직장	☎	
	e-mail		
회원구분	VP회원	1년제	10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25,000원 10회 45,000원
	장애인·경로우대·국가유공자사랑회원(50% 할인)	1년제	5회 12,500원 10회 25,000원
	청소년푸른회원(20% 할인)	1년제	5회 20,000원
가입동기	단원 권유 직원 권유	예술에의 초대 광고	공연관람후 자발 기타
관심단체	교향 국악 합창	무용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관심분야	고전/현대음악 오페라	전통무용 발레 재즈	자녀들을 위한공연 기타
공연관람횟수	한달 회	년간 회	
가입권유	소속	성명	

년 월 일 신청인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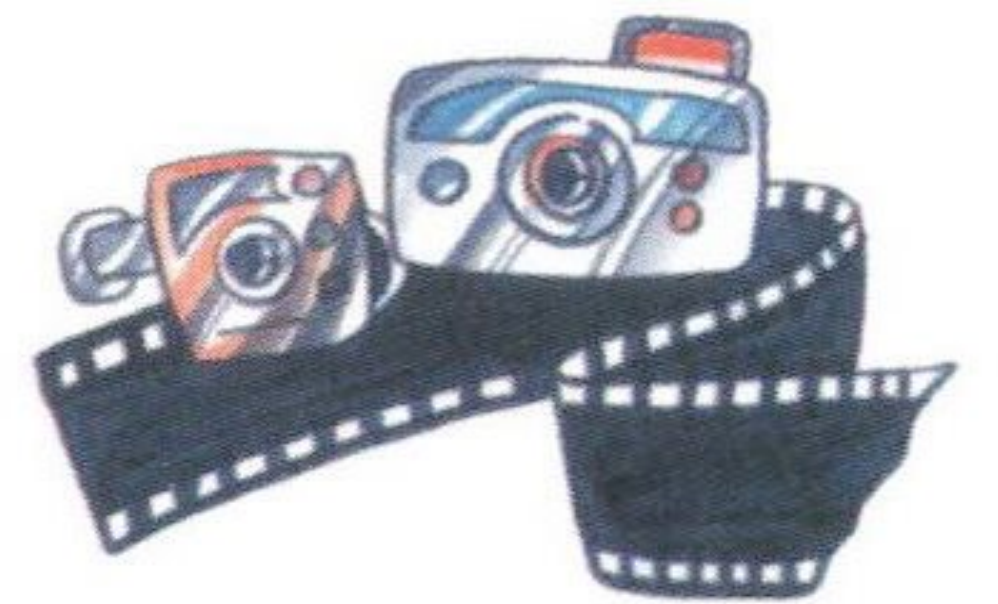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암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 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2006. 3. 3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기획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1월 토요일 상설무대

• 1월 21일(토)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사)서울전통타악진흥회 부산지회 연주회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 (연주/최-최오성, 최창용·징-임채형, 안지영·장구-하정희, 방재연, 박우정, 권보름·북-김정훈, 김지희, 정미라, 장주영)

국악가요 '천지여 천지여', '배 띄워라' (연주/노래-박성희·대금-이중희·신디-백규진·해금-윤해승·가야금-조경화·타악-신문범, 김정훈, 최오성 외)

장구 다드리 '점(點)' (연주/김정훈, 최오성, 하정희, 최창용, 임채형, 김지희, 방재연, 안지영)

뱃노래를 위한 새울림 (연주/노래-박성희·대금-이중희·신디-백규진·해금-윤해승·가야금-조경화·모듬북-신문범, 김정훈·전자드럼-최오성)

모듬북 합주 (연주/신문범, 김정훈, 최오성, 하정희, 최창용, 임채형, 김지희, 방재연, 안지영 외)

※사회/박성희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동반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이번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예술에의 초대 협찬사를 모집합니다

예술에의 초대가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 전시 정보를 매월 전해드리는 월간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가 협찬사를 모집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비롯 문화 예술 기관, 부산시내 주요 예매처에 배부되는 예술에의 초대는 문화를 사랑하는 부산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 정보지입니다.

예술에의 초대 광고는 문화를 사랑하는 기업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공연, 전시 팸플릿 제작, 홍보비 등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료

표지 4면-100만원

표지 2면, 표지 3면(표지 안쪽 면)-70만원

내지 전면 컬러-50만원

내지 하단(5cm×16.5cm)-10만원

※ 1년 계약하는 기업, 단체에 한하여 10% 할인

※ 광고기간, 규격은 신청자가 직접 지정하고 광고안이 없을 경우 별도의 비용없이 제작하여 드립니다.

문의

부산문화회관(051-607-6077~8)

예술에의 초대를 받아 보시려면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회원정보지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회원가입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051-607-6070)



2006

謹賀新年

아름다운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의 본당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